

碩士學位論文

우리는 하나다

-(You Gotta Have WA 論文翻譯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金仁洙

2007年 12月

우리는 하나다

(You Gotta Have Wa 論文翻譯)

指導教授 金 載 原

金 仁 洙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2月

金仁洙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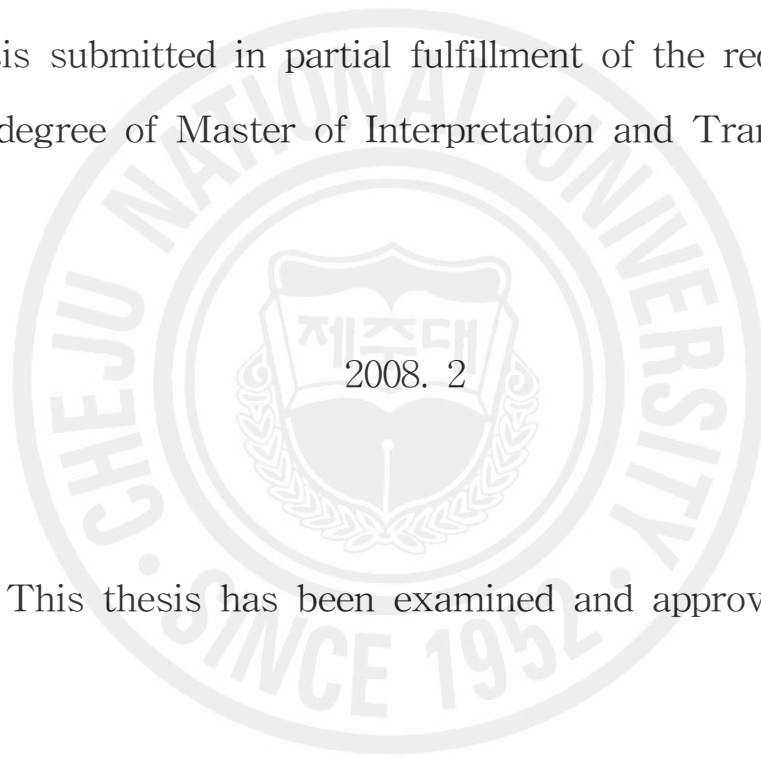
2008年 2月

You Gotta Have Wa

In-Soo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d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obert Whiting, the author of *You Gotta Have Wa*, was born in New Jersey, the United States and has published a pair of highly acclaimed books on Japan. He was graduated from Tokyo's Sophia University and was one of one of the very few Westerners to write a regular column in the Japanese press. He has also written for *The New York Times*, *Sports Illustrated*, *Smithsonian*, *Newsweek*, *U.S. News and World Report*, and *Time*, among other publications.

The book deals with the American players encounter with Japanese baseball in the 1980s during the strength of Japan's economic growth introducing various episodes from Japanese and American players. It also covers the history of Japanese baseball, the significance of high school baseball to the Japanese psyche, the organized cheering squad, and the interpreters.

However, this is a very unusual baseball book and is more than a baseball book. The author concentrates on what happens when two cultures collide on and off the ground.

The "Wa" means peace and tranquility, and is what one must have for group harmony in Japanese baseball and society. The "Wa" is anti-individual on the playing field, which is against American values.

In fact, baseball is the major professional sport in both countries, but "Americans played ball. Japanese worked at it," the author says.

< 목 차 >

1. 방문.....	1
2. 역사.....	26
3. 철학.....	51
4. 우리는 한 가족.....	79
5. 응원단.....	116
6. 샌드위치맨, 고난의 통역사.....	129



1. 방문

일본 시스템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입니다.

밥 호너

장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그는 나리타공항을 빠져나오며 수많은 카메라들과 불빛 그리고 마이크들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듯 눈을 깜빡였다. 따스한 사월 오후, 그 공항에 있었던 기자들은, 로널드 레이건이나 다이아나 왕세자비, 마이클 잭슨 등 여태껏 일본을 방문했던 그 어떤 외국인도 것처럼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그 당시를 설명했다.

그 방문객은 한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영화배우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미국에서 온 야구선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그의 입국은 국가적이며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닌 사건이었다.

그 당시 일본의 경제는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일본은 전 세계 은행에 있는 현금의 54%, 미국 맨하탄지역 부동산의 65%, 그리고 전체 미국국채의 3%를 소유하고 있었다. 잘 나가던 일본의 한 보험회사는 3천9백만 달러를 주고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어느 TV 해설가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일본 야구팀이 더 많은 연봉을 주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팀들을 누르고 당시 일류급 선수이던 로버트 호너를 영입하게 된 것이다.

베이스볼(Baseball, 야구)가 일본의 국기(國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인들의 대화에서 낱씨와 엔 달러 환율, 섹스에 이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야구였다. 프랭크 하우워드나 딕 스튜어트, 레지 스미스와 같은 선수들이 일본에서 선수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모두 이미 미국에서 전성기가 다 지날 즈음에야 '해 돋는 나라'인 일본으로 건너왔었다. 그래서 호너와 같은 그 당시의 일류급 메이저리그 거포가 일본에 오리라곤 아무도 차마 생각지 못했었다.

호너는 일본에 오기 전까지 애틀랜타 브레이브즈에서 9년간 215개의 홈런을

기록한 선수였다. 29살의 나이에 최고 기량을 선보이던 올스타급 선수였던 것이다. 수십 년간, 후보급 선수나 기량이 한물 간 스타선수들만을 데려오던 일본이 이제야 연봉 가치가 있는 미국산 상품을 들여오게 된 것이다.

외제품을 사는데 있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호너는 그런 일본 구매자의 속물근성을 부추기는 상품과도 같았다.

일본인들은 유명 상표가 달린 수입 상품만을 선호했으며, 가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열악하고도 복잡한 일본의 유통망을 거친 후, 나폴레옹 브랜드는 한 병에 이백달러씩에 팔려나갔다. BMW 한 대가 십만 달러였으며, 빙산얼음 한 봉지가 이십 달러에 팔렸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유명상품들을 통해서 그들의 체면을 지키려했기 때문에 손님들은 항상 끊이지 않았다.

애틀랜타에서 건너온 이 진짜배기 메이저리그 선수는 일본에서 늘 갈구하던 외제 명품이라는 이유로 일본인들에게 최고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는데, 그의 연봉 2백만 달러는 여태껏 영입했던 어떤 외국인선수들보다 훨씬 비싼 최고의 액수였다.

호너가 일본에 온 것은 순전히 금전적인 이유에서였다. 1986년 시즌에 애틀랜타에서 .273타율과 27홈런, 87타점의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한 호너는 일본의 자유계약선수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타진했다.

당시 2백만 달러라는 그의 연봉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팀이 전혀 없었으므로, 호너는 결국 적어도 한 시즌만이라도 그의 연봉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센트럴리그의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에서 선수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연봉은 당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던 일본선수의 연봉에 비해 두 배나 많은 금액으로서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이 되었다. 그의 계약체결 소식은 너무나도 대단한 뉴스거리여서 그가 일본으로 올 때 타고 왔던 JAL의 기장이 개인적으로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스왈로우즈는 도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팀이며, 도쿄는 야구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나는 도시이다. 하지만 천이백만 도쿄 인구의 대부분은 야쿠르트 팀과 반대편에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팬이었다. 자이언츠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프로팀이며, 서른세 번의 센트럴리그 정규리그 우승과 열여섯 번의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마치 국가공식기관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와 반대로, 37년의 역사를 지닌 스왈로우즈는 겨우 한차례의 우승을 차지했을 뿐이며, 스왈로우즈의 평균관중 수는 게임당 2만7천여 명으로 자이언츠의 게임평균관중 5만여 명에 비해 훨씬 뒤처졌다.

구단주인 히사미 마츠조노는 요거트 건강음료인 야쿠르트로 많은 돈을 벌어들인 뛰어난 사업가였다. 그는 회사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명한 멀티미디어 그룹인 산케이로부터 1965년에 구단을 인수했다. 하지만 야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그의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 스스로 자신은 자이언츠의 팬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다녔으며, 일본야구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자이언츠가 일등을 하고 스왈로우즈가 이등을 하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이 종종 인용되기도 했다.

1978년에 단 한번뿐이었던 우승을 하고나서 다음 해 봄이 되자, 그는 팀 미팅을 소집해서 한다는 말이 다시는 우승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구단주가 마치 이번에는 자이언츠가 우승할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한 외야수는 전했다.

그러나 마츠조노가 그렇게 말을 한 데에는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스왈로우즈가 자이언츠를 이길 때마다 야쿠르트 상품의 판매가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은 다른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스왈로우즈가 히로시마 카프 팀과의 연속게임에서 싹쓸이 승리를 할 경우, 히로시마 지역에서의 상품 판매 또한 일시적이거나 감소했다. 그러나 자이언츠 팀에게 연승을 거둔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야쿠르트 상품의 판매가 곤두박질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이언츠의 팬들은 전국에 걸쳐 퍼져있기 때문이다.

스왈로우즈는 1986년 시즌에 꼴찌를 기록했는데, 우연찮게도 그 해에는 흑자를 거두었다. 그랬던 마츠조노가 호너와 계약을 하고 다시 한 번 우승의 깃발을 휘날릴 것을 선언했으니 팬들과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 지 어리둥절했다. 어떤 기자는 이에 대해 “모든 것이 광고를 위한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호너는, 카메라들의 불빛 세레 속에서 피곤하고 거의 장님이 된 채로 이백여 명의 신문, 방송기자들을 앞에서 즉석기자회견을 가져야만 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호너는 리무진을 타고 떠났고,

그가 머물 도쿄의 한 호텔까지 한 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기자들의 호송차량들이 함께 따라가서는 호텔 밖에서 밤새 대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첫날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서막에 불과했다. 훗날, 호너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친구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 해에 일본의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의 12개 팀에서 활동했던 가이진(외국인) 선수들은 호너를 포함해 모두 21명이었다 (외국인선수는 한 팀에 2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유명한 선수의 도착을 반기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예전에 몬트리올 엑스포즈에서 활동했으며 바로 전 시즌에는 도쿄 자이언츠에서 .363의 타율을 기록한 워렌 크로마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호너와 같은 선수들은 역경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을 모릅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뛰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세비행기나 커다란 라커룸,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휴식과 같은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가 충격을 극복하는데 5개월은 걸릴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일본에서의 선수생활을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투구 스타일도 달랐고, 스트라이크 존은 넓었으며, 심판의 판정기준은 애매했다. 팀의 규정에 따라 야구선수로서의 생활도 엄격히 관리되었으므로 많은 미국선수들은 이를 군대생활에 비교하곤 했는데, 심지어 군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정서에 대한 확실한 적응이 요구되었지만, 벤 오글리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선수들에게 이 적응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때 아메리칸리그 홈런왕이었으나 밀워키 브루어즈와 재계약에 실패한 그는 자유계약선수의 신분으로 1987년 긴테쓰 버팔로즈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38세였던 오글리비는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3월의 어느 날, 시범원정경기를 마치고 오랜만에 오사카에 있는 새 아파트에 돌아온 그는, 갑자기 짐을 챙겨서는 아무에게도 한마디 말도 없이 비행기에 올라 고향인 피닉스로 돌아가 버렸다.

평소 진지하고 내성적이며 소로와(순수한 자연생활을 예찬한 미국의 사상가·

수필가) 키에르케고르(덴마크 철학자)의 글을 즐겨 읽던 오글리비는 기자에게 자신은 그 당시 모든 상황에 대해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메이저리그를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바쳐왔고, 메이저리그에 남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야망도 없었습니다. 당시 받던 연봉의 반만 준다고 했어도 밀워키나 아니면 다른 어떤 팀에서라도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브루어즈는 제게 말도 걸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단주들은 지출을 줄이고 있었고, 저한테 줄 연봉 50만 달러면 그 돈으로 어린 선수 10명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떤 제안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월에 버팔로즈가 저에게 접근한 거였죠.

전 정말로 일본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더 이상 깨닫지 못할 상태까지 된 거죠. 어쩌면 모든 것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었는지.

그런 상태가 점점 쌓여가다가 결국은 그날 폭발해 버린 겁니다.

걱정에 싸인 긴테츠 직원이 애리조나로 날아가서야 결국 오글리비를 다시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정확한 내막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오글리비의 연봉을 오십만 달러나 올려주고서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다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호너의 입국을 마치 예수의 재림과 같이 받아들이면서 오글리비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가 7개월 동안이나 훈련을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일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 기자들은 그의 몸무게나 고질적인 부상문제, 음주습관 등을 들먹이며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다. 한 TV의 아침 토크쇼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호너를 맹비난했다. “본인 말로는 키가 182cm에다가 몸무게가 97kg이라고 하더군요. 흠,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무거워 보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마치 프로레슬링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게다가 술도 잘 마시게 생겼습니다. 그동안 부상을 많이 당해서 팔꿈치도 좋지 않고 팔목도 두 번이나 부러졌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군

요. 그는 왜 일본에 온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그를 원하는 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츠조노 구단주는 그러한 비난을 무시하면서, 이미 시즌이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호너가 50개의 홈런을 쳐낼 것을 기대한다며 호너가 그러한 자기의 임무를 잊지 않도록 등번호까지 50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도록 했다. 스왈로즈의 홈구장인 도쿄 친구스타디움은 메이지 신사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에는 나무숲이 있어 사람들이 넘쳐나고 공해에 찌든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때 오징어 튀김 냄새로 가득했던, 전쟁 전에 지어져서 다 썩어가던 이 구시대의 유물이었던 야구장은 1982년에야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좌석들이 설치되고 인조잔디가 깔렸으며, ‘끈질긴 야구’와 같이 팀을 격려하는 여러 문구들이 반짝이는 백만 불짜리 초대형 전광판이 세워졌다.

하지만 구장의 크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좌우측 펜스까지 길이가 91m, 센터까지의 길이가 120m인 친구구장은 일본의 여느 구장들처럼 호너와 같은 홈런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듯했다. 그리하여 5월 6일이 되자, 이 덩치가 좋은 금발 미국인의 첫 게임을 보기위해 4만8천여 명의 관중들이 기대를 품은 채 스탠드를 가득 메웠으며, 그날 저녁 구장에는 활기가 넘쳐났다. 우측 관중석에서는 50대의 안경을 쓴 마사야수 오카다씨가 알록달록한 색이 칠해진 프라이팬과 드럼스틱, 그리고 갖가지 소리를 내는 응원도구들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관중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되자 수천 명의 관중들은 일어서서 힘차게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시작했다. 많은 관중들은 각자 투명한 파스텔 톤의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야쿠르트와 홈런이 나올 경우 일제히 흔들어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 오래지않아 그런 기회가 찾아왔고, 5회에 호너는 우측 응원단석에 홈런을 쏘아 올렸다. 관중들은 만세를 외쳐댔고, 기쁨에 넘친 관중들의 환호성은 온 구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홈런은 그날 스왈로우즈가 한신 타이거즈에게 5-3으로 승리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그는 다음날도 좌측에 2개, 센터에 1개 등 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6-3 승리를 도왔다.

오카다는 호너를 위한 특별 응원구호를 만들어 응원단들이 “고-고 호-나. 레추-고 호-나!”를 따라하도록 했다. 타이거즈의 좌익수 노리요시 사노 선수는 이

틀간 난타당한 투수진을 위해 특별 작전을 고안해내기도 했는데, 스파이크 밑창에 스프링을 달아서 공이 펜스로 넘어가기 전에 뛰어올라 잡아낸다는 것이었다.

첫 주가 끝날 즈음에 호너는 홈런 2개를 추가하며 .533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팀도 5할의 승률을 기록하며 두게임 반차로 1위를 추격하고 있었다. 게다가 구장은 매일 만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본의 테드 윌리엄즈로 불리는 테츠하루 카와카미는 호너가 어떤 위치의 공도 쳐낼 수 있다고 역설했고, 일본의 조 디마지오로 통하는 시게오 나가시마는 호너의 완벽한 타격 폼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통산최다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 좋게 생긴 얼굴에 인정 많은 성격인 준조 세키네 스왈로우즈 감독은 계속해서 “스고이”만을 외쳐댔는데, 이 말은 ‘형편없다’와 ‘훌륭하다’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말이었다.

스왈로우즈 팬들은 한술 더 떠서 너무 좋아서 죽겠다거나 여태까지 이런 외국인을 보지 못했으며 호너가 50 홈런을 기록하고 팀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고들 말했다. 야구장 곳곳에는 ‘미국으로 절대 돌아가지 마세요’라고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있었다.

호너의 움직임은 지켜보기 위해 마치 온 일본열도가 동시에 멈춰선 것 같았다. 일주일 내내 신문의 1면에는 호너의 얼굴이 실렸고, 3개 방송국에서는 다른 경기의 정규 중계방송을 하면서도 중간 중간마다 그의 타석 장면을 보여주었다. 호너에 대한 방송은 이제 일본의 저녁뉴스의 단골 인기프로가 되었고, 한 TV 방송국은 일요일 황금시간대에 한 시간짜리 호너 특별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그가 채 10게임도 뛰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게다가 친구구장 관중석 밑에 있는 매점에서의 국수 판매가 급감한 반면, 바쁘게 돌아가는 도쿄 증시에서 야쿠르트 주식은 상승했다. 자리를 뜨는 관중들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호너의 플레이를 하나라도 놓치려 하지 않았다.

신문들은 호너에게 아카오니란 별명을 붙여 주었다. 아카오니는 빨간 악마란 뜻으로 불교 일화에 등장하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능력을 소유한 붉은 피부색의, 뿔이 달린 신화적인 창조물로서, 이는 대단한 찬사였다. 한 주가 지나자 상대방 투수들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호너의 방망이 열기도 조금은 식었지만, 호너 코카(효과)는 일본 야구사전의 새로운 단어로 자리 잡으면서 스왈로우즈 팀의 분

위기도 강력한 자신감으로 넘쳐났다. 한 선수는 호나상만 라인업에 있으면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력한 일간지, 니칸 스포츠에 실린 한 기사는 이제 호너를 세인트, 즉 성인(聖人)의 반열에 올려놓게 된다.

호너가 다른 외국인들처럼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더 이상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는 오글리비같은 선수와는 다르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팀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인처럼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본음식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젓가락 사용하는 법을 익혔다.

며칠 전 아틀란타 컨스티튜션 매체의 특파원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호너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잔을 채운 후 자기 잔에 따를 것 등을 말하면서 미국인 기자에게 일본의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했다.

게임 전 훈련 시에도 그는 와타나베, 히로사와, 수기우라와 같은 팀 동료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두드려주기도 한다.

대화중 아틀란타 기자가 “당신네 아틀란타”라고 하자, 호너는 재빨리 “전 야쿠르트 스왈로즈 선수입니다”라며 기자의 말을 수정해주기도 했다. 그는 이제 자기가 메이저리그 선수의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의 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곧 그는 TV 광고에까지 출연하게 되면서 거의 오십만 달러나 되는 수입도 벌어들이게 되었다. 멜빵바지를 입고 밀짚모자를 쓴 시골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한 호너가 젊은 인기 여배우와 함께 선토리맥주를 마시고는 “하나 더 주세요”를 외치면서 빈 맥주 캔을 손으로 찌그러뜨리는 광고였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그의 실물 사이즈 광고판이 전국의 주류 판매점을 뒤덮었다.

처음에 호너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흥분하고 들떠있었다. 그는 현란한 네온 불빛에 둘러싸인 녹슨기 거리에 있는 도쿄 하드 락 카페에서 동료 미국인 선수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일본은 훌륭한 곳”이라며, 그가 얼마나 일본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말하곤 했다.

카프 팀에서 외야수로 뛰고 있던 미국인 릭 란세로티가 그 말에 대해 재치 있는 농담으로 응한다. “물론 너무나 좋겠지. 넌 셀 수도 없을 만큼 돈을 벌잖아.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면 일본인들이 엉덩이라도 닦아주겠지. 내가 생각해도 넌 대단해. 그런데, 좀 더 지내보면 힘든 상황들이 찾아올 거야. 그 사람들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할 때까지 있어보라고.” 란수는, 일본인들은 란스를 그렇게 부른다, 4월에 8개의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는 타석에서 직구를 전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베테랑 외국인 선수들은 즐거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의 모든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에서의 첫 해에 적응기간을 거쳐야 했으며, 호너도 그들과 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실 호너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마치 도시락에 짝 찬 초밥들처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일본에서는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다. 이제 스타가 된 호너는 그 고통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다.

열성적인 일본의 매스컴들은 마치 적외선 추적 미사일처럼 그를 따라 다녔다. 도쿄에 있는 그의 아파트 밖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아침마다 진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다. 야구장에 갈 때도 택시를 타고 따라갔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도 기자들은 이미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원정을 떠날 때에도 기자들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도쿄역에서는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기차에 함께 올라탄 기자들은 호너가 앉아있는 자리 옆의 통로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일본의 경치를 감상하는” 호너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그가 묵는 호텔마다 로비에는 기자들로 득실거렸다.

그들은 마치 걸리버를 감시하는 소인국 사람들과도 같았다. 사세보에서 호너가 영화 플래툰을 보기위해 극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몇몇 기자들이 그를 따라안으로 들어가서는 영화가 끝난 후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사포로에서는 머리를 깎은 적이 있었는데, 스포츠 일간지에 호너의 금발머리가 몇 센티 잘려나갔는지, 머리를 다 깎은 후 기분은 어땠는지, 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아무리 자질구레한 정보라도 대중들은 그에 대해 끝없이 알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격차, 이란 게이트, 서울 올림픽, 옌 상승과 달러

하락, 심지어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새끼 판다곰 등에 대해서도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를 원했다.

끝이 없어 보였다. 호너에게 있어, 한없이 몰려드는 기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자처럼 생긴 아파트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가 나오는 영화를 보거나 구장에 있는 트레이너실에 있는 것뿐이었다.

결국 그는 게임 전에는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자가 ‘컨디션이 어때요?’와 같은 일반적인 일본 스타일의 질문을 던져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배고픈 독수리 떼처럼 모인 기자들을 뒤로하고 배팅 케이지에서 서서 못 들은 척 운동장을 바라보기만 할뿐이었다.

요코하마에서 다이요 웨일즈와의 경기가 끝난 어느 날 저녁, 미국인 동료인 레온 리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구장의 어두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너를 본 한 친구는 자동차 문은 모두 잠긴 채 창문도 닫혀져 있었으며 호너는 의자 깊숙이 늘어지듯 앉아있었다고 말하면서, 호너가 모든 면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혼자서 과감히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고 전했다.

오래지 않아 랜세로티의 예상도 들어맞기 시작했다. 센트럴리그의 투수들이 빨간 악마에게 더 이상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않았고, 호너는 더 이상 홈런을 쳐내지 못했다. 홈런을 평평 쳐냈던 그 다음 달에는 겨우 3개의 홈런을 쳤고, 타율은 3할로 가라앉았다. 상대방 투수들은 스트라이크존 외곽으로 변화구만을 던져냈다. 여기에 느린 커브, 저기에 포크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슈트볼 등을 던져대는 바람에 호너는 1루로 걸어가거나 화가 나서 나쁜 공에 스윙을 해버릴 수밖에 없었다. 호너는 공을 치려면 배를 짓는 노가 필요할 지경이라며 불평을 했다.

호너에게서 짜증과 초조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스왈로우즈가 17:5로 뒤져있던 8회에 호너가 타석에 들어섰던 게임이 있었다. 투아웃에 주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상대방 투수는 그를 걸렀다. 이닝이 끝나자 벤치로 돌아온 호너는 화가 나서 방망이를 내리쳤고 동료들은 모두 놀라서 흩어져버렸다.

대부분의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있어 게임이란 일종의 도전이었다. “네가 자신있는 공을 던져봐! 내가 칠 수 있는지 없는지 해보자고!” 이것이 바로 빅리그 야구인 것이다. 하지만 호너는 일본 야구가 그와는 다르다

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본에서는 자신감 있는 작전이나 전술보다는 조심스러운 스타일의 야구를 했으며, 경기 초반에도 타자를 걸러 보내고 희생번트를 대기도 했다.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마치 전체 일본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듯했다. 볼카운트는 2-3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고, 삼구삼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본 야구는 서로의 불쾌한 대립이나 난처한 실수를 예방하도록 만들어졌다. 아무도 자기가 서투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기 실투로 홈런을, 특히 외국인선수에게 맞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그들의 체격과도 역시 닮아 있었다. 일본 선수들의 평균 체격은 178cm 정도의 키에 79kg 정도의 몸무게였으므로, 외국인 선수들과 상대할 경우에는 작전을 잘 세워야 했다.

자이언츠의 스타였던 스구로 에가와는 덩치가 좋고 93마일(약150킬로)의 직구를 뿌려대는 투수로서 호너와 정면승부를 벌여 삼진을 연속으로 세 번이나 잡아 내기도 했지만, 이런 선수들은 매우 드물었다.

게다가 모든 팬들이 호너가 처한 곤경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의 곰 같은 체격이 마치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과거의 외국인선수들과 같은 불쾌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다. 어느 유명한 성인 만화 잡지의 표지에는 야쿠르트 스왈로우즈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하마가 한 마리 그려진 적이 있었다. 홈 플레이트에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하마의 모자 밑으로는 노란 머리가 빠져나와 있었으며 상의에는 유니폼 번호 50번이 선명했다.

미국에서도 뛰어난 선구안으로 유명했던 호너에게는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도 점점 쌓여갔다. 화창한 어느 오후, 혼슈의 북쪽에 있는 모리오카에서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호너는 그의 정강이쪽으로 떨어지는 낮은 커브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심판은 큰 소리로 스트라이크를 외쳤다. 호너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심판을 바라보았고, TV 카메라는 그의 이러한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한동안이나 보여주었다. 바깥쪽으로 빠지는 다음 투구가 스트라이크가 되면서 그는 화가 치

밀었다. TV 카메라로는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다시 한 번 심판을 보면서 뭐라 중얼거리고는 벤치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다음날 신문에는 육설을 하지 않았다는 호너의 해명기사와 더불어, 심판들이 이 새로 온 외국인 선수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기사 또한 실렸다. 또한 호너가 계속 불평을 했더라면, 즉시 그를 퇴장시켰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어느 TV 아나운서가, 호너도 결국은 보통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시청자들에게 떠들어댄 지 얼마 안 된 6월말에 호너는 란세로티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과 다시 만났다. 그는 그때까지 29게임에서 11 홈런과 25 삼진, 21 사사구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 여기를 떠나야겠어,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웃어댔고, 란세로티는 ‘일본에 온 걸 환영해, 이제야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였구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너는, 다음해에 일본어로 출판된 그의 자서전인 ‘알았다! 지구 건너편의 또 다른 야구 (Eureka! Different Baseball across the globe)’에서 그가 일본을 떠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생각해보았다고 고백하면서, “레온 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것이며, 아마 팀 동료와 함께 저녁 먹기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리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구단에 있다가 일본으로 온 다부진 체격의 1루수로서, 일본에서 10년간의 선수생활동안 .308 타율과 246 홈런을 기록했다. 어떤 미국인 선수는, 일본야구에서 그렇게 오래 활동한 리는 명예 상이기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붙임성 있으면서도 빈틈없는 성격의 리는 호너의 가이드 역할과 더불어 기사, 시간제 통역사의 역할까지 해주었다. 게임이 끝나면, 호너와 리는 하드 락 카페나 토니 로마스, 니콜라스 피자 하우스, 매기스 리벤지, 혹은 켈스같은 미국 스타일의 장소에 가서 한잔씩 하곤 했다.

호너는 일본에서 최근에 겪었던 부당함에 대해 토로를 했고, 리는 호너의 불만들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며 인생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었다.

일본인들은 내가 여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가이진에게 홈런을 맞는다는 것은 일본 투수들에게 있어 크게 체면을 구기는 일이거든. 심판들도, 외국인들은 체격이 더 좋으니까 일본 선수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합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한번은 심판이 나한테 다른 일본 선수들보다 내 팔이 더 기니까 스트라이크 존도 더 넓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믿기 힘든 얘기겠지만 말이야. 또 어떤 심판은 스트라이크 존이 홈플레이트가 아니라 내 몸에서 일정 거리로 항상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내가 타석 어디에 서있던, 홈 플레이트에 붙어있던, 멀리 떨어져 있던 상관없이 없단 얘기지. 말하자면, 내가 가는데 마다 스트라이크 존이 따라다니던 말씀이야.

심판한테 돌아서서 괜한 소리하거나 헬멧을 차거나 해서 내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마. 네가 한번 불평할 때마다 심판들은 그만큼 너를 더 조여들어올 테니까. 네 스스로가 적응해야만 되는 거야. 투 스트라이크 먹기 전에 안타를 뽑아내고, 안 좋은 공을 치는 법도 배워야 해.

리로부터 융통성 있는 치료와 강의를 듣고 나면 호너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지만, 그것도 하루를 넘기진 못했다. 시즌이 종료된 후, 어떤 미국인 선수는, 매일 밤 호너의 불평을 들어줘야 했던 리에게 두 번째 명예 상이 기장을 쥐야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에 임시로 와있던 호너에게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아직도 여러 면에서 봉건주의를 연상시키는 일본사회였다. 구단주들은 마치 제후들과 같았고, 야쿠르트와 마츠노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츠노조 구단주의 쇼군 정치 하에서는 엄격한 행동규칙들이 있었다. 선수들은 외제차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리는 다이요 웨일즈에서 야쿠르트로 올 때 벤츠를 팔고 도요타를 사야만 했다. 수영을 기르는 것도 금지되었고, 한 개인에 대한 특별대우도 금지되었으며, 계약서로 인한 논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었다. 1985년에 선수노조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스왈로우즈 선수들도 가입했으나, 구단주가 탐탁찮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집단으로 탈퇴하고 말았다.

하지만, 마츠노조도 호너에게만은 예외를 두고자 했다. 원정 시에도, 다른 선

수들은 종종 일반 모텔식이나 그리 비싸지 않은 숙소에 짐을 푸는 경우가 많았지만, 호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서양식 호텔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 훈련과 관련해서도 호너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통은 일본 선수들과 같이 행동을 했던 리도, 호너의 말벗을 할 수 있도록 같은 특별대우를 받았다.

스왈로우즈의 세키네 감독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마도 갈등을 일으켜 시즌 중반에 퇴임해야했던 두 명의 감독처럼 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호너의 동료들이 게임 전에 두 시간 반이나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열심히 하는 동안 빨간 악마 자신은 레온과 함께 외야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트레이너 실에 있는 마사지용 테이블위에서 낮잠을 즐길 수 있었다.

호너는 기자들에게 이러한 그의 행동들이 그에게는 일상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아틀란타에서는 날씨가 너무 더울 경우 게임 전에는 전혀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스윙 연습도 전혀 없고, 그라운드 볼 연습도 없으며, 달리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냥 야구장에 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게임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것이 실제 게임을 위해 에너지를 비축해 놓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경악했다. 그들에게 있어 게임 전 훈련이란 실제 게임만큼 중요한 야구의 한 부분이며, 어떤 이들은 게임 전 연습이 실제 게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매일 매일의 고된 훈련은 팬들과 기자들, 그리고 상대팀에게 그들이 파이팅 정신으로 무장되었으며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더 열심히 훈련할수록 더 좋은 선수가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완벽주의자였으며, 끊임없는 훈련과 불굴의 의지를 갖춘 자만이 부상과 고통을 극복하고 전쟁터에서 자기보다 강력한 적을 무찌를 수 있으며 타격왕이나 어떤 타이틀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가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믿을 만큼 ‘노력한다’는 말을 강조했으며, 결과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호너가 게임 전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공하길 바라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었으며, 스포츠와 인생

에 관한 일본인들의 철학관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도쿄 신문의 한 기자는 “단체의 조화와 부단한 훈련을 중시하는 우리의 야구 전통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호너와 같은 미국인들이 그러한 점들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게임을 점차 잃고 말 것이며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다”라며 한탄했다.

야구에 대해 자유 방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던 호너는 이제 비틀거리기 시작했으며, 일본 미디어는 그에게 메스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키네 감독과 코치들이 호너를 엑스트라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부추기고 있다는 기사가 모든 언론에 실렸다.

호너를 아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를 인간성이 좋은 사람으로,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며 그 전해에 죽은 동생 스캇으로 인해 매우 마음고생이 심했던 가정적인 사람이라 표현했다. 훌륭한 타자이지만 보통 실력의 야수로서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매우 많았던 선수,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호너였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들이 또 한명의 어글리 미국인을 데려온 것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유월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한 달간 이리저리 뿌려대는 비와 급격한 온도차이로 인해 심한 감기에 걸린 호너는 몇 게임을 뛰지 못했다.

한번은 고열로 인해 게임 중에 근처에 있던 게이오 병원에 가야만 했었는데, 사진기자들이 떼 지어 그를 따라갔다. 다음날 아침 스포츠 데일리에는 ‘호너, 직무를 유기하다!’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에 실렸다.

호너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출장하지 못했으며, 이를 두고 한 기자는 ‘호너가 힘든 건 맞는데, 일본 자체를 힘들어 하는 것 같군요’라며 비꼬았다.

7월 11일이 될 때까지 호너는 충분한 게임을 뛰면서 16개의 홈런과 .322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윙을 하다 등을 빼끗하면서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또 속은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팀 동료들은 그를 센세이, 즉 선생님이라 불렀다. 호너의 타격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들을 동료들에게 기꺼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대한 존경을 담은 호칭이었다.

선수들은 세키네 감독에게 ‘센세이 오늘 게임출장 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세키네 감독은 고개를 가웃하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두고 봐

야지'라고 답하곤 했다.

하지만 호너가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가도록 구장에 와서 마사지만 받으며 게임을 할 만큼 몸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면서, “센세이가 준비되는 걸 기다리다간 시즌이 다 끝나버리겠다”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8월초, 호너는 복귀를 시도했으나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다시 등에 통증을 느끼고 게임 중간에 교체되어야 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예전에 유명한 유격수였으며 현재 해설가인 유키노부 쿠로에가 “사람들은 그를 보기위해 돈을 내고 경기에 온다. 그러므로 그는 게임을 땔 의무가 있다. 그가 한 행동은 팬을 무시한 처사”라며 호너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호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과 일본이 무역 갈등을 겪는 가운데 발생했다. 미국은 일본의 시장이 폐쇄적이라며 불평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미국 물건을 살만한 게 없다며 맞받아쳤다.

게임에 출장하지 않던 호너는 8월 19일 동경에서 녹화된 맥닐-레러 쇼를 위해 인터뷰를 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특파원인 폴 솔맨이 물었다, “일본 사람들은 당신이 전형적인 미제 물건과 같다고 하더군요. 강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물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너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는 번쩍거리는 스왈로우즈 클럽 하우스에 평상시 복장에 방한복을 입고 앉아서 심문하듯 질문하는 솔맨을 바라보았다. 시계는 거의 여섯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밖에서는 숨 막힐 듯한 더위 속에 사만오천명의 관중들이 호너가 출장하는 게임을 기대하며 안달이 나있었다.

호너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애틀랜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야구선수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군요. 심지어 스타도 병에 걸린단 말입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끝나버렸고, 솔맨은 택시에 올라 어둠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호너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 일본 카메라맨은 “이렇게 되면 야쿠르트 주식을 팔수밖에 없겠는데,”라며 중얼거렸다.

어쨌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등 부상도 완쾌되고 게임에 전격적으로 복귀한 호너는 또다시 타석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레온이 말해준대로 호너는 심판들의 괴상한 스트라이크존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였다. 복귀 후 첫

7게임 만에 6개의 홈런을 쳐내고 이후 34게임에서 15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결국은 303타수에서 홈런 31개와 타율 .327로 시즌을 마감했다. 또한 90경기에서 사사구 51개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전 경기를 출장했을 때 낼 수 있는 기록과 맞먹는 것이다. 만약 호너가 130게임을 다 소화해냈다면 51개의 홈런을 쳤으리란 계산이 나온다. (최다홈런은 39개를 기록한 란세리티에게 돌아갔다. 물론 그에게 광고 섭외는 들어오지 않았다. 퍼시픽리그에서는 오글리비가 3할의 타율과 30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야쿠르트는 선두인 자이언츠에 19게임 반을 뒤진 상태로 리그 4위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거의 꼴찌에 머물러있던 예전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었다. 또한 게임당 3만4천명의 관중을 끌어 모으며 역대 팀 관중 최다기록을 세웠다. 일인당 약 12달러의 입장료를 계산해보면 호너가 얼마나 큰 값어치가 있었는지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시즌이 끝나자 스왈로우즈는 호너에게 3년간 1천만 달러로 알려진 구미가 당길만한 계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호너의 답이었다.



호너는 일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곳은 이상하고 미묘한 곳이었다. 구단주가 자기는 자이언츠의 팬이라고 말했던 순간부터 들기 시작한 생각이었다. 매일의 일상이 그의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일 년을 그 곳에서 보낼 수 있을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다른 미국선수들도 거의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 매일 게임 전 준비미팅, 게임 중에 갑자기 선수들이 덕아웃 앞에 있는 감독 주위에 우르르 몰려들어 열리는 즉석 작전미팅, 저녁에 그날의 실수를 되짚어보는 게임 후 미팅 등, 일본에서는 설 새 없이 미팅이 열렸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미팅은 가끔 있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선수들이 끊임없이 지시를 받아야만 했다. 팀이 게임에서 진날은 어떻게든 실수를 찾아내서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야 했다. 게임에서 이긴 날에도 그날 게임에서 발생했던 실수에 대한 지적이 뒤따라야만 했다.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었다.

일본 야구는 아주 세밀한 기계와 같아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기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코치들은 믿고 있었다. 기계는 끊임없는 조율이 필요하므로, 담당 코치들은 한시도 기계를 그대로 놓아둘 수 없었다. 항상 무언가 잘못된 점을 찾아 해매는 그들은 마치 신경쇠약증 환자들 같았다. 호너의 타격 폼을 관찰했던 자이언츠의 타격코치는 고쳐야 할 결점 10가지를 기록해 보여주었다.

호너를 비롯한 많은 미국선수들은 일본의 야구 시스템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근고(勤苦)의 정신으로 질적인 향상을 이루었지만, 결국엔 직장에서나 야구장에서나 너무 지나친 면이 없지 않았다.

항상 뒤따르는 구속과 도를 지나치는 행동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일본야구에서는 즐거움을 찾기 힘들었다. 선수들이나 코치들의 행동은 마치 도요타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도 같아서, 그들은 하루에 열 시간을 야구장에서 보냈다. 예전에 어떤 선수가 말한바와 같이, ‘노동의 야구(work ball)’라는 표현이 일본야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라고 호너는 생각했다. 미국선수들은 야구를 즐겼으며(play), 일본선수들은 야구를 위해 일을 했다(work).

그들에게는 여유로움이나 한가함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늘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규율을 따라야 했으며 이성적이면서 너무나도 긴장한 상태였다. 적어도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랬다. 그들에게는 평상시에도 군대의 엄격함이 배어있었다. 일반 직장인들뿐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약을 먹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야구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말이 분위기, 좋은 팀 분위기였다. 일본야구에서 상대방에게 선취점을 내준다는 것은 팀 분위기에 심리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는 거의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4타석 무안타는 깊은 슬럼프에 빠져든 것을 의미하며, 두 게임을 내리 지면 팀은 거의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중압감이란 단어를 마치 몹쓸 질병처럼 생각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중압감, 한 점차 리드에 대한 중압감을 가졌으며,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승을 달리고 있는 때에도 중압감을 느꼈다. 이러한 느낌을 타이웬이라 불렀는데, 이는 ‘두려운, 심각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마치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존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더 이상 내일이 오

지 않을 것처럼 게임을 운영했는데, 기회라고 생각할 때마다 선발투수를 구원투수로 쓰기도하고, 게임초반에 대타를 사용했으며 희생번트를 해댔다.

레온과 형제이면서 롯데 오리온즈에서 뛰었던 레론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여태껏 보았던 것 중 가장 이상한 작전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난카이 호크스와 경기 진행되고 있었는데, 8회말 1점차 상황이었어요. 난 3루에 있었죠. 만루에다가 볼카운트는 꼭 차있었어요. 더블 플레이 상황을 우려한 감독은 스쿼즈 사인을 내렸죠. 하지만 난카이 감독이 사인을 간파하고는 피치아웃을 한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 투수는 공을 빼고, 우리 타자는 어떻게든 번트를 대려고 하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타자는 번트에 실패하고, 저는 3루에서 뛰다가 포수한테 아웃을 당했어요. 더블 플레이로 이닝이 끝나버린 거죠. 제 형이랑 이 작전에 대해 몇 시간 동안이나 얘기해 보았지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과연 그 작전이 정말 대단한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여태 본 중에 가장 멍청한 작전이었는지 말이에요.

호너 자신도 긴장을 잘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일본인들, 특히 코치들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그는 본 적이 없었다. 좋게 말해서 그들은 노이로제 환자들이었다.¹⁾

호너에게 있어 일본 시스템의 경직성은 때때로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게임 전 훈련 없이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비가 오다가도 게임 시작 전까지 날씨가 개일 수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게임 전 연습을 못하면 모두들 집으로 그냥 돌아간다.

“일본에 와서 비가 점점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비가 하루 종일 내렸어도 게임은 합니다, 훈련과 상관없이요. 필요하다면 밤 아홉시까지라도 기다리죠. 그러다 비가 그치면 다시 게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에서는 무승부가 이상적인 결과라고 말했는데, 이는 서로 상처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퍼시픽리그의 신스케 호리도 “무승부에서는 아무도 손해 볼 필요가 없으므로 일본인의 특성에 잘 어울린다.”고 고백했다.

한 시즌 만에 호너는 일본야구가 자신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왔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임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라도 아마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결국 호너는 야쿠르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제시하든 간에 일본에서 야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호너는 진짜 야구를 할 수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길 원했다. 미국에서는 그의 아이들이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신도 1,000안타, 1,000타점, 그리고 250 아니 500홈런을 기록할 수도 있으며, 팬들은 자신의 그런 기록들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미국에서 그의 에이전트는 마침 잭 클락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호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와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카디널즈는 야쿠르트가 제시하는 만큼의 액수를 호너에게 줄 순 없었다.

호너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다.

스포츠뉴스紙에는 호너가 카디널즈 단장인 델 맥스빌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면서 자신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벗어날 수 있도록 연봉을 많이 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호너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가 1년간 95만 달러의 연봉과 게임출장에 따른 5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자, 어처구니없어하는 마츠조노 구단주를 뒤로한 채 호너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그리고 붉은 악마의 전설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역사

야구에는 단순한 게임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야구는 내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야구를 통해 일본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을 배우게 된다.

수이슈 토비타 (1886-1965)

일본의 원조 '야구의 신'

이 나라의 국기는 잘못 그려졌다. 중앙에 떠오르는 태양 대신 야구공을 그려 넣었어야 했다.

영국 관광객

일본의 야구역사는 메이지정권(1867-1912)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도쿄에 있는 카이세이 학교에서 역사와 영어를 가르치던 호레이스 윌슨이라는 젊은 미국인이 학생들에게 공과 방망이를 주고는 미국의 새로운 국기인 야구의 기본을 가르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도쿄의 카이타쿠 대학에 있던 또 다른 미국인인 알버트 베이즈는 1873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식경기를 치러냈으며,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할 당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이었던 철도 공학자 히로시 히라오카는 1878년에 일본 최초로 심바시 어스레틱 클럽 어스레틱스(Shimbashi Athletic Club Athletics)라는 야구팀을 결성했다. 그 당시의 선수들은 철도 기술자, 역무원, 그리고 외국 기술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임시변통으로 글러브를 만들어 사용했고 계다를 신은 채 베이스를 뛰어다녔다.

메이지 개혁 전에는 사실상 서구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4세기 신토 의례에서 발전된 스모 경기가 있었고, 군사 훈련을 위한 승마, 수영, 검도 등이 있었지만, 즐기기 위한 스포츠에 대한 개념은 생소한 것이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는 스포츠를 뜻하는 고유 단어가 없다. 정확하게 번역할만한 단어를 찾지 못해 결국은 수포추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거의 삼백년간의 중세봉건 쇠국주의를 끝내고 세계를 향한 문을 개방

하면서부터 일본은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서구 문명을 수입했다.

일본의 근대국가로의 전환은 놀라웠다. 막부의 장군이었던 쇼군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만해도, 그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복장에 상투를 튼 머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메이지 천황은 조끼에 양복을 입고 예장용(禮裝用) 모자를 쓰고 있었다.

이렇듯 서양의 스포츠는 열풍을 일으켰으며, 야구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인들은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가 일대일로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스모나 다른 무술에서 느꼈던 비슷한 심리상태를 느끼게 되었다. 바로 찰나의 순간, 그리고 정신과 강한 신체의 특별한 조화와 같은 점들이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교육부는 야구가 일본 정신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베이스볼, 혹은 일본말로 야구는 상류층의 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곧 도쿄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심지어 영국인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야 했다. 실제로, 도쿄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영국인 윌리엄 스트레인은 1978년에 야구 규칙을 기술한 아웃도어 게임(Outdoor Game)이라는 제목의 책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다.

청렴함과 자기수양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수단인 검도와 마찬가지로, 야구를 가르치던 일본인들은 처음부터 야구를 정신적인 수양의 도구로 여겼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이나 극기, 충성심과 같은 무술 정신을 야구에 적용시켰다. (일부 학교에서는 타자가, 투수가 던진 공을 그냥 맞아서 1루에 진출하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기도 했다.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러한 무도정신이 가장 심했던 곳은 일본의 최고 일류 학교였던 동경의 제일고등학교인 이치코였다. 이치코는 명망있는 제국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일본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훈련장이었다.

그 때 이치코의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외부 사회와 떨어져 살았다. 외국 문화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시대에서 일본은 그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순수하게 키워내면서 전통 일본문화를 지켜내고자 했다. 이치코의 야구팀은 선 명

상과 일 년 내내 훈련을 해야 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이치코의 그러한 야구 철학은 라이벌이었던 메이지(명치)학원과는 전혀 반대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메이지는 일본에서 가장 미국화 된 교육기관이었다. 메이지는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대부분의 교수들도 미국인이었다. 당연히 야구 코치들도 미국인들이었으며, 훈련도 비교적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두 학교가 맞붙을 때에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이해관계가 뒤따랐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체계의 시험무대였다. 실제로 이치코와 메이지간의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합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적도 있었다.

1891년에 열렸던 어느 게임에서는 당시 6회까지 메이지가 6:0으로 앞서고 있었으며, 많은 유도부 학생들이 포함된 수천 명의 이치코 응원단은 몹시 실망한 상태였다.

유도부원들은 도복을 입고 앉아서 상대방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외국인이 필드의 이치코 측에 있는 대나무 펜스를 기어오르다가 그라운드로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메이지 대학의 미국인 교수였던 윌리엄 임브리에였다. 게임에 늦게 오는 바람에 닫혀버린 정문과 뒷문 어디로도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는 양키식의 독창성을 발휘해 펜스를 오르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 펜스는 일반 여느 펜스와는 다른 것이었다. 마치 유도나 검도 연습장이 비밀스러운 성스러움을 지닌 것처럼, 이치코 학생들에게 이 펜스 또한 매우 성스러운 것이었다. 연습장은 혼이 담겨있는 곳으로서 바깥세계보다 신성한 곳이므로, 창문으로 기어 올라와 연습장을 출입한다는 것은 안 될 일이었다. 정문에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특별한 존경심을 표해야 하는 곳이었다.

‘영혼의 울타리’라고 불리던 이치코 펜스는 메이지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세계와 이치코가 표방하는 내면적이고 전통적인 세계를 분리시키는 상징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 누구도 기어오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메이지 사람, 특히나 외국인이 이런 펜스를 오르면서 모독했다는 사실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

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고 있던 게임에 이미 화가 나있던 유도부원들은 이에 격노했다. 그들은 임브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공격하기 위해 스탠드에서 뛰어 내려왔다. 임브리가 메이지 측으로 막 들어가는 순간, 그의 얼굴을 향해 누군가가 휘두른 방망이로 인해 눈 밑이 찢어지며 피가 솟구쳐 흘러내렸다.

임브리에는 인정이 많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자기가 관습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는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도 자기 부인에게조차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이렇듯 임브리에는 이 문제를 덮어두고자 했지만 일본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지역의 영자신문들은 이 사건을 일본인들의 외국인 혐오증이나 미개한 방식의 예로 들며 크게 다뤘다. 미대사관은 일본 외교부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여러 가지 조약들을 재협상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페리 제독과 그의 블랙 쉽(the Black Ship)이 1853년 강제로 일본을 개방시키면서 일본과 미국이 맺은 조약들은 일본에 불리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는 새로운 조약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임브리에 사건에 대해 미국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내세우는 타협안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다. 미국이 자국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새로운 조약 협상을 연기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일본 야당이 이를 정치적 빌미로 삼아 여당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려워했다.

일본 외무성 장관은 바로 이 문제를 교육부에 의뢰했고, 교육부는 이치코의 관계자들을 불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치코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메이지 가쿠인에도 학교 대표단을 보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으며, 미국대사관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이치코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교육부 관계자들과 이치코의 학교관계자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임브리에 교수의 집을 방문해 용서를 구했으며, 물론 사람 좋은 임브리에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렇게 방문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서양식 가구 위에 일본 스타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거만한 표정을 짓는 등 드러내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말이 있기도 하다.

임브리에는 48년간을 일본에서 지냈다. 그는 러일전쟁 당시에도 자신이 귀화한 나라, 일본을 위해 용기 있는 발언을 했으며, 후에 일본 정부는 그의 그런 노력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불명예스러운 *이무부리 지켄*, 즉 임브리에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뿐인 것이다.

이치코에게 있어서는 치욕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굴욕적인 억지 사과를 해야 했던 것보다 더욱 분통터지는 일은 ‘미국의’ 메이지 야구팀에게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이치코 야구팀은 운동장으로 돌아와 평소보다 두 배의 노력을 더했다. 이때 선수들이 너무도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들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해서 ‘혈뇨(피오줌)’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훈련 중에는 투수가 홈 플레이트에서 겨우 6미터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포수에게 전력으로 직구를 던지는 것이 있었는데, 훈련이 끝나면 투수는 지쳐서 기지맥진하고 포수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 공으로 손을 얻어맞아도, 슬라이딩 연습을 하다 온몸에 멍이 들어도 이치코의 선수들은 ‘아야!’라는 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도저히 고통을 참지 못하는 선수들은 대신 ‘간지럽다’고 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것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꼭 지녀야 할 ‘정신’을 보여주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이치코의 투수들은 훈련 시 하루에도 수백 개의 공을 던졌고, 너무 많은 커브를 던지는 바람에 종종 팔이 굽어지기도 했다. 투수들은 굽어진 팔을 펴기 위해서 운동장 주변에 있는 벚꽃나무 가지에 매달리곤 했는데, 아마도 간지럽다고 소리치며 매달렸을 것이다.

이런 불굴의 의지로 이치코는 메이지를 비롯한 모든 다른 학교에 승리를 거두고 야구의 인기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업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 되었던 것이다.

1986년의 어느 밝은 오후, 이치코는 미국인들로 구성된 요코하마 컨추리 어스

레틱 클럽 나인 팀(Yokohama Country Athletic Club)과 상대하기 위해 요코하마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야구장에서 일본과 미국이 맞붙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이었는데, 이치코가 29-4의 경이적인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두며 일본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미국 팀의 선수들은 모두 비정규선수들이었다. 선수들은 소매상인, 무역업자, 그리고 선교사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재미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일본인들에게 이들은 야구의 종주국에서 온 팀이었으며, 일본이 바로 그 팀을 이겼다는 사실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들의 이런 위대한 승리는 전국적으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 소식은 나라 전체를 흥분시키며 일본인들에게 거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한 일본 역사가는 ‘이 승리가 일본인들의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외국인들은 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승리는 수세기에 걸친 고립을 떨쳐내고 근대화를 향해 몸부림치는 일본이 선진산업화를 이룬 서방국가에 대해 지니고 있던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승리가 더욱 값졌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인들의 요코하마 클럽 구내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요코하마의 미국인들은 마음이 상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너무 가볍게 봐서 게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다. 미국인들은 재시합을 요청했고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그 시합에서도 그들은 다시 35-9로 패했다. 그들은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해있던 미국 해군의 선원들을 모아 팀을 더욱 강화시켜 이번에는 수천 명의 관중들과 기자단이 모인 이치코의 구장에서 세 번째 경기를 벌였지만 역시 22-6으로 패하고 말았다.

매 시합이 끝날 때마다 차와 케이크가 준비되었고, 패자는 축하를 건넸으며 승자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처음부터 이 게임은 친선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우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치코 팀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치코의 선수들은 더 젊었고, 더 빨랐으며, 더 잘 훈련 받았고, 모든 면에서 한 수 위였던 것이다.²⁾

2) 미국 팀은 일본에 정박 중인 미국 해군함정에서 복무하던 프로야구선수를 팀에 합류시킨 후에 결국 네 번째 게임에서 이치코에 14-2로 승리했다.

제일고등학교는 수차례 게임에서 요코하마 팀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게임에서 완봉승(일본식 표현으로는 스킵크 게임)을 기록했던 코타로 모리야마 투수는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모리야마의 강속구에 맞는다는 것은 천황의 마차 바퀴에 깔리는 것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기도 했다.

이치코의 놀라운 승리 덕분에 일본 전역의 학교들은 야구팀을 창단하기 시작했다. 이치코의 선수들은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으며, 졸업 후에는 그들이 이미 다 깨우쳤다고 생각하는 이 외국 스포츠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전국의 여러 교육기관으로 진출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대학 대학 야구시합은 일본에서 중요한 스포츠였다. 서구를 따라잡기 위한 일본의 노력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던 것이다. 게이오나 와세다, 메이지와 같은 일류대학들은 외국에 가서 시합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시작은 1905년에 와세다가 미국 서부지역을 돌며 스탠포드, USC, 그리고 워싱턴과 같은 학교들과 게임을 치러 7승16패를 기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이 스포츠의 열기에 즐거워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영향력 있는 보수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야구에 반대하는 교육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야구의 해악'이란 제목의 사설을 연속으로 실어댔다. 동경대학의 한 의사는, 야구의 경우 학교의 명예를 빛내기 위한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학생의 인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그의 동료 의사는 한쪽으로만 공을 던지는 동작이 몸의 불균형적인 발달을 초래하며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잡을 때는 뇌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1905년 러일전쟁 승리의 영웅인 마레스케 노기 장군은 선수들이 훈련 후에 서양식 스타일의 술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늘 취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했으며, 교육부의 고등학교부서장은 야구가 일본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도나 유도와 같은 일본의 전통 운동만이 일본인들에게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저명한 교육자로서 훗날 국제연맹 대사가 된 이나조 니토베는 그의 유명한 수필집에서 논쟁적인 어조로 야구를 비난했는데, 야구는 선수들이 상대방을 속이

고 베이스를 훔치는 ‘소매치기꾼들의 운동’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야구는 독일이나 영국에는 적당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나 어울리는 운동이라 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코가 뭉개지고 머리가 깨져도 공을 향해 돌진하는 영국의 국기인 럭비와 같은 운동이 진정한 스포츠이며, 미국인들에게는 이렇듯 용감한 게임을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여러 비난 중에서도 가장 감정 섞인 비판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매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한 기자의 말이었던 듯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야구는 살아남았고, 이는 요미우리신문과 같은 유력 경쟁지들의 도움도 일부 작용했다. 그 신문은 논설위원들은 교육 정신을 가르치는데 있어 야구의 가치를 강하게 역설했다. 게이오대학 설립자인 유키치 후카자와는 ‘스포츠도 교육’이라며, 야구를 하면서 해외 경험을 하는 선수들은 다른 문화를 배울 기회가 많음도 시사했다.

또한 야구는 일본인들에게 단체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의 가치를 가르쳐주므로 좋은 운동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스포츠라고 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또 일본 산업계나 정치권의 많은 유명인들이 어려서 야구를 했으며, 이들에게 건강이나 인성, 경력 등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러일전쟁을 마무리한 포츠머스조약을 협상했던 주타로 코무라 외상, 오래된 일본 사무라이의 무술인 주지추의 지식을 유도와 접목시킨 지고로 카노 등이 좋은 예가 되었는데, 특히 카노는 어려서부터 야구에 완전히 미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던 그가 야구를 그만둔 건 유도를 계속하려면 유도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런 스포츠 정신에 관한 논란을 다룬 기사들 덕에 신문구독이 늘어났고, 그런 논란이 끝날 때쯤엔 항상 야구의 인기가 예전보다 더 높아져 있었다. 실제로 아사이신문도 야구에 대한 논조를 급선회 하면서 매년 하계전국고교야구대회를 후원하게 되었고, 이 대회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추어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프로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어보였지만, 20세기 일본야구에 정신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사람이 등장한다. 그는 바로 수이슈 토비타이며, 1965년 사망

하기까지 그는 일본야구의 신으로 불려졌다. 토비타는 일본의 코니 맥으로 비교되곤 하는 원조 일본감독이었다.

토비타는 보수지역인 이바라기현에서 1886년에 출생했다. 이바라기현은 메이지유신을 반대하고 도쿠가와 막부를 강력히 지지하던 곳이었다. 마을의 장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을 소중하게 여겼으며 서방세계에 일본의 문을 개방하는 것을 싫어했던 만큼 서양 스포츠에 대해서도 극심한 반대를 하였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너무나 보수적이었기에 어린 수이슈는 야구에 매료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치 서양 스타일의 옷이나 신발, 회중시계처럼 그에게 야구는 정말 매력적인 것이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 몰래 야구를 시작한 그는 와세다대학에서 팀 주장을 맡기도 했다.

2루수였던 토비타는 그리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다. 160센티 정도의 작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였지만 토비타는 영리했고 빨랐으며 이기고자 하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스포츠는 그야말로 현대식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와세다대학의 이소 아베 감독에게 끌렸다.

와세다대학은 1910년 일본에서 열린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과의 경기에서 9대2, 15대4, 20대0이란 치욕적인 점수 차로 내리 무너졌고, 토비타도 무너져 내렸다. 그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선수생활을 접었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서든 시카고대학에게 당한 수모를 갚으리라 결심했다.

그로부터 9년 후 그는 와세다의 감독직을 제의 받았다. 당시 요미우리신문에 재직하면서 받던 급여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설사 가족들이 죽으로 연명해야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감독직 제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비타는 감독 이론에 대한 자신만의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조국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수들은 팀을 사랑해야하며 감독에게 충성과 복종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오직 바른 정신을 소유한 선수만이 다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는 야구를 사무라이 방식의 부시도에 비유하곤 했으며 선(禪)을 스포츠에 융합시키고자 했다.³⁾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훈련의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연마하는데 있으며, 강한 정신은 오직 강한 연습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명사수와 같은 정확한 타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캐치...이런 아름다운 플레이들은 기술이 아닌 올바른 행동의 결과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학생야구는 선불교와 마찬가지로 자기 수양이며 진리를 추구하는 행동이다. 거기에는 단순한 취미 이상의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종종 고통이 수반되며 혹독한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오직 끊임없는 눈물, 땀, 그리고 피로서 수련된 선수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토비타는 훈련을 불교에서 행하는 종교적 고행, 어떤 면에선 금욕주의 생활에 비유했으며, 이치코 선수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강한 훈련을 시켰다. 선수들은 쓰러질 때까지, 토비타 스스로의 표현에 따르면 ‘반쯤 죽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때까지’, 땅볼 잡는 연습을 해야 했고, 곧 그의 훈련은 죽음의 훈련이라 불려졌다.

그는 “감독은 선수들을 아껴야만 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감독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더라도 훈련시간동안만은 선수들을 될 수 있으면 혹독하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야구의 열쇠이다. 훈련시간에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선수는 게임에서 이기기를 바랄 수 없다. 인간은 나아지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만 한다.”는 글을 남겼다.

토비타의 좌우명은 ‘완벽한 야구’였다. 투수는 공을 던질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했고, 타자는 타석에서 항상 일직선 타구를 날려야 했다. 슬로우 커브나 뜨는 타구는 매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또 “게임에 지고도 울지 않는 선수는 신경을 쓰지 않는 선수”라고 말하곤 했다.

토비타의 이런 시스템은 잘 돌아갔다. 와세다는 몇 번의 우승을 거머쥐었고, 1925년에는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36승 0패라는 완벽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

3) 부시도: 사무라이 전사의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종교와 여러 요소들을 합친 무술. 부시도의 법도에는 군사 훈련 외에도 충성, 자아 통제, 수양, 효심, 예의범절, 학습, 사심 떨쳐버리기 등이 있다.

부시도는 일본 윤리성의 전통적인 기본을 반영했다. 부시도와 선은 함께 어우러져 오늘날 일본 무술의 철학을 이루고 있다.

며 시카고대학을 맞이해 3번의 승리와 1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다. (스코어는 1대0, 1대0, 3대3, 1대0 이었다.)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지킨 토비타는 감독직에서 은퇴한 후 아사이신문의 야구 특별기고가로서의 새로운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재능과 통찰력을 겸비한 작가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문학상을 받았고, 1965년에는 문학에서의 업적과 스포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천황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토비타가 감독을 하던 시절에도, 좀 더 편하고 ‘논리적’인 미국식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 대학 감독들도 몇몇 있긴 했지만, 토비타의 방식이 훨씬 성공적이고 극적인 면을 보여주었기에 대부분의 감독들은 토비타의 방식을 따라했다.

전국적으로 순수성을 중요시한 아마추어 야구의 매력이 너무도 컸던 탓에, 프로야구는 1936년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돈을 벌기위해 야구를 한다는 것이 많은 일본인들에게는 다소 천박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말이다.

여전히 일본인들에게 프로야구라는 개념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1908년 봄, 메이저리그 후보 선수들과 퍼시픽리그 선수들이 모여 리치 올 아메리칸스(the Reach All Americans)라는 팀을 만들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프로경기가 열리게 되었다. 미국 팀은 리치 스포팅 굿즈 컴퍼니(Reach Sporting Goods Company)의 협찬을 받았는데, 이 회사는 점점 커져가는 일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 팀은 일본 대학 팀과 가진 17경기를 모두 손쉽게 이겨버렸다.

1910년에는 마이너리그에서 내야수로 뛰었던 아트 웨퍼와 존 맥그로 감독의 뉴욕 자이언츠에서 잠시 투수로 활동했던 토미 톰슨이 겨울동안 게이오대학에서 코치를 맡았다. 그리고 1913년에는 자이언츠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월드 투어의 첫 단계로 일본에서 3경기를 가졌는데, 수천 명의 관중들이 외야에 돛자리를 깔고 양반다리로 앉아 경기를 관람했다. 화이트삭스가 두 차례나 자이언츠를 눌렀으며, 양 팀의 혼합 팀이 게이오대학에게 12대3의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인들은 미국 팀 선수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한다. 명예롭게 행동해야 할 미국인 선수들이 게임 전 훈련 때 볼이나 배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위밍업을 하는데다 타석에 들어서면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것도 안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심을 맡았던 빌 클렘은 아마도 일본인들이 여태껏 봐왔던 심판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심판이었던 같다.

그래도 지지 심포신문은 미국에서 난폭한 독재자로 알려진 존 맥그로 감독을 ‘진정한 신사’라고 표현해 주었다.

1920년에는 PCL 선수들과 파트타임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헌터 올 아메리칸즈(Hunter All-Americans)라는 팀을 만들어 일본에서 몇 게임을 가졌고 전게임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었다. 내야수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던 허브 헌터가 팀을 구성했는데, 그는 1922년에도 두 번째 팀을 이끌고 일본에 왔다.

이번 팀에는 웨이트 호이트, 허브 페녹, 그리고 외야수 스탕겔등의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팀은 일본 시바우라의 미타클럽 출신의 좌완투수인 오노에게 9대3으로 패하면서 일본팀에게 패한 첫 미국 프로팀으로 유명해졌다.⁴⁾

헌터는 훗날 타이 콥을 일본에 데려가 코칭교실을 열었고, 루 게릭, 레프티 그로브, 미키 코크레인, 래빗 마랜빌, 레프티 오돌, 그리고 알 시몬즈등이 포함된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을 만들어 일본 투어에 나서기도 했다. (베이브 루스는 영화 제작에 바빠 참가할 수 없었다.) 이 투어는 신문 발행부수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요미우리신문사가 후원했다.

미국 팀은 일본대학 올스타 팀과 가진 17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열렬한 응원을 보내던 많은 관중들은 미국 빅리그 선수들의 스피드와 파워에 경탄했다.

20대3, 22대4, 혹은 19대1과 같은 큰 점수 차로 게임에 패한 일본 팀은 미국 선수들과 한 구장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에 낭패감을 드러냈다. (일본 측 한 임원은 20점을 미리 주고 게임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루 게릭은 투어가 끝나자, “일본의 야마토 다마시(투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배울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불행히도 내가 본 것은 땅볼을 치고 1루로 천천히 뛰어가는 일본선수들 뿐이었다. 주자가 싱글거리며 내 쪽으로 뛰어올 땐 한 대 쳐주고 싶었다.”고 주최 측에 말하기도 했다.

일본 측에서도 미국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다. 토비타는 미국 선수들이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게임에 ‘성실하게’

4) 오래된 니그로리그의 선수들이 모여 만든 로얄 자이언츠라는 팀이 1927년과 1932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해 23-0-1과 23-1의 성적을 각각 거두었다.

임하지 않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토비타는 타이 콥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지만 다른 미국선수들은 부시도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급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레프티 그로브를 싫어했는데, 레프티는 투수에게 오는 땅볼을 잡은 후 웃으면서 일단 3루에 던졌다가 다시 3루에서 1루 송구로 타자주자를 아슬아슬하게 아웃시키도록 한 적이 있다.

그로브에게는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토비타에게는 심한 모욕이었다. 이 사건으로 토비타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원정경기를 하는 동안에 미국선수들은 또 다른 수준 낮은 행동들을 보여주었다. 항해 중에 래빗 마랜빌은 워싱턴 디시로부터 돌아오던 한 일본 해군장성과 알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키(Icky:시대에 뒤진, 재미없는 사람)란 별명을 지어주었다. 어느 날 이 장성이 갑판 의자에서 잠이 들어있을 때 래빗은 그의 대머리 위에다가 얼굴을 그려 놓았다.

총리의 관저를 방문했을 때는 몇몇 미국선수들은 일본 외무장관(head of state)이 갑자기 방 밖으로 나갈 일이 생기자 화병들과 만년필, 하바나 시가 등을 훔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1934년에 또 다른 야구투어를 주관했는데, 헌터와의 돈 문제로 인해 레프티 오돌이 일을 맡았다. 이번 팀에는 게릭 외에도 베이브 루스, 찰리 게링거, 지미 팍스 등이 포함되었다. 루스는 바로 전에 양키스로부터 방출되는 바람에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오돌을 돕던 일본인 사업가와 열렬한 야구광인 소타로 스즈키가 포스터를 보여주자 가기로 마음을 바꿨다. 야구투어 광고를 위해 일본에서 제작한 이 포스터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베이브 루스 혼자만이 그려져 있었으며, 이를 본 루스는 우쭐해져서 투어에 참가하기로 동의했던 것이다.

루스는 큰 인기를 끌었다. 긴자에 있는 도쿄스타디움에서 임페리얼호텔에 이르는 거리에는 루스가 탄 자동차 행렬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가 출장한 첫 게임이 열린 진구구장은 6만5천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다. 게임이 시작되면서 비어있는 천황의 좌석에 존경을 표하는 인사를 시작으로, 관

중들은 게임 내내 루스 반자이(만세)를 외쳐댔다. 오사카 고시엔구장에는 그를 보기위해 7만5천의 관중이 몰려들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문 밖에 루스의 흉상이 세워졌고, 그 흉상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다.

미국 팀이 일본 아마추어 대표 팀에게 17게임 전승을 거두는 동안 루스는 14개의 홈런을 쳐냈다. 일본 팀에게 있어 단 하나의 희망은 교토 출신의 18살 우완투수 에이지사와무라였다. 영험한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시즈오카의 구장에서 그는 후지산의 정기를 받은 덕인지 선발로 나와 5회까지 미국을 상대로 무안타 행진을 벌이고 있었다. 눈부신 직구와 낙차 큰 커브로 게링거, 루스, 게릭, 그리고 팩스까지 4명의 메이저리그 타자들을 연속으로 삼진 처리하기도 했지만, 7회에 게릭의 홈런으로 1실점하며, 결국 1대0으로 패하고 말았다.

이 당시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프린스턴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일본어를 할 줄 알았으며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위해 고급 스파이 역할을 한 후보포수였던 모 버그는 변장을 하고 빠져나와 높은 곳에서 소형 카메라로 도쿄의 거리를 찍었는데, 나중에 그의 사진들은 미국이 폭격을 가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미국선수들은 호텔 전화가 도청되고 자기들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코니 맥은 일본인들의 미소 뒤에는 뉘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루스의 인기가 너무 높아 양국 간의 문제가 잠시 잊혀 질 정도였다. 루스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7년 후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위협스러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도쿄의 브로드웨이라 할 수 있는 긴자거리 수 킬로미터에 걸쳐 늘어선 사람들은 우리를 마치 영웅처럼 반겨주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우리를 축하해주었고 우리가 즐겁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물론 그중에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그 때 방문 당시를 돌이켜보면 일본의 경우 한 정신 나간 정부가 착한 국민들을 어떻게 전쟁으로 밀어 넣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선수들의 타격은 약했지만, 수준 높은 수비와 몇몇 투수들의 재능은 놀라웠다.

물론 일본은 당시 이미 냉혹한 군국주의의 길로 들어서며 전쟁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미국선수들이 귀국한 후 요미우리신문의 마츠타로 쇼리키 사장이 우익그룹 사람에 의해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했다. 대학야구의 메카인 진구 구장에 미국선수들을 입장시킴으로서 신성한 장소를 더럽혔다는 것이 이들의 비난사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쇼리키는 동요하지 않았다. 루스 팬들의 반응에 격려를 받은 쇼리키는 사와무라 등 톱스타급 선수들과 재빠르게 계약을 맺으며 1934년 12월, 일본 최초의 프로야구팀인 대일본도쿄야구클럽(the Great Japan Tokyo Baseball Club)을 설립했다.

1935년 대일본 팀은 미국 원정길에 올라 PCL과 준 프로 팀 등 다양한 팀들과 102경기를 치루며 93승을 거두었다. 선수들의 등번호가 한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미국인들은 기록하는데 애를 먹었고, 팀 이름도 너무 길어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래서 쇼리키는 뉴욕의 내셔널리그 팀의 이름을 따 도쿄 자이언츠로 팀명을 바꿨다.

이 당시 사와무라의 피칭은 미국인들에게도 인상적이어서, 실제로 어떤 팀은 교활한 방법으로 그와 계약을 맺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일본팀이 밀워키 레드삭스와 경기를 하기 전날 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스카우터가 사와무라를 찾아내서는 조끼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면서 사와무라에게 사인을 요청했다. 사인을 하는 곳 위에 작은 글씨들이 인쇄된 것 등에 의심이 간 사와무라는 이 종이를 영어에 능하고 원정에 함께 따라나선 소타로 스즈키에게 보여주었다. 그 종이가 메이저리그 계약서임을 정확히 알아챈 스즈키는 이를 다시 스카우터에게 돌려주며 그걸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았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동안 활동하는 것에 대해 사와무라도 흥미를 느끼긴 했지만, 그는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하기엔 장애물이 너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잡지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미국을 싫어한다는 것과 미국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난 영어도 못하고, 그곳에 가면 원할 때마다 제대로 밥을 먹기도 힘들 것이다. 게다가 여자들은 너무 거만하다. 미국에서는 주위에 여자가 있으면 신발 끈도 맬 수 없다. 그런 불편한 문화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신 철도와 다른 팀들도 요미우리의 뒤를 이어 프로팀이 되면서 1936년에 이르러 일본프로야구리그가 결성되었다. 리그는 정정당당한 플레이와 민족정신의 함양이라는 고상한 가치를 내걸고 시작되었다. 쇼리키 스스로도 선수들에게 항상 신사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이 아마추어야구에 대한 팬들의 열정과 마음을 프로야구가 이어받을 수 있을 지 의심했다. 사와무라 자신도 아마추어로 남아서 와세다대학에서 뛰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하지만 빗더미에 오른 아버지가 무리한 액수의 담보를 잡히며 자신도 모르게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프로로 전향하기로 동의한 것이었다.

초창기 프로야구의 평균 관중은 5천명 이하에 불과했고, 어떤 야구장은 가격이 가장 싼 부지를 찾다 도쿄만 근처에 지어져 밀물이 운동장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자이언츠는 꾸준히 관중들을 불러 모았고, 새로운 리그 창설로 스타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역시 대부분의 스타 선수들은 자이언츠에서 배출되었다. 예를 들어, 사와무라는 한 시즌 30승의 기록을 달성했고, 러시아에서 출생해서 일본에서 자란 빅토르 스타핀은(그의 부모는 러시아 혁명을 피해 망명함) 통산 300승을 이뤄냈다. 와세다-게이오 대항전에서 운동장에 던져진 사과를 주위 와세다대학 응원단에 던지는 행동으로 폭동의 원인이 되었던 카리스마를 갖춘 게이오대학 출신의 3루수 시게루 미즈하라도 있었고, 수차례 타격왕을 거머쥐며 자신의 일생을 다룬 영화에도 출연했던 테츠하루 가와카미도 있었다.

전쟁기간 동안 여러 긴급한 사항들로 인해 야구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영어식 야구용어 사용이 금지되었고(베스보루는 야큐 혹은 필드 볼로 불려졌다), 볼을 몰래 감춰다가 아웃시키는 것과 같은 미국식 속임수는 일본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행위라는 믿음이 퍼져갔다. 선수들은 ‘전사’ 혹은 ‘용사’라 불리어졌고, 게임 전에는 수류탄 던지기 겨루기와 같은 행사들이 행해졌다. 결국은 건강한 남자들이 적군을 방어하기 위해, 헛수고가 되긴 했지만, 입대하면서 모든 게임은 중단되었다.

전쟁동안 72명의 프로야구선수들이 목숨을 잃었다.사와무라가 타고 있던 함선은 동지나해에서 어뢰에 격침되었고, 나고야 팀에서 24승을 거두었던 신이치 이시마루는 1944년 미군 함대를 향해 가미카제를 감행했다. 마사루 이케이는 이시마루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가슴 찡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았다.

이시마루는 해군 무관에게 마지막 편지를 작성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야구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너무나 즐거웠던 순간도 역시 많았습니다. 전 24살이며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이제 전 야구선수로서의 생을 끝내고자하며 해군장교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저의 운명입니다. 추코(조국과 부모에 대한 충성)란 말로 마지막을 하고자 합니다.”

오전 10시 출격 전에 이시마루는 호세이대학에서 1루수였던 동료 코이치 혼도가 포수역할을 하면서 캐치볼을 했다.

해군 기자였던 소이치 야마오카가 심판을 맡았다.

“열개의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비행기에 오르겠습니다.” 이시마루가 감정에 북받쳐 목이 메는 듯 말했다.

엄숙한 이별을 앞에 두고 야마오카는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기 시작했다.

이시마루는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던진 후 공을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비행장갑을 꼈다.

그리고는 비행기에 올라 엔진 시동을 걸었다. 비행기는 곧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비행기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비행기는 남쪽 하늘로 날아가며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공과 글러브는 나중에 사가에 있는 이시마루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선수들 중 일부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미즈하라는 시베리아의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수용소 관리들에게 야구를 가르쳐주기도 했다. 가와카미는 쿠마모토에 있는 보병연대에서 3년간 복무했다. 법적으로 외국인이었던 스타핀은 경찰 감시 하에 도쿄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몰던 차가 전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1956년 사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야구장들은 보리밭으로 사용되었고, 특별식 밀의 공간은 송환된 군인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일본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연합군사령부 고위 장교는 야구가 일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감지하고 경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평화롭던 시절의 스포츠팬들은 진짜 야구선수들이 게임에 나올 것을 요구할 정도로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때 새로이 나타난 영웅들 중 한명이 히로시 오시타였는데, 그는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외야수로서 대학에서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떠돌고 다니는 친구였다.

코카콜라와 제스로 대표되는 미국문화가 일본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민주주의가 소개되면서 선수들이 투표로 감독을 선출하는 팀이 늘어나는 보기 드문 광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들은 마이너리그의 샌프란시스코 실즈팀을 이끌고 일본을 다시 방문했고, 일본인들의 야구에 대한 열정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1950년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양대 리그 체제와 각 리그의 정규시즌 우승팀이 맞붙는 저팬시리즈가 생겨났다. 거의 모든 팀들은 대기업이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다이요 웨일즈는 다이요 수산회사가 순전히 고래고기나 다른 제품들을 광고하기 위해 운영했던 구단이다.

아마추어 야구도 인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게이오-와세다전은 예전과 같이 5만 명 이상의 열광적인 관중을 동원했고, 하계고교야구대회가 열리는 구장은 관중들로 만원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프로야구인데, 1955년경부터 급속

히 확산된 텔레비전이 큰 역할을 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례가 없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는 9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도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일본 전체의 영원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이언츠의 1루수 왕정치는 22년(1958-80)의 선수생활을 통해 868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베이브 루스와 헵크 아론을 앞섰으며, 팀 동료로서 화려하고 열정이 넘치는 플레이로 6번의 타격부문 타이틀을 차지한 시게오 나가시마는 일본야구 역사상 야구팬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

종전 후 일본의 프로야구는 치솟는 GNP와 더불어 고속성장을 기록했고, 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평균 20만에 이르는 관중을 끌어 모으며 놀랄만한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MVP에게 부상으로 간장 한통이나 돼지 한 마리가 주어지다가 지금은 값비싼 자동차나 수십만 달러의 현금으로 바뀐 것도 경제 강국으로의 변모된 일본의 새로운 위상을 반영해주는 듯했다. 또한 미네소타 메트로돔을 본뜬 도쿄돔이 1988년에 개장되었을 때 내야지정석 입장료가 약 35달러에 이를 지경에 이른다.

비록 시즌 후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메이저리그선수들과의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일본야구는 분명 점점 강해지고 자신들만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야구가 일본인들의 실제 삶과 정신을 반영하듯이 일본인들의 성격도 야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야구가 일본인들의 혼을 빼앗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구와 일본의 민족성이 잘 들어맞기 때문이다. 일본은 개인이 아닌 단체에 정체성의 뿌리를 둔 민족이지만 이상하게도 검도나 스모처럼 개인운동 외에는 팀 스포츠가 없었다. 그런 일본에 들어온 야구는 그들의 유명한 집단성향을 운동장에서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왕정치의 홈런기록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일본야구는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희생번트, 스퀴즈, 히트앤런 등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실제로 1985년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했을 당시 팀은 홈런 219개로 역대 리그최다팀홈런기록을 세웠지만 희생번트도 141개로 비슷한 기록을 세울 뻔했다.)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는 개인 간의 일대일대결을 제공한다. 스모나 다른 무술 팬들에게도 매력을 줄 수 있는 의지력의 시험무대가 된다는 말이다.

스모에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바닥을 꿰 뚫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준비 자세가 야구에서는 타자가 타임아웃을 부르고 신발 끈을 동여매면서 타이밍을 조절해가며 투수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과 동일시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야구가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적 느린 경기 진행속도이다. 일본을 조금이라도 아는 서양의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일본인들은 매우 조심스럽다. 그들은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완벽한 분석을 거친 후에야 결론에 도달한다. 운동장에서도 투구 간격은 길고, 이닝마다 장황한 말로 작전회의가 더디게 이루어진다. 일본에서는 사업 미팅도 그렇지만 프로 야구도 지루할 정도로 길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필드나 덕아웃에서 감독, 코치, 선수, 심지어 심판까지 합세해 오랜 회의를 하며, 대부분의 게임은 세 시간을 넘긴다. 운동경기가 아니라 미츠비시 회사의 중역회의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워렌 크로마티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 감독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다음 작전을 내리기까지 코치들과 끝없이 의논을 해야 한다. 한번은 오사카에서 게임을 하면서 반 이닝을 마치는 데 45분이 걸렸다. 아마 세계신기록이 아닌 듯싶다.”

때론 일본야구는, 독특한 표현 형식을 지닌 전통연극으로 네다섯 시간씩 공연되는 가부키에 비유되곤 한다. 일본인들은 야구에서 투수의 느긋한 투구 스타일은 극적인 ‘마’(멈춤)의 묘미를 살리는 가부키속의 대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들 한다. 뛰어난 구원투수였던 유타카 에나츠의 한 팬은 유타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마’를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타자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공을 던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구는 통계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의 성향에 잘 맞는 것 같다. 전후 야구 붐이 일면서 많은, 지역신문까지 합하면 14개의 스포츠 신문들이 발행되었고 구독자는 3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신문들은 게임기록, 타자비교, 게임 내용설명, 각 리그의 최고타자비교 등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텔레비전 중계 시에도 이닝, 점수, 아웃상황, 각 타자마다 투구 하나하나에 대한 볼카운트 등을 보여준다. 어떤 방송국은 포수 앞에 스트라이크존을 만들고 투수가 던진 공의 위치와 투구속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한 일본기자가 일본인들의 야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
“야구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스포츠입니다. 미국이 야구를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일본이 야구를 만들어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철학

일본야구와 미국야구의 큰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죠. 미국에서는, 선수마다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훈련을 통해 그 재능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능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을 더 한다고 실력이 무한정 늘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실력의 최고점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크리스 아놀드

前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긴테츠 버펄로 선수

초지 무라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무라타는 일본 최고의 투수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가 부단한 노력으로 개발해낸 포크볼은 일본 방문 시 그와 상대했던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히로시마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라타는, 1967년 퍼시픽리그에 속해 있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없던 롯데 오리온즈에 드래프트되었다. 롯데는 심하게 오염된 산업도시인 카와사키에 속해 있었으며, 홈구장인 카와사키 구장은 전쟁 후에 지어져 곳곳이 갈라지고 낡은 곳으로, 외야는 울퉁불퉁했고 관중석은 텅텅 비기 일쑤였다. 야구장이 아니라 빈 주차장에서 야구하는 것 같다고 선수들도 말하곤 했다.

하지만 무라타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투구에만 신경을 썼으며,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란 상을 모두 휩쓸기 시작했다. 1976년은 그에게 생애 최고의 해로서, 21승과 202 탈삼진, 1.82라는 방어율을 기록했다. 그는 1안타만 허용한 게임이 통산 5번이나 되었고, 두 번씩이나 리그 MVP에 뽑히기도 했다. 1981년과 1985년에는 시즌 초반에 내리 11연승을 하기도 했다.

투수란 훈련을 절대 멈추어선 안 된다는 것이 무라타의 생각이었다. 훈련에서도 시합에서도 무라타는 매일 100개 이상의 공을 던졌다. 그는 일구 일구에 혼신을 다했으며, 직구 구속은 90마일을 넘나들었다. 한번 등판하면 삼사일간 휴식을 취하는 미국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

왔다.

그런데 1982년 시즌 초반의 어느 날, 무라타는 오른쪽 팔꿈치에서 이상한 통증을 느꼈고 평상시처럼 공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을 던질 때마다 팔에 통증이 밀려왔고, 결국은 부상자명단에 이름을 올려야만 했다. 하지만 팀 닥터로부터 그의 팔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지자 무라타는 또 다시 아픔을 참으며 피칭을 하리라 결심한다.

그는 동네에 있는 콘크리트 벽을 향해 매일 투구연습을 했다. 공을 던질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자신의 굳은 의지로 고통을 없앨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계속해서 공을 던졌다.

무라타의 아내는 그의 팔에 필요한 것은 훈련이 아니라 휴식이라고 말해 주었고, 팀의 미국인 동료인 레온 리도 같은 말을 했었지만, 무라타는 투수란 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공을 던져야 한다는 오랜 격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순수 히로시마 출신으로, 히로시마 사람들의 끈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공을 던지던 무라타는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 팔을 들어 올리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다.

무라타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침, 저주파 치료, 마사지등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다가 L.A에 살고 있던 한 일본인 펜의 편지를 통해 기적적으로 야구계에 복귀한 토미 존이라는 투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존의 왼쪽 팔꿈치 인대가 파열되자 프랭크 조브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특별한 수술을 통해 존의 야구 인생을 되살려 주었다는 것이었다. 조브 박사는 오른쪽 팔꿈치의 건(腱)을 떼어내 파손된 왼쪽 팔꿈치의 인대와 교체했으며, 존은 일 년간의 재활 뒤 복귀해서 그 후로도 몇 년간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

그 편지를 본 무라타의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정작 무라타는 질색을 했다. 수술이라는 단어조차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라타에게는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말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일단 몸에 칼을 대면 투수로서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팽배했다. 스포츠 의학이 아직 전문분야로 발달되지 못한 시기였다.

그렇다고 해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라타의 아이들은 그들 아버지가 이젠 한물갔다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무

라타는 일본에서 가장 시설이 뛰어나다는 도쿄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정밀 검사 후에도 의사들은 그의 팔에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뼈와 근육 모두 정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병원들도 찾아 다녔지만 팔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한결같은 대답만을 들을 뿐이었다.

마사지사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팔을 너무 격하게 잡아당기고 비트는 바람에 팔이 빠지는 것 같았고, 마사지가 끝난 후 무라타의 팔은 시커멓게 변하곤 했다. 무라타는 다시 공을 던지고자 했으나 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은 무서운 고통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공을 던지면 언젠가는 그런 고통도 극복하게 되리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계속 공을 던졌다. 그러면서 일 년의 세월이 더 흘렀고, 옆에서 걱정만 하던 구단 관계자들은 결국 무라타에게 더 이상 공을 던지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잘 못되어서 영영 공을 못 던지게 되면 어떡하나? 제발 팔이 나올 때까지 좀 쉬게나.”

“팔이 빠질 때까지 투수는 공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무라타의 대답이긴 했지만.

구단은 무라타의 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아낼 때까지 모든 종류의 피칭을 중지하도록 공식 명령을 내렸다.

무라타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들었다. 그의 아내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혼자 응접실에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곤 했다.

1983년 중반이 되자 언론은 이제 무라타의 야구인생은 끝났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무라타는 선(禪)을 연습했었다. 선 철학에 관한 책도 읽고 가끔 명상을 하기도 했다. 매년 비시즌 기간 동안 한겨울이 되면 도쿄 남쪽의 이주반도에 있는 숲속의 절을 찾아 옷통을 벗은 채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단식을 하거나 명상을 하곤 했다.

이렇게 일본 운동선수들은 선에 익숙한 경우가 많았다. 십칠 세기의 전설적인 사무라이 검객 무사시 미야모토도 ‘선을 통해 진정한 검에 이른다’는 글을 적은 바 있었다. 그로부터 4세기 후에 타격의 달인이라 불렸던 카와카미는 ‘야구는 선이다’라는 말을 남겼고, 왕정치의 타격을 지도했던 스승은 집중력 향상을

위한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합기도 사범이었다.

그러나 무라타는 그 누구보다도 선에 대해 열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팔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 쉬라하마로 목상을 하러 떠났다. 그곳에는 타카마츠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라타에게 고통스러운 정도의 마사지를 해주면서 오직 내면의 힘을 통해서만 팔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해주었다. 그는 “아무도 당신을 위해 병을 낫게 해줄 수 없으며, 당신 혼자만이 스스로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라타는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매일 폭포수 밑에 서서 명상을 했으며, 타카마츠 또한 매일 마사지를 계속했다. 독을 뽑아내기 위해 8년 동안 소주에 담가두었던 뱀 껍질을 무라타의 팔꿈치에 둘러 감았다. 무라타는 몇 주 동안이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카와사키로 돌아온 그는 다시 공을 던져보고자 했으나 전과 같은 통증만이 그를 괴롭힐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팔꿈치에는 이상하게 생긴 혹 같은 것도 생겨났다. 어느 날 롯데 구장에서 그의 팔을 본 팀 동료 리는 그의 팔을 보고 마치 토가 나올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

무라타는 그때부터 이제 다시는 공을 던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당시 아내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최고의 투수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했으며, 만약 그가 더 이상 최고투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내가 언제든 떠나도 좋다는 말을 했었다. 자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그런 말에 그녀는 화를 냈다. 그녀는 인내심 있고 충실하며 남편을 항상 지지해 주는 아내였으며, 그녀가 고통과 고뇌 속에서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단지 최고투수의 아내로 남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말인가? 그녀는 무라타에게 절대 그의 곁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은퇴에 대한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래서 결국 무라타는 처음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팔에 처음 이상한 통증을 느낀 지 거의 일 년하고도 반이 지나 그의 아내와 함께 조브 박사를 만나기 위해 LA로 간 것이었다. 그에게 다른 선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조브 박사는 무라타의 팔을 진찰한 후 그의 오른쪽 팔꿈치의 인대가 파열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뼈와 신경은 이상이 없지만 인대가 찢어져 있었고, 조브 박사는 무라타가 그런 상태에서 공을 던지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조브 박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무라타의 왼쪽 손목에서 힘줄을 떼어내어 오른쪽 팔꿈치에 이식시키는 수술이었다. 수술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다시 공을 던질 수 있기까지는 약 일 년간의 힘든 재활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도 해주었다. 아무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토미 존은 이런 힘든 재활을 거쳐 복귀한 특별한 선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라타도 과연 해낼 수 있었을까?

무라타는 수술 제의에 승낙했다. 무엇이든 해보야만 할 상황이었으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 후 통증이 밀려왔지만 무라타는 진통제를 찾지 않았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나중에 그는 주사에 대해 병적인 공포가 있음을 고백했다).

무라타는 이제 복귀를 향한 기나긴 과정을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는 주먹조차 쥐기가 힘들었지만, 곧 응접실에서나마 천천히 공을 던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4년 8월 24일, 구원투수로 나온 무라타는 2이닝동안 피칭을 했는데, 부상자 명단에 오른 지 827일 만이었다.

무라타의 복귀 과정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마도 공을 너무 많이 던지지 말라는 조브 박사의 충고였을 것이다. 조브 박사는 투구에 관한 몇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알려주었다.

피칭은 부자연스러운 동작이다. 인종에 관계없이 인간의 팔은 야구공을 던지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발투수들은 투구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팔의 작은 근육들이 손상되는 것이다. 9이닝을 던진 선발투수는 팔이 다시 정상시의 조직을 이룰 때까지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

조브 박사는 무라타의 경우 한번 등판하면 다음 등판까지 6일간의 휴식이 필수적이라는 충고를 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휴식이란 예전에 무라타가 했던 것

처럼 백 개의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는 휴식을 의미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무라타는 그 말을 따랐다. 다음 해, 무라타는 17승 5패, 93탈삼진을 기록하며 ‘올해의 재기상’을 수상한다. 1987년 말 무라타와 그의 아내는 L.A로 건너가 조브 박사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무라타의 성공은 일본에 새로운 유행을 불러 일으켰다. 몇몇 다른 투수들이 무라타처럼 L.A로 날아가 팔 수술을 받고 재기했하면서 갑자기 조브 박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무라타는 그런 현상이 달갑지 않았다. 아직도 어린 투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일찍 수술을 하고 마운드로 복귀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며, 그런 강인함이 무라타와 같은 승자와 나약한 패배자를 결정짓는 것이다. 현대 의학이 그의 팔 부상을 낫도록 도와준 것은 확실하나, 그의 야구인생이 현대의학만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87년의 어느 오후, 카와사키 커피숍에서 무라타는 현대생활에 빠져있는 기계나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해 젊은 기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무라타의 질문에 젊은 기자는 “아니요, 전 연필을 사용합니다.”라고 답했다. 무라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기계들로써 일 속에 진정한 정신이 깃들 수가 없지.”라고 말했다.

고통이나 어려움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⁵⁾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일본프로야구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미덕, 즉 근면성과 조화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거울과도 같았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이런 일본야구를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다저스에서 도쿄 자이언츠로 온 레지 스미스는 일본에서 첫 시즌을 마친 후

5) 사실 무라타는 오리온즈 팀의 젊은 선수들에게 연습 시 너무 많이 던지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팔을 보살피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제 말을 무시하더군요. 매일 열심히 공을 던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세상에는 바뀌기 힘든 것들이 있는 법이죠.”

“야구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야구가 아니야”라며 투덜거렸다.

물론 미국야구에서와 같이 일본야구에서도 공과 배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야구규정 내용도 같지만, 같은 것은 거기까지 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훈련은 거의 종교와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3월이 되어야 동계훈련을 시작해서 다가올 6개월간의 시즌 준비를 5, 6주 이내에 마친다. 훈련기간에도 하루에 약 3, 4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나면 선수들은 가까운 골프장이나 수영장을 향하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 피트 로즈와 같은 선수들은 그런 정도의 훈련시간마저도 너무 많다고 말한바 있다.

일본에서는 쫄쫄 얼어붙을 듯 추운 1월 중순에 ‘자율’훈련이 시작된다. 추위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운동장에서 7시간의 훈련을 마치면 기숙사에서 저녁 미팅을 하고 또 야간 훈련도 실시한다. 선수들은 매일 10마일정도를 뛰고 정기적으로 운동장 계단을 뛰어 오르고 내려야 한다. 일본에서 여러 시즌을 보낸 워렌 크로마티는 신병 훈련소도 이런 일본식 훈련에 비하면 누워서 떡먹기일 것이라 표현을 썼다.

시즌이 시작해도 강훈련은 계속된다. 많은 미국선수들이 에너지 비축을 위해 게임 전 훈련을 줄이는 반면 일본선수들은 특훈으로 피로감을 물리친다는 믿음하에 더욱 훈련을 강화한다. “더위에 힘을 쓰지 못하는 선수는 열심히 훈련하지 않은 선수”라는 것이 왕정치의 지론이었다.

컵스에 있다가 일본에 온 스티브 온티베로스는 일본에서는 “깨어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야구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간게임이 있는 날에는 오후 두시쯤 구장에 도착하는데 벌써 몇몇 선수들은 미리 와서 30분정도 러닝을 하고 있지요. 원정경기를 떠나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장으로 향합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4시간 정도 훈련을 합니다. 일본에는 가볼만한 좋은 곳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구경할 시간이 없었어요. 당연히 항상 훈련에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모든 선수가 신체적으로 잘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신자세를 지녔음을 보증하기 위해 넘쳐나는 규정들로 엄격하게 운영되는 것이 일본야구다. 도쿄 자이언츠는 다음과 같은 팀 훈련규정들을 1년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운동장에는 15분 일찍 도착한다, 운동장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 큰 소리

로 팀 동료들 격려한다, 운동장에서 이동 시에는 뛰어다닌다.” 양 리그를 합쳐서 아마 도쿄 자이언츠 다음으로 규정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세이부 라이온즈는 오랫동안 선수들의 음주, 흡연, 광고출연 등을 금지했었다. (팀의 간판투수였던 오사무 히가시오가 야쿠자와 함께 일본에서는 불법인 마작을 하다 적발되자 팀은 그를 반년 동안 출전금지 시키고 연봉을 40%나 삭감해버렸다.)

또한 라커룸은 선수들을 자극하는 문구들로 차 있다: “자기희생 없이 진정한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운명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훈련 때 울고 시합 때 웃자, 자기반성이 있어야 발전한다.”

개인에 관련된 일은 각자가 알아서 책임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에서의 활약 여부라는 말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일본의 규정들은 너무나도 구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前미네소타 선수였던 찰리 매뉴얼은 “내 야구 평생 이런 건 처음이요. 심지어 언제 양말을 갈아 신어야 하는 지까지 코치가 말해 준 다니까”라고 말한다.

미국선수들에게 야구는 직업이지만, 일본선수들에게는 야구가 인생 그 자체이다. 일 년 내내 기숙사에 살며 순서를 정해 학교 깃발을 올려야 하는 어린 선수들부터, 잠깐 동안의 비시즌 동안에도 즉석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고참선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한 가지가 바로 팀을 위한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훌륭한 선수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남보다 뛰어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유명한 카와카미는, 진정한 무사는 천일간의 배움과 만일간의 정련(精練)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던 사무라이 무사시 미야모토의 정신을 주장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집중력을 발달시킨 카와카미는 타격을 하는 순간 날아오는 공이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왕정치는 천장에 줄을 매달아서 그 줄에 달린 종이를 칼로 얇게 베는 연습을 훈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통산 868개의 홈런을 기록한 왕정치는 “코치들의 도움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욕”이 이러한 기록 달성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왕정치는 사인을 해줄 때마다 ‘노력’이라는 단어를 적어주었으며, 18년간 히로시마 카프에서 활약하며 통산 536개의 홈런을 기록한 왕년의 스타, 코지 야

마모토 또한 그랬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비좁고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없으며, 오직 노력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게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다.

실제로 1979년에 NHK 방송에 의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노력’이 뽑혔다. 그 다음으로는 인내, 감사, 성실, 참을성, 사랑, 조화, 친절, 우정, 믿음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 코단샤의 젊은 편집인 테즈유키 우에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변하고 있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조사를 다시 실시한 다해도 사랑, 조화라는 단어와 함께 노력이 여전히 최고의 단어로 선택될 것이라.”

코지 야마모토의 동료였던 사치오 키누가사만큼 노력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1970년 10월 18일에 첫 게임에 출전한 키누가사는 1987년 10월 22일 은퇴할 때까지 전 경기 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3루와 외야를 번갈아가며 기록한 2,215경기 연속 출장은 일본프로야구 역사에서 최장연속출장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1987년 6월 13일 키누가사가 루 계릭의 2,130경기 연속 출장의 기록을 깨던 날은 왕정치가 베이브 루스와 헵크 아론의 통산홈런기록을 깨뜨린 날에 이어 일본인들에게는 대단한 축제의 날이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의지의 승리’였다. 키누가사는 기록 달성을 위해 슬럼프와 여러 가지 부상, 심지어 뼈가 부러지는 어려움도 극복해야 했다. 왕정치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 일본의 구장 크기가 작고, 상대투수들도 약한 편이며, 압축배트를 사용해 일반 배트보다 타구의 비거리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그의 기록에 대해 미국인들의 불만이 있어왔으나, 키누가사의 대기록에는 그 누구도 토를 달수가 없었다.⁶⁾

루 계릭이 기록을 세우는데 15년이 걸린 반면 키누가사는 기록 달성을 위해

6) 미국에서는 압축 배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왕정치의 은퇴 이후 사용이 점차 사라져갔다.

17년이 걸렸는데, 이는 일본의 한 시즌 게임 수가 130경기인데 반해 루 게릭 시대의 메이저 리그에서는 154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누가사의 경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는 일본의 게임 전 훈련을 모두 참아내며 이룬 기록이었던 것이다.

키누가사의 미국인 동료였던 리치 란세로티는 키누가사가 팀 연습 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면서 연습량을 따져보면 평생 동안 매일 두 경기를 치른 것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키누가사가 출장만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최단시간 504개의 홈런과 2,000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일본야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1984년에는 102개로 센트럴리그 타점부문 선두를 달렸고 리그 MVP를 수상했다. 그는 .270의 통산타율을 기록했다.

키누가사와 홈런타자 코지 야마모토는 히로시마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눈물을 자아냈다. 그 두 사람은 함께 만년 이류였던 카프를 무시 못 할 강팀으로 만들었고, 카프에게 정규시즌 5회 우승과 일본 시리즈 3회 우승을 안겨주었다. 물질적, 정신적으로 왼쪽의 참혹한 피해를 당했던 도시인 카프가 사람들이 붐비면서 변화한 주요 도시로 놀라운 탈바꿈을 시도하는,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것이다.

키누가사는 신체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다. 키는 5피트9인치(약175cm)에 몸무게는 165파운드(약75kg) 정도였지만, 그는 강했다. 기술적인 배팅을 선호했던 카프의 타격코치 마음에는 들지 않았겠지만 그의 타격 폼은 미국 스타일로 스윙이 매우 컸고, 그 때문에 1,487개로 삼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실제로 너무 세게 방망이를 돌리는 바람에 수년간 목뼈의 골절로 고생하기도 했었다.

키누가사는 검은 피부에 순한 미소를 지닌 사람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다녔다. 그는 계약금으로 미제차인 포드 갤럭시를 샀는데, 당시에는 미국차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차로 인식되던 때였다. 그는 또한 술 마시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23년간의 선수 시절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밤마다 하는 스윙 연습을 빼먹은 적이 없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한두 시간 후에 갑자기 사라지곤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가 혼자서 스윙연습을 하기 위해 자리

를 뺏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키누가사가 프로에 들어온 지 6년째 되던 1970년 여름에 발생했던 일화가 하나 있다. 카사누가가 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팀 기숙사로 돌아오자 일대일 지도를 담당하던 준조 세키네 타격코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날은 스윙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키누가사는 백번의 스윙을 하고 나더니 탈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룻바닥에 그대로 쓰러졌다고 한다.

뉴욕 타임즈지 前도쿄지부장이었던 클라이드 하버만은 그의 글에서 키누가사의 매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키누가사는 바위와 같은 건실성을 지녔으며, 이는 영웅의 모습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어에서 그대로 빌려와 사용하는 셀러리맨이란 단어는 전형적인 일본남성의 모습을 나타낸다. 매일 아침 푸른색 양복을 입고, 기차에 올라 한 시간 반이 걸리는 통근을 서두르며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을 근무한 후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단 몇 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다시 또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시작하는 셀러리맨.

바로 그 셀러리맨처럼 키누가사는 약속된 그 자리에 언제나 그렇게 서있는 것이다.

키누가사는 다섯 번이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그 때문에 게임을 결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979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투수 다카시 니시모토의 실투로 등에 공을 맞은 키누가사는 기록 달성의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앰블런스로 병원에 실려 간 키누가사는 좌측 견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취할 것을 명했다. 그 당시 그는 1,123경기 연속출장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발작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을 견뎌낸 키누가사는 다음날 어깨에 테이핑을 하고 구장으로 가서 타격 연습장에 들어섰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는 십여 분 간 힘차게 배트를 휘두르며 감독에게 자기가 게임을 뺏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날 그가 했던 말이 일본 언론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다. “집에서 쉬었다라면 더욱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타석에 서면 통증이 있지만 그건 배트를 휘두르는 짧은 순간의 고통일 뿐입니다. 집에서 TV로 게임을 보고 있었다면 세 시간 내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키나가사가 게릭의 기록을 깨뜨리자 여기저기서 칭송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실을 통해 ‘비범한 정신력과 초인적인 지구력’을 칭찬하면서 ‘키나가사의 위대한 기록은……육체적 강인함과 근면성, 인내심, 그리고 단체정신의 규칙과 예절을 엄격히 준수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수상이었던 야스히로 나카소네는 ‘어떠한 결점도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한 조화를 갖춘 아름답고도 숭고한 후지산’이 입체적으로 표현된 은으로 만든 작품을 키나가사에게 선물했다.

키나가사는 자신이 일본 미덕의 귀감으로 치켜세워지는 것에 대해 가끔씩 당황해했다. 그는 “단지 게임에서 뛰고 싶을 뿐이며, 진정한 스포츠맨이라면 뛸 수 있을 때까지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아마도 성공을 갈망하는 키나가사의 의욕 때문인 듯하다. 그의 아버지는 전후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던 흑인병사였는데, 그는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키나가사도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의 공식 자서전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팀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교토에서 소년시절을 보내는 동안 키나가사는 다른 아이들로부터의 놀림을 견뎌내야 했고 자신의 그런 배경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의 옛 동료이며 카프의 내야수였던 타츠오 오키츠는 기자들에게 키나가사가 밤늦게까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말했다.

“제가 왜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가서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어 대신 스윙연습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해줬죠.”

일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다면 아버지가 자기를 보러 일본에 올 거라는 동료의 말을 들은 키나가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그래도 키나가사의 아버지는 결국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1987년 햇살이

비치는 여름 키누가사는 진정한 최고선수의 반열에 올라섰다.



대부분의 일본 코치들은, 노력의 한계는 훈련을 통해 확장되어야만 한다는 오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동계훈련 시 선수들을 한계상황까지 밀어붙이는 지옥훈련이 반드시 실시되었다. 코이치 타부치는 80년대 각종 기록을 품미한 선수로서 38세가 되던 1984년에 은퇴를 했다. 그가 은퇴를 하던 해에 동계훈련에서 땅볼 잡는 연습을 9백회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두 시간 오십분에 걸친 훈련 후 그는 운동장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훈련방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이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나쁜 습관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만 커질 뿐이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칸스포츠의 기자였던 케니치 이시다는 미국인들의 그런 비평은 연습에서의 선(禪)효과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이런 연습은 기본적으로 정신력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선수들을 지치게 만들긴 하지만 정신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본질적으로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수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음으로서만 그 선수가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바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라고 말한다.

물론 선수의 발전을 위한 쉽 없는 훈련과 극한적인 연습이 바랐던 만큼의 효과를 항상 거두는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중반에 프로에 입단한 한 신인선수의 예를 들어보자. 감독은 그 선수가 장래 재목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았지만, 그는 체력이 약해 팀의 고된 훈련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피칭연습에서 자기 차례가 돌아 올쯤이면 이미 지쳐버린 그는 제대로 공을 던질 수가 없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고치기 위해 코치들은 정규훈련시간외의 특별훈련을 고안해냈다. 먼저 그는 외야 한 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약 150야드의 거리를 50회 달려야했으며, 그의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양 끝에 코치가 서서 그가 올 때마다 ‘빠가야로’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특별피칭훈련 시에도 공 하나라도 잘못 던질

경우에는 모욕적인 말들을 한바가지나 들어야했다. 물론 다른 신인선수들과 마찬가지로 하루 훈련이 끝나면 외야에 나가 공을 주워 담고 장비를 챙겨 라커로 옮기는 일도 해야 했다. 여느 일본선수들처럼 그도 입술을 꼭 깨물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특별훈련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되었지만 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프로 3년차가 되던 해, 그는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미국에서는 대릴 스트로베리나 돈 매팅리와 같은 선수들처럼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다. 이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규칙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개인주의란 불결한 단어이다.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감독과 코치들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동양의 최대 덕목으로 꼽히는 나이와 연륜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말은 곧 법이며, 그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방식대로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겸손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순종적인 성격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왔고, 한 때 ‘일본의 남성상’으로 뽑혔던 도쿄 자이언츠의 타츠노리 하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라는 종종 일본의 칼 립켄 주니어로 비교되곤 했다. 칼 립켄 주니어는 1984년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이었고 1986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은 둘 다 야구선수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칼 립켄 주니어는 1987-88에 오리올스 감독을 맡았으며, 하라의 아버지인 미츠구는 큐슈의 작은 미케고교를 전국 우승팀으로 이끌면서 유명해졌다.) 또한 이들 둘 다 내야수였으며 이십대 초반에 이미 스타대열에 올라섰고 1983년엔 리그 MVP를 수상했다. 성격 또한 조용하고 호감을 주는 젊은이들이었다.

이렇듯 겉으로 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이었다.

립켄은 전형적인 미국의 스포츠 스타였다. 어려서부터 야구의 기본을 다진 그는 유명선수들을 따라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기량을 향상시켰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 전 그는 이미 손바닥을 수평으로 하고 방망이 끝이 등을 향하는 그만의 독특한 타격 폼과 특이한 수비 동작을

개발했다. 정면으로 오는 땅볼을 백핸드로 잡기도 했다. 그의 스타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지만, 그에게는 그런 스타일이 잘 맞았던 것이다.

“아버지든 다른 코치들이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기자들과 코치들은 립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와는 반대로, 하라는 일생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살았다. 처음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후에는 자이언츠의 코치들로부터 폼에 대해, 전통적인 폼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타격과 수비에 대한 기계적인 교육을 받은 하라의 폼은 어느 일본선수들의 복사판 그 자체였다.

그의 타격이 저조할 때면 종종 텔레비전 카메라는 올바른 타격 폼을 가르쳤는데 왜 못 칠까하는 표정으로 벤치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자이언츠의 타격코치를 비추곤 했다.

아마 어떤 미국선수도 하라처럼 늘 가까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본 적은 없을 것이다. 그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스타가 되기 위한 관리를 받았다. 하라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들어 올려 이불 위에다 떨어뜨렸다. 반사작용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하라가 바로 다리를 구부리며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본 그의 아버지는 하라가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라가 3살이 되자 그의 아버지는 야구 교육을 시작했다. 매일 2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고 동네 언덕을 4킬로씩 뛰기 시작했고, 나이가 들면서 훈련의 강도도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하라는 아버지의 지도아래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스타가 되었고, 은퇴하는 왕정치의 공백을 채워줄 중심타자가 필요했던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드래프트되었다. 프로 첫 해인 1981년에 하라는 .262의 타율과 22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천황보다 더 유명해졌다. 180센티의 다부진 체격에 왕자처럼 매력적인 미소를 갖춘 하라를 동경하는 여성들로부터 청혼편지들이 쇄도했다. 그리고 사진, 영화 등에서 계약 섭외가 들어왔지만, 오직 야구에만 신경 써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해야 했다.

입단 후 8년간 하라는 평균 .285의 타율과 31개의 홈런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83년에는 32 홈런과 103 득점, 타율 .302의 기록으로 자이언츠의 정규시

즌 우승에 공헌하면서 최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팬들과 방송 해설가들, 그리고 코치들은 이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라가 중요한 순간에 삼진이 너무 많다거나 포크볼에 약하다거나 홈런을 40개 이상 못 친다며 불평해댔다. 그에겐 나가시마나 왕정치가 지냈던 위대함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하라가 강인하지 못하다고 말들을 해댔는데, 그것이 문제였다. 한 번은 게임 전에 사랑니를 뽑은 하라가 턱이 붓고 통증이 심해 구장 응급실에 누워 있어야 했다. 전 카프의 스타였던 코지 야마모토는 그날 밤 결장한 것을 신문에서 언급하며 진정한 중심타자의 자질에 대해 문제 삼았다.

다음날, 한 사진기자가 상태가 정말 나쁜지 확인하자며 하라의 입안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자, 하라는 화를 내며 이를 거절했다. 그날 밤 하라는 여전히 얼굴이 부은 상태로 게임에 나가 홈런을 터뜨렸다.

하라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계속되었다. 산에 있는 정신수양센터에도 보내졌고, 특별타격훈련과 컨디션 조절연습이 실시되었다. 한 번은 동계훈련 때 2주반에 걸쳐 15,000번의 스윙을 하는 동안 자이언츠의 前 감독들과 코치들이 운동장에 죽 늘어서 하라의 타격 향상을 위한 분석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관찰하면 하라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이유에서였다.

하라는 고분고분하게 모든 코치들의 조언을 경청했고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었고, 그의 성적도 매년 비슷했다.

하라와 2년간 같이 있었던 레지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도 아직 방망이를 제대로 휘둘러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하라가 자연스럽게 플레이하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사람들은 그를 로봇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라와 6년간 한 팀에 있었던 크로마티는 덧붙였다. “코치들의 말은 무시해 버리고 네 자신만의 플레이를 하라고 계속 말해줬어요. 하지만 그러질 못하더군요.”

스미스와 크로마티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노력

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 스스로의 자발성이라고 강조한다. 하라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잘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일본인은 거의 없었다. 일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개인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며, 심지어 가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계속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선생과 학생의 관계, 넓게는 코치와 선수의 관계가 일본, 아니 아시아의 정신 기초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이는 선이나 무술에서의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유래되어졌다. 타격코치였던 히로시 아라카와는 유명한 외다리 타법을 왕정치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왕정치는 늘 자신의 홈런 기록달성의 공을 그에게 돌렸다. 왕정치는 아라카와 없이는 자신이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었을 거란 말을 수 없이 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고방식에 대한 차이가 쉽게 매워지진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하라가 과잉지도를 받았다고 비평하겠지만, 일본인들은 이렇게 응수할 것이다. 칼 립켄 주니어의 이상한 폼을 코치가 제대로 고쳐주었다면 얼마나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겠는지 상상해보라고.



일본야구와 미국야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룹의 조화 혹은 일본어로 ‘와(和)’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행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는 모든 일본 스포츠와 인생을 통해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실타래와 같다. 미국사회가 “솔직하게 말하라” 혹은 “네 자신의 일을 하라”주의인 반면, 일본에서는 “튀어나온 못은 정을 맞을 것”이라는 속담이 국민 신조로 여겨지고 있다.

쉬운 예로 일본에서는 구단의 계약 갱신에 불응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 선수는 구단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그뿐이다.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팀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의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1984년 주니치 드래곤즈의 수위타자인 야수시 타오는 4년 연속 3할의 타율을 기록한 뒤 거액의 연봉인상을 요구하다 트레이드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세이부 라이온즈의 외야수는 같은 해에 부상 때문에 게임결장이 너무 많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구단의 연봉인상 제의를 거부해 좋은 평을 듣기도 했다.

신인의 경우 연봉이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비해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회적 압력이 거세고, 언론 또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명투수였던 스구라 에가와가 전 시즌 16승에서 1승 모자란 15승을 거두고 10%의 연봉인상을 요구하자 일본의 한 유명 스포츠신문은 ‘에가와! 탐욕주의자!’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기도 했다.

1985년에 선수노조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는데, 노조 회장이었던 자이언츠의 키요시 나카하타는 즉시 전국 방송을 통해 자기들은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과는 다르며 선수 파업은 너무 지나친 행동이 될 것이라 밝혔다. 실지로 후에 아사이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선수의 28%만이 파업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치 압력술과 같은 미국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감정 표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때론 정신건강에 유익하다고까지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선수의 행동이 타율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타격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은 당황하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장난, 언쟁, 불평 등 미국선수들 사이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행동들이나 화를 내는 것은 팀 전체의 평화를 훼손시키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그런 행동들은 일본인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해치는 행동으로서, 많은 미국선수들은 일본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1984년 게임에서 실수를 범한 히로시마 카프의 올스타 유격수였던 요시히토 타카하시의 화도 나고 분한 마음에 글러브를 내던졌다가 수천 명의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타케시 코바감독에게 뺨을 맞았다. 다음날 신문에는 선수에게 글러브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므로 마치 사무라이가 검을 다루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글러브를 다뤄야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자이언츠의 일급투수 타카시 니시모토는 1985년 어느 여름날 코치의 훈련 지시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코치에게 얼굴을 얻어맞고도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사과와 함께 10만 엔의 벌금을 내야했다.

반항적인 태도 역시 팀 전체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인 동시에 개인의 나약한 성격을 보여주는 ‘새가슴’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에서 진짜 사나이란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 삭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을 뜻한다.

1987년 시즌이 개막되기 얼마 전 타카하시는 또 한 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

게 된다. 그는 야구에 신경 쓰기도 바쁘는데 행사가 너무 많으며 히로시마 시내에서 열린 팀 모임 참석에 난색을 표했다. 이 일로 카프의 구단주는 타카하시를 3주 동안 2군으로 쫓아버렸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가? 그럴지도 모른다. 내 야수의 핵심이자 뛰어난 타자인 타카하시 없이 시즌을 맞이한 전년도 챔피언 카프는 시즌 초반 성적부진을 결국 만회하지 못하고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하지만 타카하시의 결장으로 잃어버린 승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와’ 혹은 ‘하나’라는 개념을 유지하기 위해서 팀이 마지막까지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 베테랑 투수였던 타케노리 에모토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에모토는 뛰어난 슬라이더로 10년의 선수생활동안 113승을 기록했지만, 그는 여러 면에서 ‘튀어나온 못’이었다. 약 190센티의 키에 대나무 가지 같은 몸매와 더불어 도전적인 태도 때문에 그는 자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 번은 짧은 머리를 하라는 팀 명령에 반항하는 뜻으로 귀 밑까지 머리를 길렀고, 단장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방출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1년 한신 타이거즈 선수시절, 에모토는 자신을 선발에서 구원으로 이리저리 바꿔대는 감독의 투수 운용방식이 맘에 들지 않았다. 8월 어느 날 잘 던지고 있던 그를 감독이 강판시키자 덕아웃 뒤로 나가 통로에서 이런 엉터리 감독 밑에서는 공을 던질 수 없다고 화가 나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기자들이 듣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모든 스포츠 일간지는 에모토의 반란을 1면기사로 장식하면서 사설을 통해 그의 괴팍스러운 행동을 한결같이 비난했고, 한 담당기자는 ‘선수들은 입을 다물고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옳다’고 강조했다.

그 사건으로 ‘책임을 통감’한 에모토는 ‘자진은퇴’를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에모토의 선수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던 구단이 모든 트레이드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그가 결국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동료선수들로부터의 도움도 얻지 못했다. 당시 선수노조 회장이었던 코지 야마모토는 에모토의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며 이를 문제시 삼지 않았다.

에모토는 당시 자신은 은퇴를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2년은 더 선수생

활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미국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이 아무것도 허락해주질 않았어요. 전 완전히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행이 행운을 불러주기도 한다. 에모토는 프로야구의 비화를 담은 책들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올스타게임 전에 라커룸에서 본 왕정치의 성기에 대한 묘사를 포함해서 그의 숨김없는 얘기들로 유명해진 에모토는 TV 스타가 되고 많은 돈을 벌었다. 퍼시픽리그의 홍보담당자인 판초 이토는 에모토를 ‘일본의 짐 버튼(역자 주; 메이저리그 10년 경력의 선수로 회고록인 Ball Four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음)’이라 불렀다.



일본에서 화합(Wa)과 노력이라는 단어는 성공적인 조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테쓰하라 카와카미는 14년간의 자이언츠감독생활동안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회 연속 일본시리즈 챔피언을 포함해 총11회의 일본 챔피언을 거머쥔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감독이었으며, 그도 이런 화합과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일본이 경제기적을 이루는데 기여를 했던 재계지도자들도 이런 요소들을 강조했는데, 이들이 열렬한 카와카미의 팬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화합은 히타치나 스미모토, 도시바와 같은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모토이며, 다른 일류 기업들도 신입 임원들을 야외수련장에 보내는데, 그곳에서도 노력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로이클로스(한 장의 천을 허리에 둘러 입는 스타일)와 머리띠만을 두른 채 명상과 정신강화 훈련을 한다.

1974년에 은퇴한 카와카미는 이따금씩 전국을 돌며 여러 기업체에서 자신의 감독이론에 대해 강의했다. 그때의 강의내용 중 몇 가지를 보면 ‘대부분의 선수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므로 열심히 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감독의 몫’이라는 것과 ‘예의바른 선수들이 강한 팀을 만들기 때문에 감독이 적절한 매너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성격 좋다고 여겨지는 감독은 실패한 감독’이라거나 ‘외로운 늑대는 팀에 암적인 존재’라는 것들이었다.

‘일류 판매사원이 당신의 말에 반대하거든 그를 해고하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는데, 개인주의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조직 전체가 와해된다는 것이다.

선수들 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하는 카와카미의 스타일 때문에 그의 야구는

관리야구라 불렸다. 그는 심지어 선수들이 공공장소에서 만화책을 읽지 못하도록 했는데, 팀 이미지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카와카미의 뒤를 이어 타츠로 히로카가 관리야구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는 마른 몸매에 엄격한 지도자로서, 은퇴할 때까지 7년의 감독생활을 통해(야쿠르트 1977-79, 세이부 1982-85) 페넌트시리즈우승 4회, 일본시리즈우승 3회를 거두었다.

그는 관리야구에 자연식이요법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해 선수들이 원정게임 전에 생선, 콩, 두부샐러드, 비지 같은 음식들만 먹게 했는데, 선수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주먹밥을 몰래 먹기도 했다.

그는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밤마다 일일이 선수들에게 전화를 걸어 12시 귀가시간을 지키는지 확인을 했고, 선수들의 모든 사생활, 심지어 성생활에까지 조언을 해주었다.

원정경기에서는 게임내용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숙소에 감금시켜 놓기도 했고, 한 시즌 내내 4개월 동안 선수들에게 단 하루의 휴식도 주어지지 않은 때도 있었다.

히로카 또한 토비타와 같은 와세다대학을 나왔으며 스포츠는 부도(무술 방식)를 따라야한다는 것, 즉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어느 겨울에 그는 라이온즈 유격수인 팀 주장을 얼음 얼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정신을 강화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히로카는 말한다. “나도 수차례 해본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다.”

1984년, 히로카는 팀의 어린 선수들과 몇몇 베테랑 선수들을 함께 모아 ‘가을 캠프’를 실시했는데, 아마도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일이 아닌가싶다. 시즌 종료부터 12월말까지 (대부분의 미국선수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기) 59일에 걸쳐 하루 평균 9시간의 훈련을 거듭하며, 타자는 하루 600회 스윙, 투수는 430개의 피칭을 하고 이와 더불어 수영과 합기도를 호신술로 배워야 했다.

그의 밑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미국인 스티브 온티베로는 세이부 히로카가 페

년트 우승을 놓쳤던 해를 다음과 같이 상기했다.

시즌 중반에 히로카가 미팅을 소집하고는 선수들에게 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죠.

그러자 몇몇 선수들이 감독님이 너무 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감독 밑에서는 야구가 재미가 없다는 말인데, 실제로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야구는 재미로 하는 게 아냐. 야구는 너의 일이고 잘해야 하는 것이 네 임무야’라고 바로 쏘아붙이더군요.

그런 식이었죠.

이에 응어리가 맺힌 히로카는, 선수들이 트레이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펼치자 선수 3명을 2주간 출전정지 시키기도 했다. 세이부에서 히로카가 첫 일본시리즈 우승을 거두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올해는 저와 선수들 간에 전쟁이었습시다만, 제가 이겼습니다.”



그렇다고 근대 일본프로야구의 모든 감독들이 다 관리아구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롯데 감독이었던(1984-86) 카즈히사 이나오는 선수들의 귀가시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선수들을 잘 알 수 있는 기회라며 그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파칭코도 즐겼다. 이나오는 선수들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깨지도 않은 상태로 승리를 거두던 것으로 유명했던 예전 이시테즈 라이온즈에서 투수로 활약했었다. 그의 옛 팀 동료였던 히로시 오시타는 토에이 플라어즈의 감독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딱 3가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No 벌금, No 귀가시간, No 사인. 연습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오시타는 팀이 꼴찌를 하면서 한 시즌 만에 사퇴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카와카미와 히로카의 성공을 보며 역시 칼이 소주잔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었다. 이치오 감독 후임으로 팀을 맡은 미치요 아리토는 감독 첫해 5월에 선수들을 불러 7월말 올스타 휴식기간까지 휴일이 없음을 통보했다. 그리고 올스타기간이 다가오자 4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에서도 하루에 2시간씩 미니캠프를 실시했다. 훈련에 참가했던 레온 리는 당시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어느 날은 두 명의 투수에게 쉬지 말고 500개의 공을 던지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1시간 하고도 45분이 지나서야 훈련이 끝났는데 그 두 사람은 제대로 서있질 못하더군요.”

한 선수는 아리토의 훈련방식이 너무 힘들어서 쉬기 위해 피병을 부린 적이 있음을 비밀스럽게 털어놓았다. “일 년 내내 감독 방식대로 훈련하면 금방 골병 들고 말걸요.”

1988년에 한신 타이거즈 감독에 취임한 미노루 무라야마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코칭스텝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도록 했다.

물론 점점 더 많은 젊은 선수들이 ‘파이팅 정신’과 같은 말을 구시대 유물로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일반 회사의 젊은 직원들도 5시에 퇴근을 한다거나 직장을 옮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타격에서 3관왕을 3번이나 차지한 히로미츠 오치아이는 80년대 후반에 걸쳐 주니치 드래곤즈의 최고의 스타였다. 그는 너무 많은 훈련을 하느니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든지 또는 연봉만 많이 주면 어느 팀이든 갈 수 있다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마저 태연히 하곤 했다. 그는 게임 전 훈련을 5분만하기로 유명했는데, 일본야구 역사에서 보면 그는 차라리 악명이 높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통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치아이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그를 따라하진 않았다.

한신 타이거즈의 구원투수였던 카즈유키 야마모토는 그가 35세 되던 1985년에 미국메이저리그 진출의사를 밝힌다. 그가 오랫동안 원했던 꿈이었지만, 팬들의 진정서와 신문의 사설들은 그를 묶어두기 위한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모정에 호소하기까지 하여 주요 일간 스포츠신문에는 “내 아들이, 가지 마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렇게 하여 야마모토가 그의 꿈을 접는 데는 겨우 일주일의 걸렸을 뿐이다.

4. 우리는 한 가족

선수들은 절대 앞에 나서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심타자였는데, 한번은 감독이 3회에 저를 게임에서 빼더라고요. 그래서 감독한테 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감독 왈 내가 안타를 못 쳐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 누구도 못치고 누구도 못치고 하면서 라인업 전체를 들먹였죠.

감독은 화가 났는지 저를 손짓으로 쫓아내더니 3일 동안이나 벤치에 앉혀놓더군요.

결국은 제가 감독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감독은 제가 빠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벤치에 앉혀놓았다고 말해주더군요.

“빠져나간다고요? 전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른 선수들에게도 보여줘야만 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농담마세요. 다른 선수들은 전혀 그런 선수들은 재채기를 해도 복도에 나가서 한단 말입니다. 모두 겁나서 아무 말도 못해요.”

가끔은 한발 물러서서 ‘저, 잠시만요’라고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이다.

라치 란세로티

1987 센트럴리그 홈런왕

일본 감독에게 우승팀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십중팔구 ‘와’(和: 조화, 화합, 가족)라고 답할 것이다. 이번엔 그 중요한 ‘와’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아마도 ‘미국선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대부분 미국 메이저리그의 난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용병선수들은 전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보통 외국인선수는 팀당 두 명으로 제한되어왔다. 메이저리그에 비해 기량이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 일본야구는 폐품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런 가이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제공해주며 높은 연봉

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쪽이 항상 서로 고마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 돈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된다. 외국인선수들은 비슷한 기량을 지닌 일본선수에게 비해 늘 2-3배의 연봉을 받을 뿐 아니라 서구식 집과 여러 특혜를 제공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서 국내 팀 동료에 비해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하지만 특별대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일본의 게임 스타일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매년 새로 영입되는 외국인선수 중 거의 반이 다음 해에 돌아오지 못한다. 한 외국인선수는 자신이 첫 해 6개월간이나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지냈다고 말한다.

1981년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당시로는 일본프로야구 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주고 예전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게리 토마손을 영입한다. 연봉은 3년간 120만 달러였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히로시마 카프의 코지 야마모토의 몸값이 일 년에 27만 달러에 불과했다.

야마모토가 44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홈런왕을 향해 달리고 있던 반면, 타율 .261, 홈런 20, 삼진 132개가 토마손의 기록이었다. 자이언츠는 아마도 다른 미국인선수였던 리 스탠튼의 최다삼진 136개 기록을 넘어서는 불명예를 피하게 해주려는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토마손을 시즌 마지막 주에 벤치에서 쉬도록 했다. 냉혹한 일본 언론은 그에게 ‘거인 선풍기’란 별명을 붙이고 그의 이름 중 ‘손’ 부분을 손해나 손실을 뜻하는 損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다음해 방출되고 만다.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일부분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선수들의 태도나 마음가짐이었다. 일본야구에서 타자나 투수부문에 최고기록을 세운 미국인은 거의 없지만, 나쁜 쪽으로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운 미국인은 꽤 많다. 예를 들면, 타자헬멧 부서뜨리기, 게임에서 퇴장당하기, 라커룸 유리창 깨기 등에서 최다기록은 모두 외국인선수가 세운 것이다. 실지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일본의 단체주의가 충돌해 발생한 불상사는 미국인들이 기록한 모든 삼진과 실책을 더한 수보다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출신인 대릴 스펜서도 대부분의 메이저리

그 선수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만의 훈련 스타일을 고집했는데, 그의 훈련량은 팀 동료들의 훈련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정도였다. 어느 날 밤, 그가 별 열의 없는 듯 게임 전 연습을 하고 있는 걸 본 한큐 브레이브즈의 유키오 니시모토 감독은 감독으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감독은 그에게 말했다. “스펜서상, 오늘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쉬어야겠어.”

“쉬어야겠다고니 무슨 말이죠? 스펜서는 소리쳤다. ”현재 팀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치고 있는 선수가 도대체 누구니까?“

“오늘 투수는 상대하기 힘들 것 같아.”

“상대투수 공을 못 친다고요? 저 투수를 상대로 제 타율이 3할4푼이나 되요.”

“오늘 밤은 아냐. 느낌이 그래. 그냥 쉬어.”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스펜서가 라커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장내아나운서가 선발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니시모토는 선발 라인업에 스펜서를 3번타자로 올려놓았지만 그건 1회부터 대타를 투입시킴으로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는 위장전술에 불과했다.

스펜서는 뚫어오르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되고 스피커에서 2번타자를 호명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감독에게 진 빚을 갚기로 결정한다. 반바지에 샤워용 슬리퍼를 걸치고 덕아웃으로 향한 스펜서는 니시모토 감독을 향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배트를 골라들더니 타자 대기석에 나가서는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었다.

스펜서의 등장에 팬들은 즐거워했고, 다음날 모든 신문엔 그의 모습이 실렸다. 물론 니시모토는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펜서를 운동장 밖으로 끌어내고 2백 달러의 벌금을 부가했다. 스펜서는 벌금을 냈다. 하지만 씩 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이 하나도 안 아깝네.”

그러면서 여러 미국선수들이 후에 스펜서의 샤워용 슬리퍼 시위를 따라하게 되었다.

윌리 커크랜드는 미국에서 자이언츠, 인디언즈, 오리올즈, 세네티드 등을 거친 낙천적인 성격으로 동료들에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였다. 어느 날 커크

랜드는 얼마 전 선수에서 선수 겸 코치로 승격한 내야수가 배팅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이봐, 이제 연습할 필요 없잖아.”

커크랜드의 말을, 자기는 이제 팀 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즉, 타석에 설 일이 없으니 훈련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조롱으로 받아들인 그 선수 겸 코치는 커다란 라이트 혹은,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날렸다. 커크랜드는 그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그 내야수는 커크랜드가 자기를 놀림감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리치 웨인블럼의 유머도 일본에서 통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라커룸의 재치꾼으로 알려졌던 웨인블럼은 일본 히로시마 캠프에서는 심판들을 괴롭히며 2년간(1975~76)을 보냈다. 웨인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넓게 스트라이크 존을 잡아주는 심판들 때문에 종종 흥분하곤 했다.

웨인은 친구로부터 심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일본어로 찾아냈다. 웨인블럼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되는 심판들에게 ‘형편없는 한국인’이란 말을 중얼거렸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판들은 이런 웨인의 모욕을 참을 수 없었다. 웨인이 듣기 싫은 말을 중얼거릴 때마다 심판들은 그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결국 웨인이 일본을 떠날 때 “돌아오라 웨인”과 같은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적어도 심판들로부터는.

캘리포니아 엔젤스와 밀워키 브루어즈,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치며 유명세를 탔던 투수였던 라이트는 1976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일본 야구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스로를 테네시 동부 출신의 ‘촌놈’이라 부르던 라이트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시키는데 주저함이 없는 강인한 경쟁자라는 것은 미국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바였다.

물론 자이언츠 구단은 일본에서 그 어떤 팀보다 유명하며, 감독이었던 시게오 나가시마 또한 일본 스포츠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선수시절엔 히로히토 천황이 참석한 첫 프로경기에서 굿바이홈런을 쳐내며 승리를 이끌었던, 일본 프로야구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의 주역을 맡았던 그였다. 나가시마는 팀 동료이자 역시 유명한 선수였던 왕정치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카리스마의 소유자였다.

자이언츠 역시 자칭 국가의 덕목을 수호하는 구단이었다. 일반사람들은 자이언츠의 선수들이 다른 구단의 선수들에 비해 더 품위 있고, 더 좋은 매너를 갖췄으며, 더 잘 훈련받고, 더 공손할 것이라 믿었다. 그들의 와는 어느 팀보다 잘 조율되어 있을 거라고 믿었다.

1977년 초, 자이언츠에서 선수생활을 했던 한 잡지 기자가 이와는 다른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가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도쿄 고라쿠엔구장에 일 년간 출입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내용 중에는 (1) 몇몇 자이언츠 선수들은 다른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2) 나가시마 감독이 그리 좋은 감독이 아니라 생각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다 (3)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젊은 선수들은 특히 토요일 저녁 10시 귀가시간 규정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4) 일부 선수들의 부인들은 선수들의 체력 비축을 이유로 시즌 내내 남편과의 성생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을 반대한다 등이 있었다. 폭로기사 치고는 별 볼일 없는 내용이었으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명성이 더럽혀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이다.

중국계가 조상인 왕정치와 몇 명 안 되지만 비밀로 존재하는 한국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혈통을 이어간다고 여기는 이런 팀에서 라이트 또한 외국인선수로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라이트는 동양계도 아닌 유일한 외국인으로서, 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은 백인의 모습이 일본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했다.

많은 외국인선수들처럼 라이트 역시 일본인들에게는 그네들과는 다른 종류의 인간처럼 보였다. 근육질의 몸에 털이 무성하고 키가 180센티 정도 되는 외국인이 더할 나위 없이 고상하고 세련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이언츠 팬들에게 이기적이고 무례한 듯 보이기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트는 팬들을 경악시키는 일을 벌이고 만다. 시즌 초반, 게임은 1대1 상황에서 6회가 진행 중이었다. 라이트가 첫 두 타자에게 진루를 허용하자 나가시마 감독이 그를 마운드에서 강판시키기 위해 걸어 나갔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투수를 강판시키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나가시마 감독은 라이트가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고,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상 더 이상의 이유는 필요치 않았다.

상황을 파악한 라이트는 폭발했다. 공을 달라는 나가시마 감독의 요청을 무시한 채 잔뜩 화난 얼굴로 마운드를 뛰어 내려오는 모습을 5만여 관중과 토요일

저녁 수백만의 TV 시청자들이 공포에 질린 듯 바라보았다. 벤치에 중간쯤 다다른 라이트는 덕아웃 벽에 공을 던지고는 욕을 하면서 안으로 사라졌다.

안으로 들어온 그는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자기 유니폼을 갈기갈기 찢어서 욕실 안에 내팽개쳤다. 불경스러운 말을 속사포처럼 내뱉던 라이트는 한참 후에야 통역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심한 야구는 본 적이 없어. 이게 자이언츠가 외국인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라면 난 떠날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자이언츠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구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인들이 자이언츠를 부르는 이름인 자랑스러운 *교진*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 누구도 나가시마에게 이렇듯 무례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바로 기자들에 의해 ‘미친’ 라이트가 된 그는 다음날 스포츠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요미우리 사무실로 편지와 전신, 전화가 빗발쳤다. “괘씸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방출시켜야 한다. 추방해라. 총살시켜라. 사지를 잡아당겨 찢어 죽여라.”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요구가 가장 많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가시마 감독만이 냉정을 잃지 않았다. 먼저 그는 이 미국인 선수에게 감독의 행동이 ‘한심한’ 야구가 아닌, 단지 미국과 다른 일본야구 스타일 때문임을 인내를 가지고 설명해주었다.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성난 대중에 맞섰다. 나가시마는 라이트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라이트가 그토록 승리를 원한다는 사실이 반가웠고 다른 일본 선수들도 그런 파이팅 정신을 보여주길 원했다.

일본야구 황태자로부터의 이러한 호의적인 발언은 미친 라이트에 대한 대중의 적개심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구단 프론트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한 외국인이 구단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구단은 차후 라이트를 포함한 외국인 선수들이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을 자격이 되는 선수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즉시 이 규정들을 ‘외국인 십계명’이라 불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1. 감독의 모든 지시사항에 따른다.

2. 감독의 작전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
3. 유니폼을 소중히 다룬다.
4. 덕아웃에서 소리치거나 고함지르지 않으며 라커룸 기물을 파손하지 않는다.
5. 팀 비밀을 다른 외국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6. 팀 동료들을 심하게 놀리지 않는다.
7. 부상이 발생할 경우 팀에서 내려진 조치를 따른다.
8. 시간을 엄수한다.
9. 시즌 중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다.
10. 팀의 화합을 깨지 않는다.

당시 불교에 심취해 있던 윌리 데이비스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데이비스는 일본에 온 미국선수들 중 가장 뛰어난 만능 선수 중 하나였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17년간 활약한 베테랑이며 LA 다저스에서는 주장을 맡기도 했다. 올스타 선수인 그는 한 마리 사슴처럼 뛰어다녔고, 그의 타격과 수비에는 우아함이 깃들어 있었으며, 일본선수는 물론 메이저리그 선수들조차 따라 하기 힘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데이비스는 서른일곱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였지만 -실제로 그는 2년 후 일본을 떠나 미국 캘리포니아 엔젤스에서 핀치히터로 한 시즌을 보낸다- 1977년 일본 진출 기회가 오자 이를 받아들인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돈 때문이 아니라 (미화 십만 달러-그 당시 일본에선 눈이 튀어나올만한 금액), 야구를 위한 결정이었다. 비록 그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데이비스는 시대의 산물이었으며 미국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주는 존재였다. 다른 외국인 선수들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었지만 데이비스는 불교 일련정종(日蓮正宗)파인⁷⁾ 소카 가카이의 독실한 신자였다.

소카 가카이의 발생지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데이비스는 일본이 집과 같은 느

7) 대승불교는 일본에서 니치렌 불교(일련정종)로 자리잡았는데 13세기에 창시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니치렌은 흔히 일연선사로 알려져 있으며 범화경이 불교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무묘법연화경”(남묘호랑개교)를 암송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했다. 니치렌 불교사상과 연관이 있는 평신도들의 운동이 소카 가카이다.

낌일거라 생각했다. 허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종교의 신성한 염불인 남뇨호랭개교를 암송하는 것은 데이비스의 중요한 일과였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염불을 외는데 있어 열심이였으며, 주니치에 입단해서도 염불은 당연히 계속되었다. 아침저녁으로 집, 구단 욕실, 그리고 구단 버스에서도. 염불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녹음기 테이프를 들곤 했다.

데이비스 자신은 염불 소리가 동료들에게도 음악소리처럼 들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른 선수들은 그 소리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다. 팀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와야 할 염불소리에 오히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선수들은 불평해댔다. 읊조리는 사람에게서 내면의 평정을 가져오는 염불 소리가 순식간에 드래곤즈 팀 전체의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선수들이 특히 참기 힘든 것은 라커룸에서의 염불이었다. 데이비스는 항상 게임 시작 전에 염주를 꺼내놓고 염불을 시작한다. “남뇨호랭개교, 남뇨호랭개교, 남뇨호랭개교…….”

당시 감독이었던 하와이계 일본인 윌리 요나미네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그의 염불은 자신이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팀이 승리하고 아무도 부상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마치 불교 장례식에 와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런 염불은 불교 장례식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임이 시작되자 데이비스의 활약은 대단했다, 적어도 시즌 중반까지는 그랬다. 그는 상대투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드래곤즈 타자였으며, 주루플레이에서는 일본선수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만의 천부적인 재능을 선보였다. 하지만 팀은 꼴찌에서 맴돌았다. 주요 선수들은 부상에 시달렸고, 투수진은 기대 이하였다. 팀의 단결(조직력)은 와해되었고, 선수들은 불교신자인 미국인을 탓하기 시작했다.

데이비스가 곧 동료들을 위해 조용해지긴 했지만,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그의 복장에도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 그는 드래곤즈 팀 훈련복이 너무나 마음에 든 나머지 다양한 색의 훈련복을 대여섯 벌이나 만들어 입고 다녔다. 하지만 구단간부는 공공장소에서도 훈련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이를 탐탁찮게 생각했다.

데이비스는 가끔 신발을 벗은 채로 연습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한 번은 훈련 시간에 핫팬츠를 입은 미모의 아내와 나타나 함께 운동장을 뒀 적도 있었다. 이 모습을 본 기자는 너무나도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라 평했으며, 한 선수는 데이비스가 팀 훈련정신을 해치고 있어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다.

몇몇 선수들은 데이비스가 팀에서 특권을 누린다고 불평하면서, 그를 ‘데이비스왕’ 혹은 ‘데이비스, 우리의 소중한 검은 외국인’이라 불렀다.

요나미네 감독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선수들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데이비스가 연봉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훈련을 얼마나 적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게임에서 얼마나 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식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선수는 거의 없었다.

팀의 한 관계자는 데이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데이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스럽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흥분을 잘하죠. 소리도 잘 지르고 제스처도 커요. 영어로 막 떠들어대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마치 누구와 싸우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깐요.”

어느 날 게임 후 데이비스는 자기가 만들어준 찬스에서 득점하지 않은 팀 동료에게 나무라듯이 소리쳤다. “왜 홈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 선수는 팀 주장이었을 뿐 아니라 코치 겸 선수였다. 일본에서 선수가 코치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코치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행동이다.

1977년 8월, 25개의 홈런과 .306의 타율을 기록 중이던 데이비스는 외야펜스에 충돌하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나머지 시즌에서 제외된다. 그러자 팀은 즉시 연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해 마지막 두 달 동안 리그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며 3위로, 그것도 아깝게 2위 자리를 놓치며, 시즌을 마감한다.

감독은 그의 구위가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공을 돌렸지만, 팀 서포터즈나 야구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되살아난 팀의 ‘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다저스 시절 데이비스와 동료였던 짐 르페브르는 데이비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저도 어느 누구만큼 데이비스에 대해 압니다. 변덕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변덕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는 한 팀의 주장이었습니다. 정말 문제 있는 선수라면 한 팀의, 특히 다저스 같은 팀의 주장으로 임명되

지 못합니다. 데이비스 같은 사람과 함께 지내기 힘들다면 야구선수가 되질 말
았어야죠.”

하지만 구단 입장에서, 적어도 드래곤즈 프론트가 볼 때 잘못된 사람은 바로
데이비스였음에 틀림없었다. 구단은 그를 트레이드 시켜버렸다. 드래곤즈 역대
가장 흥미진진한 플레이를 선보였던 데이비스는 침체된 후쿠오카의 크라운 라이
터 라이온즈 팀에서 고생하면서 그가 겪었던 거대하고도 미묘한 ‘와’의 신비한
세계에 대해 곱씹어보았을 것이다.

물론, 일본에 건너온 모든 미국선수들이 팀을 혼란시키고 엉망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 클리트 보이어나 조지 알트먼 같은 선수들은 팀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일본인들 또한 그들을 신중, 절제, 진지, 근면, 성실, 정직 등을
뜻하는 *마지메라* 부르며 좋아했다. 이들은 입을 다물고 감정을 숨긴 채 팀의 모
든 요구사항을 따랐다.

하지만 보이어와 같이 기꺼이 팀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선수들도 상당한 대가
를 치러야만 했다. 양키즈에서 수비의 달인으로 통했던 보이어는 다이요 웨일즈
에서 3시즌동안 꽤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어느덧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향하던 4년차인 1975년, 그는 높은 문화적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전계임을 소화해내기가 힘에 부친다고 생각한 보이어는 3일에 한 번씩 게임
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팀에 요청했다. 두 게임 정도는 타격감이 좋지만 곧 피
곤해지니 하루를 쉬고 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
명이었다.

하지만 보이어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더 많은 훈련이라는 게 구단
의 생각이었다. 트레이너는 보이어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선수들을 따라가기 위
해서는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봉 팔만불짜리 외국인 선수를
3일에 한 번씩 벤치에 쉬게 내버려두면 팬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고민하던 구단
주는 결국 트레이너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내키진 않았지만 보이어는 구단
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체력 유지를 위해 무리한 비타민 주사를 맞아 팔이
푸르죽죽하게 되면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의 타율은 2할3푼에 불과
했고 결국 은퇴해 코치가 되었다. 물론 팀을 위한 그의 순수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짐 르페브르 또한 팀의 모든 규칙에 순종했던 선수였지만 일본야구 사상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당시 롯데 오리온즈의 감독이자 일본의 유일한 400승 투수이며 ‘피칭의 신’으로 불리는 마사이치 카네다는 직접 르페브르를 스카우트했다. 연봉 십만 불의 다년계약을 맺으면서 카네다는 르페브르가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차지할 것이라 예견했다. 하지만 첫 해에 .265의 타율과 홈런 27개를 기록한 르페브르는 다리 부상으로 이듬해 더 초라한 성적을 거둔다.

난처해진 카네다는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르페브르를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든다. 르페브르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자 카네다는 다른 선수들 앞에서 그의 서투른 플레이에 대해 사과를 하더니 그와 비슷한 실수가 또 발생하자 르페브르를 2군으로 강등시켜 버렸다. 3년째에는 그를 시즌 반이나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시키더니 선수에서 은퇴시켜 마이너리그 팀 코치로 ‘승격’시키려고 했다.

르페브르는 논리적인 말로 카네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 “보세요. 감독님은 400승 투수 출신이고, 그건 일본야구에서 최다승기록이지요?”

“물론.” 카네다 감독은 자랑스럽게 답했다.

“감독님은 또 250패도 기록하셨죠, 그렇죠?”

“그래.”

“그것 또한 일본야구 역사상 최다패기록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한데 뭐요? 제 말뜻을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도 안 좋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절 좀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카네다는 계속해서 르페브르를 조여 왔고, 이런 불행한 조건 속에서 5시즌을 견디던 르페브르는 어느 중요한 경기도중 라인업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사건으로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벤치 뒤로 온 그는 덕아웃 벽에다 철썩 소리가 나도록 글러브를 던졌다.

근처에 앉아있던 카네다는 르페브르가 자기를 향해 글러브를 던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두 주먹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나랑 한판 해보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선수생활이 거의 종착역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느끼던 르페브르는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듯이 한 발 앞으로 나

섰다. 코치들이 끼어들고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게임이 끝나자 카네다 감독은 팀의 이 ‘말썽쟁이’ 선수에게 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고 무기한 출장정지 명령을 내렸다.

“중요한 게임이어서 뛰고 싶었지요. 그런데 더 열 받는 건 카네다가 나를 게임에서 빼는 방법이었지요. 내가 내야에서 몸을 다 풀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가와서는 나가라고 손으로 신호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하지만 감독을 향해서 글러브를 던지진 않았어요. 거리가 일 미터 이상이나 됐었잖아요.”

하지만 카네다는 르페브르의 변명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가 이 외국인선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팀 내 다른 선수들은 뻔한 일이었다. ‘피칭의 황제’가 그런 행동을 눈감아주듯이 보았다면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개인면담 요청을 거절당한 르페브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외부에 알렸다. 물론 그는 그 때 흥분했었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만, 글러브를 던졌던 문제는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기본적인 벌금액인 오만 엔은 괜찮지만 만 불이라는 터무니없는 벌금을 낼 순 없었다. 카네다 감독은 르페브르가 타격 3관왕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쫓아대려 했을까. 아니면 팀이 잘 안돌아가는 것에 대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것일까. 그도 아니면 이번이 외국인선수를 길들이기에 좋은 기회라고 여겼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르페브르는 아니었던 것이다.

르페브르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항한다는 것을 들은 카네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르페브르가 롯데 오리온즈의 유니폼을 입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코치들과 직원들이 이런 불화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던 몇 주 동안 르페브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한번은, 몰래 벌금을 면제해주고 르페브르가 낸 것처럼 발표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 카네다 감독이나 팬들만 모르게 진행한다면 감독의 자존심이나 구겨진 이미지도 살아나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르페브르는 이를 거절했다. 그도 신경써야 할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르페브르는 미국에 있는 고위관계자에게 호소했고, 그 관계자가 카네다 감독에게 전화를 한

후 벌금은 바로 취소되었다. 결국 르페브르는 다시 유니폼을 입고 그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시즌이었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일본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다. 1962년, 돈 뉴콤과 래리 도비가 메이저리그 은퇴 선수로는 처음으로 일본야구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거의 매년 외국인선수와 관련된 사건들이 물의를 일으켜왔다.

일본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에 서로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출신의 크리스 아놀드는 1978년 긴테츠 버팔로즈에 입단하자마자 팀의 감독이었던 유키오 니시모토와 싸우게 된다. 당시 브레이브즈에서 막 옮겨온 니시모토는 거친 미국인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때는 4월 초, 게임이 8회에 접어들었을 때 2루수였던 아놀드가 실책을 저지르자 니시모토는 팬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본감독들이 습관적으로 하듯이, 아놀드를 바로 교체시켜버렸다. 그것은 스탠드에 있던 관중들의 ‘와’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감정적인 성격의 아놀드는 격앙해서 벤치로 들어가길 거부하며 니시모토 감독의 발아래에다 글러브를 내동댕이쳤다.

“난 메이저리그 선수란 말이야.” 그는 모든 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마.” 통역사가 달려와 더 이상의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를 달래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연습시간에 대결의 제2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배팅 케이지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아놀드에게 감독이 다가왔다. 순식간에 주위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둘을 바라보았다.

“유(You), 안 좋아 내 감독스타일?” 니시모토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물었다.

“아뇨, 그게 아니에요.” 아놀드는 붉어진 얼굴로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대답했다. “전 단지 수많은 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교체되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랬어요. 질 교체하는 건 감독님 권한이지만 이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실 수는 없었나요?”

니시모토는 아놀드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말했다. “유, 안 좋아 내 감독스타일?”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아놀드가 다시 대답한다. “그게 아니고요, 아직 일본 야구스타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수를 한 내 자신에게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안타도 3개나 쳤는데 그렇게 교체시켜버리다니요. 화나는 게 당연하지요.”

니시모토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다. “유, 안 좋아 내 감독스타일?” 그는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물었다.

그 순간 아놀드는 니시모토 감독이 자기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급히 통역사를 부른 아놀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나서, 이번에는 그가 겨우 알고 있던 일본말로 사과를 더했다. “도모 스미마센.”

이 말에 니시모토는 갑자기 홉 돌아서더니 운동장을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모든 코치들이 그의 뒤를 따라 나갔고 심지어 배팅볼 투수도 따라 나가면서 이제 아놀드는 운동장에 홀로 남았다. 당황스러움과 노여움 속에서 혼란스럽고, 솔직히 상당히 겁도 난 아놀드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다음날 아놀드가 버펄로 라커룸에 도착하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도 그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호출을 받아 감독 사무실로 가면서 방출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방출은 아니었다. 대신, 니시모토 감독은 통역을 통해서 일본에서 외국인이 살아가야 할 방식, 아니면 적어도 자기가 이끄는 팀에서 외국인선수로서 지내야 할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이봐, 아놀드. 내가 경기 중에 미국인들을 끌어 내릴 수 있는 파워, 다시 말해서 미국 선수들이 화를 내도 내가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면 말이지 다른 선수들은 다 따라오게 돼있어. 내가 어제도 그제도 너에게 했던 행동은 다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놀드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이 나왔다. “내 감정은 어떡하고요? 저도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다.”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네.”

아놀드는 할 말이 없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안으로 억누르고 니시

모토의 파워에 고개 숙였다. 앞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컨트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락커룸의 냉랭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3년간 아놀드가 감독에게 소리 지르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니시모토 역시 그에 맞춰 행동을 조심스레 했다. 아놀드를 게임에서 교체시킬 때면 외국인선수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태도를 취해주었다. 힘든 방법을 통하기 했지만,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에 상호이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다.

일본 팀 프런트들은 당연히 외국인선수들과의 이런 갈등에 지쳐가면서 미국 선수들을 고르는데 있어 점점 더 신중을 기하고자 노력했다. 1870년대 후반에는 성격 검증이 선수 선발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고, 성깔이 있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일본 시스템에 맞추고자 노력한 선수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즈와 뉴욕 메츠에서 2루수였던 펠릭스 밀란이 그런 선수들 중 하나였는데, 그는 예의범절이 확실한 선수였다. 첫 해 .287의 타율을 기록한 후, 1979년 두 번째 시즌을 위해 일본에 들어온 펠릭스는 자신의 방식대로 훈련해도 좋다는 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시즌 준비를 위한 훈련캠프에서 일본선수들과 모든 생활을 함께 했다. 개막전에서 벤치를 지킨 그는 수줍은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앉아서 게임에 집중했다. 일주일 후 게임에 출장한 그는 4타수 4안타를 기록하면서 자리를 꿰차더니 결국은 .346의 타율로 타격왕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키즈 출신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1980년부터 82년까지 활약한 로이 화이트가 있는데, 그는 요나미네에 이어 자이언츠 OB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단 두 명의 외국인선수 중 한 명이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운동장에서의 믿음직한 플레이뿐 아니라 그의 조용하고 겸손한 성격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298의 타율과 29 홈런을 기록한 1980년이 그의 전성기였다.

그는 번트사인이 나왔다고 흥분해서 혈압이 오르는 선수가 아니었다. 게임에서 갑자기 교체되었다고 락커룸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도 하지 않았다. 첫 해 요코하마에서 웨일즈와의 경기가 중반에 접어들 쯤 이었다. 화이트는 번트사인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처리했고, 자이언츠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스쿼즈 플레이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기쁜 듯이 말을 잇는다. “제가 양키

즈에서 뛰었던 메이저리그 선수라고해서 나가시마 감독이 저에게 맞춰서 작전을 펴야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화이트의 이런 비위를 맞출 줄 아는 발언은 자이언츠 팬들의 귀에는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렸다. “전 미키 맨틀이나 로저 마리스같은 선수들과 함께 뛰어도 봤고 월드시리즈 우승도 경험했습니다. 이젠 시게오 나가시마 감독 밑에서 왕정치와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승을 일구어내는 것도 대단한 업적이 될 겁니다.”

바로 다음해 그 말은 진실로 다가왔다. 화이트는 일본시리즈 2차전에서 8회 극적인 홈런을 터뜨린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 화이트는 단 한 번도 심판이나 동료, 상대방 선수에게 조차, 심지어 위협구에 넘어졌을 때도 언성을 높인 일이 없다. 일본인들은 그가 진짜 미국인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화이트에게 홀딱 반한 도쿄의 한 스포츠기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화이트가 일본인이 아니란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랬다면 일본에 평생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의 바른 선수였던 레론 리와, 비슷한 성격의 동생 레온 리도 좋은 외국인 명단에 들어간다. 실망감을 감추는 듯한 표정으로 오랜 경력의 야구기자가 말했다. “잘못된 점이랄곤 전혀 없는 선수들이었죠. 게임에서도 잘했어요. 한 번도 심판과 다투지 않았고 방망이를 던진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팬들에게도 친절했죠. 서로를 좋아하기까지 하더군요.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요.”

레온은 외교활동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한 선수였다. 그는 처음 일본에 오는 미국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곤 했다.

될 수 있는 한, 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때, 겸손하게 행동하라.
잘난 체 행동하고 다니면 예상 못한 큰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그대가 팀플레이어인지 아닌지 감독이 테스트해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감독은 그대가 건방진 행동을 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라는 의도로 게임에서 갑자기 교체를 시킨다든지, 번트를 시킬 것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화내지 마라. 동료의 실수 때문인데도 내가 대신 책임을 추궁당한 적이 있다. 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그것으로 모든

일은 조용히 해결되었다. 나의 행동은 팀 동료들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 해에, 기자나 감독이 주위에 있을 때마다 타격코치가 내게 방망이를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가르쳐주려고 노력하곤 했다. 난 내 스타일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그 코치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 “내가 말 하는 거 듣지 않아도 돼. 그저 듣는 시늉만 해. 나도 내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거든.”

일본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므로 코치들이 뭔가 가르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라.

일본인들은 근면하고 화목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울하고 냉소적이기도 한데, 이는 수세기에 걸친 지진, 태풍, 그리고 나라를 황폐하게 했던 최근의 전쟁 때문인 듯하다. 어떤 면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의심이 많거나 회의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다. *다테마에*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말인 반면에, *혼네*는 진실된 감정을 뜻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이중성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특히 사회의 조화를 중시하고 대결을 혐오하는 일본인들은 *다테마에*를 위해 *호네*를 억제하는 고상한 방법을 개발해왔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테마에*를, 더구나 외국인들의 지나친 공손함을 의심하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 하겠다. 화이트 같은 외국인이 일본을 너무나 좋아한다고 말하면 일본인들은 기뻐하면서도 불신하는 두 개의 반응을 동시에 나타냈다.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라는 외국인의 말이 많은 일본인들의 귀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견디기 힘든 곳이지만 돈은 많이 줘요,’라는 말로 해석되어 들리는 것이다. 그들은 외국인들의 점잖은 행동은 내면에 숨어있는 본성을 숨기기 위한 외면만의 모습일거라 의심했다.

“모두 연기일 뿐이야.” 화이트와 리 형제를 담당했던 기자는 말한다. “*가이*

진들이 일본에 오는 이유는 더 이상 미국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야. 일본에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돈이야.” 그의 의심은 이어진다. “달려 하라, 미국 경기침체 때문이 틀림없어. 일본이 돈을 많이 주니까 계속 돈 벌려고 오는 것일 뿐이야.” 글썄, 만약 어떤 외국인이 자기가 일본에 온 이유가 오로지 돈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일본 언론들은 좋아할까 아니면 바로 의분하여 그를 공격할까.

진실을 말하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미국인들은 일본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많은 미국인들은 도시에 북적대는 사람들과 눈물을 쏟게 만드는 공해, 도처에 뻗어있는 송전선, 그리고 일본의 모든 것들이 작다는 사실을 싫어했다. 덩치가 큰 일부 선수들은 카페에서 편히 앉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동경이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가 제공하는 즐거움은 선수들을 유혹했다. 많은 나이트클럽과 바, 그리고 예쁘고 잘 차려입은 여자들, 특히 미국 여자들보다 더욱 부드러운 여성성 등은. (한 달간 일본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조니 벤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여자들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믿기 힘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일본인들은 전체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일본은 안전한 나라이다. 밀란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야! 우리 동네엔 살인사건이 안 일어난다니까.”

하지만 일본야구 얘기만 나오면 모든 미국선수들이 싫어하는 점은 모두 같았다. 한잔 하기위해 모인 선수들은 쉴 새 없이 불평하면서 우는 소리를 해댔다. 코치나 기자들이 항상 폼과 파이팅정신, 그리고 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조용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선수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단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괜찮게 생각했지만 일대일로 마주할 때는 문제가 달라졌다. 미국인은 일본인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일본인의 하루를 망칠 수 있었다. 모든 면에서 서로가 달랐다. 미국인들은 생동감 있고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론 시끄럽고 노골적이며 독단적이고 너무 허물이 없으며 불편할 정도로 민주적이었다.

태생적으로 양국의 문화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생선초밥과 스테이크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까.

1980년대 초에 일본 언론은 외국인(外國人)의 外를 발음이 비슷한 해(害)로 바꾸어 害人, 즉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일부 편집인들이 주장한대로, 스포츠신문들은 害人에 대한 기사를 1면에 실으면서 판매부수 증가를 노렸다. 실제로 한 석간신문 편집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솔직히 외국인선수 기사를 쓸 때는 부정적이거나 논란이 되는 얘기가 긍정적이고 좋은 기사를 썼을 때보다 더 잘 팔립니다.”

그러면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1980년 6월, 홈런왕 타이틀을 노리던 36살의 척 매뉴얼은 버지니아에 있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문에 1주 휴가를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난리를 쳐댔다. 이런 식의 행동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해야 할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버젓이 있는데 그 곳을 맘대로 떠날 수 있다니. 직장에서도 야구장에서도 일본인들에겐 항상 일이 최우선이었다.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미국인 야구선수들은 그저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미국인 근로자일 뿐으로, 그들은 나태하고 무관심하며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미국에서 일 년 간 지낸 경험이 있는 한 일본인 기자는 스포츠 니폰지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적이 거의 없으며 계속해서 불평을 해댄다. 업무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자기 일만 후딱 해놓고 귀가하는 것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런 비평에 대해 매뉴얼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야구는 항상 할 수 있지만, 내 아들 졸업식은 일생에 한 번뿐이거든요.”

다음 해, 올해의 악동상은 전 컵스와 캔사스 시티 로열즈 선수였던 라콕에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다이요 웨일즈 팀이 2년 계약으로 지불하는 팔십만 달러의 연봉 가치가 없는 선수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말았다.

그런데다 라콕이 실수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독은 분노했다. “라콕은 늘 변명을 해. 한 번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적이 없어.”

희생번트 작전을 실패한 라콕은 벤치로 돌아와 헬멧을 던지고 재떨이를 차버렸다. 그리고는, 주니치 스포츠의 기사에 따르면, ‘그의 입에서는 비속어가 쏟아져 나왔고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분명 영어로 fxxxing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었으며 이는 틀림없이 감독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라콕도 다른 미국선수들처럼 자신이 심판 판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평을 했다. 한번은 삼진을 당하자 방망이를 심판에게 건네주며 어차피 배트를 휘두르지도 못하게 하니 당신이 아예 가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웨일즈 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라콕은, 시합 전 연습시간에 상대팀인 요미우리 라커에 들어가 케리 톰슨이라는 외국인선수와 잡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이런 저런 행동들과 더불어 .273의 타율과 10개의 홈런이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인해 웨일즈는 남은 계약기간 연봉을 지불해야하는 피해를 보면서까지 시즌 후 그를 방출시켜버렸다.

1984년은 미국인들과 일본인들 모두에게 있어 가장 암담하고 끔찍했던 한 해로 기억된다.

그 해, 세 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두둑한 연봉을 마다하고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 짐 트레이시가 그 중 한 명으로, 게임에서 자기를 갑자기 빼버린 것에 대한 항의로 뛰쳐나갔다. 한 때 밀워키의 스타선수였던 돈 머니는 일본에서 사월 한 달 동안 8개의 홈런을 몰아치기도 했지만 아파트나 팀에서 사용하는 낡은 시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팀을 떠나버렸다. 그는 버팔로 팀의 라커를 폭탄 맞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마지막으로 머니의 동료였던 리치 듀란은 젊은 선수로 첫 두 달간 12개의 홈런을 치더니 머니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팀을 떠났다. 코치들이 시키는 힘든 운동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본인들은 그도 역시 여느 미국인들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했다.

언론들은 이런 악마 같은 외국인들에 대해 공공연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니칸 스포츠의 한 기자는 이런 행동들이 유전자 때문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가 쓴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앵글로색슨족으로 자만심이 넘치나며……히틀러는 차치하고, 역사 속 인물들을 볼 때 자기가 선택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범프 윌스의 일본에서의 실패는 커져가던 반미감정에 불을 지폈다. 한 때 올스타 2루수였던 서른 살의 윌스는 1983년 한큐 브레이브즈와 4년간 160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첫 해부터 감독인 도시하루 우에다와 논쟁을 벌이곤 하더니 이듬해 중반쯤에는 마이너리그에서 2할의 타율로 벤치를 지키며 방출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 해, 윌스의 미국인 동료였던 그레고리 ‘부머’ 윌스가 타격3관왕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적을 달성한 첫 번째 미국인이자 일본야구 역사상 5명 중 한명), 악감정이 너무 심했던 구단주들은 향후 5년 내에 일본야구에서 외국인선수들을 없애기로 가결한다.

결국 이 결정은 위원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일본인들이 얼마나 *가이진들* 때문에 힘들어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며, 이때가 미국과 일본의 야구 관계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미국 선수들이 욕심이 많고 파이팅 정신이 부족하다는 일본의 비난이 이어졌다. 센트럴리그 관계자인 료이치 시바사와는 일부 팀의 외국인선수는 사보타주라 불릴만한 행동을 한다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스타들에게 제공되는 높은 연봉이 자국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선수들은 여러 상황을 참작해야 할 것이라 말한다. 트레이시는 감독이 겸손함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유독 자기만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한다. 트레이시는 .303의 타율과 19개의 홈런을 기록하고도 다음 시즌에는 3번에서 6번으로 타순이 밀렸는데, 파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레이시의 불평이 이어진다. “타율 .260에 홈런 40개를 치면 이번엔 타율이 낮다고 할걸요. 어떻게든 제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일본에 올 마음이 별로 없었던 머니의 경우는 좀 달랐다.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37살의 머니는 뉴저지에 있는 농장생활

을 위해 은퇴를 준비 중이었으며, 더군다나 허리가 좋지 않아 야구를 계속하기엔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았다. 하지만 이년간 90만 달러의 연봉과 메이저리그 급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버팔로 긴테츠 구단의 제의를 거절하진 못했던 것이다.

머니는 미국에서도 TV를 통해 일본야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열광적인 관중들로 가득 찬 도쿄나 요코하마의 현대식 야구장에서 열린 게임들이었다. 하지만 잔디도 깔리지 않은 내야와 전쟁 전에 만들어진 전광판이 있는 긴테츠 홈구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버펄로즈 경기에는 드문드문 관중석이 비는 일이 허다하다는 사실도 몰랐었다. 아무도 그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았다.

훗날 머니가 밝힌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긴테츠 구단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에 관한 책자를 보내왔어요. 그림에 나와 있는 아파트는 훌륭했고 나무들로 둘러싸여있었죠. 괜 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본 아파트는 빌딩 숲에 쌓여있는 거예요. 주위에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 말입니다.

처음 그곳을 보았을 때 그냥 다시 내려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요.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비슷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벽은 더럽고 양탄자는 얼룩이 저 있었죠. 천장은 한 십년동안 페인트칠을 안 한 것 같고, 난방시설도 없었어요. 부엌은 오래되고 지저분한데다 바닥은 누런색으로 변해있죠. 벽지는 너털대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대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모든 시설들이 일본 기준에 맞춰 제작되어서 접시가 안 들어갈 정도로 찬장은 작고, 오븐도 제 아내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다른 미국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숙소는 우리 집에 비하면 고급 맨션이나 다름없었다니까요. 이걸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고 보니 그 건물이 긴테츠 철도 소속이었는데, 어떻게 저보고 수리비의 반을 지불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경기장을 가고 오는 데만 편도로 한 시간 반은 걸리는데다, 기차는 늘 사람들로 붐비죠. 배트와 장비 가방을 들고 가는데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지치더군요. 봄이 됐는데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게임은

여섯시에 시작하는데 한시면 집을 나서야 돼요. 게임 전 연습이 미국에 비해서 약 한 시간 반 정도 길고, 게임을 오래 끝기 때문에 집에는 밤 열한시나 돼야 오죠.

게임이 끝나도 미국에서처럼 라커룸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쉬질 못하고, 게임 결과에 상관없이 한 십오 분 지나면 모두들 사라져요.

라커룸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죠. 샤워기 두 대에다 일본식 탕 하나가 전부인데, 그나마 샤워기가 고장나있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라커룸은 왜 그리 지저분한지 바닥엔 온갖 것들이 널려있고. 화장실도 시설이 맘에 안 들었는데 소변을 보다보면 옆에 웬 여자가 지나갈 정도였다니까요. 십오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하다 보니 일본의 이런 모든 것에 쉽게 익숙해 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보니 가족 전체가 행복하질 못했죠. 결국은 은퇴 얘기를 꺼냈더니 구단의 태도가 바로 변하더군요. 새 아파트를 주마, 구장까지 기사가 달린 차를 제공해주마, 연봉을 인상시켜주마 등등.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제가 좀 나이가 어린 마이너리그 선수였다면 아마도 모든 것을 참고 지냈을지 모릅니다. 애초에 가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는 그 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해주는 일본사람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왜 자기 돈으로 새 아파트를 구하지 않느냐(일본의 합법적인 강탈제도인 보증금으로 머니는 만불을 지불했으며 한 달에 삼천불씩 또 지불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놈의 헬리콥터라도 빌려 타고 구장엘 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이었다. 아내와 아이들이 신경 쓰였다면 고향에 가족을 보내고 머니는 남아서 계약대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어야 했다는 게 일본인들의 생각이었고, 또 일본인들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한 동료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어찌면 머니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듀란도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 누가 결과를 알 수 있으랴마는.

범프 윌스는 한큐 브레이브즈의 토시하루 우에다 감독에게 직접 스카웃되었지만 그로 인해 더욱 역경에 처하게 된다. 우에다는 정규시즌 우승 5회와 일본

시리즈 3회를 이끈 일본에서 가장 터프한 감독 중 한사람이다. 그는 선수들을 마치 조폭 출신의 중죄인처럼 취급했다.

동계훈련 기간이 되면 그는 메가폰을 잡고 운동장 가운데 서서는 선수들을 닦달했다. 훈련시간에 십분 늦었던 투수는 하루 종일 폴투폴(pole to pole, 외야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을 뛰어야 했고, 청백전 경기에서 공을 떨어뜨렸던 포수는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걷어차였다. 물론 다음날 신문에는 우에다 감독의 정확한 발길질 사진이 여지없이 실렸다.

1988년 동계훈련 시에는 젊은 선수 한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되었는데, 우에다 감독은 그에게 백만 엔의 벌금을 매기고 2군으로 강등시킨 후 운동장에 있는 숙소에서 3주 동안 외부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에다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가 그동안 선수들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수 사생활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에다는 범프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범프의 아버지인 마우리는 유명한 코치로, 우에다는 동계훈련에서 그를 고용해서 함께 일한 적이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범프는 우에다가 생각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성격을 모두 알고 있던 레론 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범프가 우에다와 잘 지내지 못할 거라는 건 분명했어요. 한큐 팀이 범프와 사인하기 전에 조금만 조사해봤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범프는 매우 충동적인 성격이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을 해버리는 성격이지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메이저리그에 올라갈 때까지 26년이나 걸린 거 아닙니까. 이나오 감독 같이 원만한 성격이라면 몰라도 우에다 감독은 확실히 아니었죠.

우에다 감독은 수차례에 걸쳐 범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했고, 범프는 자신이 팀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았다. “감독이 제게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대는 거예요. 저를 무슨 표적삼아 본때를 보여주자고 작심

한 것 같았어요.”

우에다 감독과 사카에 오카다 구단사장은 범프가 많은 홈런을 쳐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단지 범프가 한 때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사실 범프는 홈런타자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에 데뷔한 1977년에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1번 타자로 활약할 당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타율 .287과 홈런 9개 그리고 타점 57개를 기록했었다.

범프는 도루하는 것도 좋아해서 빅리그에서 한 시즌에 52개의 도루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큐 브레이브즈에는 이미 1번 타자와 도루를 할 수 있는 유타카 후쿠모토가 있었으며, 그는 도루 113개로(130게임에서) 한시즌 도루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통산 .292의 타율을 기록한 선수였다. 팀에서 몇 달간을 보낸 후 범프는 후쿠모토를 능가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말한다. “팀에서 그 선수 말고는 도루를 아무도 안 해요.”

결국 범프는 5번, 6번 혹은 7번 타순에 들어갔고 첫 해에 .260 타율과 15 홈런을 기록했는데, 우에다는 이에 당황하는 눈치였다. 2년차 시즌이 되면서 상황은 악화된다. 오월의 어느 날 게임, 범프는 투볼 노스트라이크에서 사인을 잘못 보고 헛스윙을 해버렸다. 우에다는 화를 내며 범프를 바로 라인업에서 빼버렸다.

범프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상황에 기다리라는 사인을 내는 감독이 있겠냐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우에다 감독은 범프가 고의적으로 사인을 미스했다고 믿었다.

“둘 중에 누가 팀을 나가는지 두고 보자.”

결국 월스는 벤치 신세가 되었고 2군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리고는 시즌이 끝나자 구단은 남은 2년 연봉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를 방출시킨다.

브레이브즈 구단사장인 오카다는 이런 미국인 선수들에게 환멸을 느낀다며 타임紙의 닐 그로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친구들은 미국의 관습과 규정에 따라서 플레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일본인들은 미국선수들과는 끝을 내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부드러운 말투와 금발머리의 오클랜드 출신 랜디 배스는 짧은 기간이나마 일본에서 미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킨 선수였다. 배스는 메이저리그 5개 팀

을 거친 1루수로서, 1985년 일본 센트럴리그에서 타격 3관왕을 차지했다. 그는 오사카의 한신 타이거즈를 21년 만에 페넌트레이스 우승으로 이끌었고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일본시리즈를 제패하는데 일조했으며, 팀은 2백6십만 명 이상을 끌어 모으며 역대최다관중 기록을 세웠다.

베스는 한동안 외국인선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국민영웅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한신 타이거즈 응원단은 *카미사마-호토케사마-배수사마*란 구호를 외쳐댔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신-부처-배스”란 뜻이다. 일본 전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무언가하는 마케팅 조사에서는 그의 갈색을 띤 금발 수염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질렛 저팬은 그가 TV광고에서 수염을 깎는 조건으로 2십만 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곧 제자리를 찾게 되어있다. 1986년 모든 선수들이 두 달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3월 말이 되었는데도 부머 웰스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웰스는 아내가 막 출산을 했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일본에서는 출생이나 장례, 혹은 어떤 이유라도 직장을 빼먹을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한 소리였을 게다. (1984년 시즌 중반에 베스도 아버지 임종에 맞춰 일본을 잠시 떠나야 했는데, 구단 허락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비난은 매우 거셌으며, 다음달 9월에 아버지의 사망에도 한 이닝도 결장하지 않은 왕정치의 행동과 많은 비교를 당했다.) 브레이브즈의 오카다 사장은 이런 못된 행동들이 팀의 분위기를 너무나 망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 팀 선수들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그리고, “광란의 베네수엘라인”이라 불렸던 루이스 산체스도 있었다. 요미우리 구원투수였던 그는 자신의 폼을 바꾸려는 무추노 미나가와 투수코치와 자주 다툼을 벌였는데, 한번은 훈련 중에 배팅 케이지에 타자 역할을 위해 서있던 미나가와를 향해 공을 던지기도 했고, 언젠가는 기자들에게 미나가와 코치가 멍청하다는 말을 했다가 구단에 의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이밖에도 산체스는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는데, 다이요 웨일즈와의 경기 중 공을 던져 상대팀 외야수 가토의 다리를 맞춰버린 것이었다. 영어를 거의 모르는 가토였지만 동료 외국인 선수들로부터 주워들었던 영어 욕이 튀어나왔다.

“개XX!”

산체스 역시 영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가토가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타자가 투수에게 달려드는 게 보통인데, 반대로 투수인 산체스가 홈플레이트로 내달려오는 것이었다. 이정도면 가토의 영어가 외국인에게 충분히 의사소통될 만큼 발음이 좋았던 건 확실했나보다. 심판과 포수가 말리면서 간신히 주먹다툼은 면할 수 있었다.

아마 외국선수가 일본선수를 때리는 것만큼 팀의 와를 해치는 행위도 없을 것이다. 몸에 맞는 볼 때문에 미국인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일이야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좀 더 교양 있는 행동을 취해야 했다. 다시 말해 뒤로 물러나며 피하는 것이 일본식이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공을 피하는 능력도 야구의 기본기술로 여겨진다. 설사 공에 맞아도 화낼 이유가 전혀 없는데, 빨리 뒤로 피하지 못한 타자의 잘못 또한 크다는 이유도 있거니와, 더욱이 싸우다가 퇴장이라도 당하는 날엔 팀에 누를 끼치기 때문이다.

일본선수들은 사치오 키누가사의 행동을 따르도록 배워왔는데, 그는 볼에 맞아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미소를 띠며 투수에게 괜찮다는 동작을 취하곤 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방식이며, 일본식의 멋있는 행동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대응방식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행동이므로, 일본에서는 매년 빈볼과 관련해 외국선수들과의 마찰이 있어왔다.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가 머니를 대신해 버팔로즈 구단에 입단한 전 밀워키 브루어즈 소속으로 쉽게 흥분하는 성격을 지녔던 딕 데이비스였다. 데이비스는 새롭게 보수된 구단 시설에 대한 불만도 없었고 숙소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세이부 라이온즈의 성깔있는 투수였던 오사무 히가시오와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사무는 17년 동안 150개의 死구로 일본역대死구기록 보유자이다.

어느 따사로운 유월의 저녁, 세이부 구장에서 사건은 발생했다. 히가시오의 안쪽 직구에 팔꿈치를 맞은 데이비스는 화를 내며 마운드로 달려들더니 히가시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고, 히가시오의 턱은 부어오르고 눈은 거의 뜰 수가 없게 되었다.

일본의 스포츠 언론들은 마치 복수심에 불타는 소림사 중들처럼 데이비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용서할 수 없다!” 한 신문의 헤드라인이었다. 일본야구의

대부로 불리는 테츠하루 카와카미는 데이비스의 행동은 국가적 모욕이라 평하면서 니칸 스포츠 칼럼을 통해 분노를 표했다. “이곳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외국인들은 우리의 관습에 따라야 한다. 야구장은 신성한 장소이며 이곳에서의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데이비스는 일본과 일본국민을 우습게보고 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전후 일본에서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가 모두 84명에 달하며, 이 중 63명이 일본인이란 사실을 카와카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또한 그 중 대부분이 심판과의 다툼에서 퇴장 당했으며, 카와카미 자신도 그 중 한사람이었다.

사실 야구장 폭력 사건 중 가장 심했던 사건을 꼽으라면 1983년 9월 요코하마에서 열린 다이요 웨일즈와 한신 타이거즈 경기를 들 수 있다. 전국의 시청자가 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게임에서 두 명의 한신 코치가 심판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중 한명은 심지어 심판의 중요한 부분을 걷어차는 바람에 불쌍한 심판의 상체가 폭 가라앉는 장면도 있었다. 후에 이 두 사람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시즌 종료까지 출전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날의 사건에 대해 다시 언급하기를 꺼려했다. 일본인들의 어두운 면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외국인들을 기사거리로 다루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일인 것이다.

야구선수에서 작가로 성공적인 변신을 거둔 타케노리 에모토는 이렇게 말한다. “대체로 외국선수들을 가십거리로 고르는 것이 더 쉽다고 봐야겠지요. 일본말을 못하니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게다가 외국선수들은 시즌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우리 일본인들은 서로 얼굴 마주치면서 계속 같이 지내야하지 않습니까?”

히가시오에게 손을 댄 대가로 데이비스는 10일 게임출장정지를 당하고 십만 엔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내가 후회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히가시오가 그날 게임을 계속 땔 수 있었다는 점이다. 조금 더 세계 때렸으면 게임을 못 뛰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1987년에는 워렌 크로마티가 주니치 드래곤즈의 투수인 미야시토에게 주먹을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에게도 10일 출장정지와 10만 엔의 벌금이 매겨졌다. 평론가인 쿠니카즈 오가와와 말을 들어보자.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향해 볼을 던지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구장에서 선수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더더욱 금지되어야 한다. 일본야구의 수준에 미달되는 이런 행동에 대해 크로마티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때 오가와가 사용했던 *치테키*란 단어는 나카소네 前 일본수상이 몇 달 전 소견발표에서 미국인들의 낮은 지식수준을 언급하면서 사용했던 말이었다.

현재 일본은 매우 교육수준이 높고 상당한 지식 사회로서, 평균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꽤 많은 흑인들과 푸에르토리코인, 그리고 멕시코인 등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치테키*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에는 심지어 지금도 글을 모르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팀의 *와*를 훼손하는 악역을 맡았던 미국인들의 역할은 1988년 6월 긴테츠의 데이비스가 해시시(마약의 일종) 소지로 체포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마약과 관련해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일본에서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의 체포 소식은 그가 히가오시를 공격하는 장면과 함께 번갈아 TV에 방송되었는데, 마치 두 사건에 커다란 연관성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듯했다. 대마초에 익숙지 않았던 일본인들은 그저 그의 ‘욱하는 성격’이 ‘마약중독’ 때문일 것이라 여길 뿐이었다.)

데이비스는 경찰이 찾아낸 것이 불법 마약인지 몰랐다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부상 부위에 좋이라며 친구가 준 ‘진통제’로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20일간의 구치소생활 후에 석방되고는 추방당하고 만다. 일본 언론은 데이비스가 대마초 흡연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고 발표한 반면 영어로 된 신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사실이 어쨌든 120시간 동안 그를 취조했던 경찰은 기소할만한 사건이 아니라 판단하고 그를 석방했던 것이다.

데이비스가 떠난 후, 고베의 한 경찰관은 데이비스처럼 완강하고 고집불통인

용의자는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의 눈으로 본 데이비스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파이팅 정신이 부족한 선수였다고는 감히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5. 응원단

로코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 높이 태양이 빛난다
젊음의 열정은 아름다워라. 아, 명예로운 한신 타이거즈
오~ 오~ 오~ 한신 타이거즈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만세

“한신 타이거즈 송” 중에서
작사 쇼노스케 사토

불규칙하게 뻗어나가는 산업지대인 오사카 외곽, 로코산 밑에 오래되고 담쟁이덩굴로 덮인 건물이 하나 서있다. 코시엔 구장, 반세기에 걸쳐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되어온 곳이다.

타이거즈의 홈경기가 열리는 날 3시가 되면 외야의 문이 열리고 낮익은 의식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타이거즈 응원단 자리인 우익수와 센터 좌석들은 대략 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물결을 이루기 시작한다. 관중마다 손에는 구장 밖에서 판매하는 타이거즈 응원용품이 하나씩 들려있다. 천 엔 정도 하는 호피 코트, 모자, 메가폰 등의 응원도구는 타이거즈를 나타내는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되어있다.

관중 속에서 호랑이 꼬리를 달고 수염을 붙인 젊은 여성들도 많이 눈에 띈다. 머리에 노랑고 까만 염색을 한 사람들도 있다. 몇몇 팬들은 중국의 호랑이 캐릭터인 토라처럼 머리를 밀어버리기도 했고, 한두 사람은 미국국기를 들고 있다.

또한 특이한 머리띠나 휘장으로 치장한, 열광적인 응원단임을 보여주는 몇몇 단체나 협회들도 보인다. 그들은 “사랑해요 코시엔 클럽”이나 “타이거 열렬 응원단”, “교토 타이거 협회”, “우익수좌석 응원클럽”, 혹은 “토라, 토라, 토라”와 같은 구호들을 달고 있다.

게임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두 시간이나 남아있지만 관중들은 이미 복도까지 넘쳐나고, 구장에 도착한 치어리더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맨 앞줄에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구장에 오기 전에 타이거즈의 골수 팬 중 한명이 소유한 슈퍼마켓

안에 차려진 타이거즈 사당에 들러 팀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드린다.

눈이 반짝이는 한 한 남자가 무거운 응원 깃발을 흔들며대느라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타이거 맥주 캔을 짠다. 아사히에서 만드는 이 맥주 캔에는 타이거즈 로고가 새겨져있다. “여기서는 좀 취하는 것도 좋지.” 혼자 말인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정확하게 게임 시작 한 시간 전이 되자 응원석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타이거즈 노래를 부른다. 관중들은 “로코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라는 가사에 이어 “타이거즈여 적들을 무찔러라”는 구호를 외쳐댄다. 앞으로 게임이 끝나기 까지 약 네 시간 반에 걸쳐 관중들은 여러 가지 리듬에 맞춰 이 노래와 구호를 귀가 멍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불러댈 것이다.

이 응원은 7회가 끝나고 수많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곤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장면을 연출한 관중들은 심지어 게임이 끝나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주문에 걸린 듯 응원구호를 외쳐댄다.

짙은 색 상의에 넥타이를 맨 셸러리맨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야구는 인생보다 훨씬 더 명확해서 좋아. 깨끗하고 확실한 승리, 바로 그거야.”

그와는 다른, 아주 간단한 이유로 야구장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도 소리를 질러 목소리가 쉰 한 젊은 남자가 느끼는 야구의 매력은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야구가 좋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의 여자 친구도 한마디 한다. “꼭 락 콘서트에 온 것 같아요. 소리도 많이 지르고 너무 재미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십대로 보이는 응원단 중 한 남자는 눈을 찡긍하며 얘기한다. “이 때가 아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 난 그래서 원정경기에도 따라 간다우.”

일본의 국기(國技)라고도 할 수 있는 야구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다. 개막식에 말러나 베토벤과 같은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 게임 전 워밍업 시간에 볼 판정을 크게 외치며 연습하는 심판들. 세세한 컴퓨터 기록을 옆에 두고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혈액형이 선수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즐겁게 설명해주는 해설자 (A형과 O형은 타격에 자질이 있고, 좋은 투수들 중에는 B형이 많다거나 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점을 들라면 평상시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팬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내성적이며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는 듯하다. 조용하면서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가끔은 폭발하기도 한다, 마치 일본이라는 섬나라의 활화산처럼. 업무가 끝나고 술이 몇 잔 들어가면 셀러리맨들은 속박에서 벗어나 또 다른 자신의 모습, 활기차고 거친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양면성이 극명하게 들어나는 장소가 바로 야구장이다. 관중의 행동을 들여다보노라면 일본인의 심리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다. 전형적인 일본 팬을 예로 들자면 혼자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관전을 하며 그 유명한 일본의 예절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 있는 관중들의 소란스러움이나 저속한 행동들과는 거리가 먼 듯해 보인다. 일본야구의 오래된 관습처럼 파울 된 공도 주워서 구장안내인에게 건네준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매우 조직적으로 구성된 응원단 가운데 앉게 되면 모든 관습을 벗어버린다. 열정이 넘치는 응원단과 타이코 북, 나팔, 호루라기 소리와 같은 소음에 휩싸인 그는 진정한 원시의 상태로 돌아가 9회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소리 지르고 고함치게 되는 것이다.

수천 명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응원단 속에서 게임을 지켜본 뉴욕 TV 프로듀서의 말이다. “이 사람들 정신이상자들이 틀림없어! 월드시리즈하고 육해군 대결 경기 합친 것보다 더 시끄럽구만. 경기 내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추어부터 프로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모든 운동경기에 등장하는 응원단은 19세기 대학야구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생겨났는데, 이들은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요란하며 상당히 호전적인 면이 있었다. 응원에 참가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며, 경기 후 상대방 응원단과의 마찰은 경기장에서의 게임만큼이나 대단했다.

1904년 게임에서 도쿄 라이벌인 와세다를 물리친 게이오대학 응원단은 와세다대학 총장의 학내관저 앞에서 열렬한 만세응원을 외친다. 심한 모욕을 느낀 와세다 응원단은 다음 시합에서 승리하자 게이오대학 총장의 집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만다.

3차전이 열리기 전 이미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수백 명으로 수를 불린 응원단은 유도선수들까지 끌어 모으며 대결에 준비한다. 이를 크게 우려한 관계자들은 양교 간 시합을 취소하는데, 한 번 취소된 경기는 향후 20년간 열리지 못했다.

오늘날 일본의 대학 응원단은 재미로 즐기는 서양의 대학 응원단과는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상급생의 엄격한 명령을 받으며 군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멤버들이 똑같은 검정색의 군대식 교복을 입고, 머리에는 떠오르는 태양과 ‘필승’이라는 구호가 새겨진 머리띠를 한 이들도 많다.

또한 응원단은 우익단체와의 연관성이 있으며 충성과 규율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강한 애착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질서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응원단의 리더는 말한다.

기치로 시마오카는 성공한 대학 감독중의 한명으로 통통한 윌리스 비어리(미국 영화배우)처럼 생겼는데, 30년간 메이지 대학에 많은 우승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그의 팀은 빅 식스 리그(Big Six League) 우승을 수차례 거두었으며, 그가 감독을 맡았던 일본대학 올스타 팀은 대학 월드시리즈(College World Series)에서 미국을 누르고 우승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에서는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었으므로 프로야구에 대해서는 그저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1930년대에 메이지 대학에 다니면서 응원부 단장을 맡았으며, 후배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선배로 인정받았다. 메이지 중학에서 수년간 감독생활을 하던 그는 1952년에 대학감독이 되었다.

시마오카에게는 열정이 있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선수들을 독려했는데, 그가 ‘야레! 야레!’라고 소리치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펼쳐보였다.



태양이 떠오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하늘은 불타오른다.

라이온즈는 지평선을 향해 달려나간다.

강인하고 용맹하며 아름다워라.

휘날리는 그의 이름은 무지개 다리위로 떠오르리.

아…… 라이온즈, 라이온즈, 라이온즈

세이부 라이온즈의 노래 中

“지평선 위의 라이온즈

작사 유 아쿠

1935년 일본에 프로야구가 탄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응원단도 함께 생겨났다. 이들은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공통점은 팀을 사랑하는 열정과 튼튼한 목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프로야구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응원단도 함께 커져갔다. 1970년대 중반에 히로시마 카프가 강자로 떠오르면서 덩치가 커지고 요란해진 카프의 응원단은 게임마다 수많은 깃발을 휘날리는 바람에 경기 장면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 니폰 햄 파이터즈에는 다리가 늘씬한 여성들로 구성된 응원단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다리를 쭉쭉 들어 올리곤 했다.

다케소 시모다 前야구총재는 조용하게 경기를 관전하고 싶어 하는 팬들을 위해 응원단의 자제를 요구하는 노력을 벌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조항을 정했다. 첫째, 다른 사람들에게 응원을 강요하지 말 것. 둘째, 북과 같은 요란한 악기의 사용을 금할 것. 셋째, 응원기와 같은 큰 깃발을 흔들지 말 것. 하지만 이 규정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팬들은 경기 내용뿐 아니라 관중석에서 벌어지는 응원에도 많은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야쿠르트에는 마사야수 오카다라는 응원단장이 있었는데 팬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지면서 게임 중간에 비싼 내야석에서 일반석으로 건너와 그의 응원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그도 역시 팀의 경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다녔는데, 그의 주위에는 자기 비용을 들여 함께 원정을 떠나는 30여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20년 동안이나 이 생활을 해온 오카다는 이렇게 말한다. “그냥 야쿠르트 스왈로우즈가 좋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팀에 미친 거죠. 미치지 않으면 매일 저녁마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파이팅 정신으로 하늘 저 높이
타오르는 공은 하늘을 날아오른다.
아, 자이언츠.
그 이름 영원히 자랑스러워라
그들의 용기가 운동장을 밝힌다.
자이언츠, 자이언츠
가자, 가자, 자이언츠 용사들이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노래 中
“파이팅 정신으로”
작사 산페이 츠바키

일본사회가 그룹 활동이나 규칙 등에 얼마나 엄매어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응원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일부 응원단들은 회비를 받고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자이언츠 응원단의 경우에는 예약석이 아닌 좌석인데도 번호를 지정해 앉으며, 회원들은 응원연습을 위해 게임시작 수시간전에 경기장에 와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다간 좋은 좌석에 앉을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에 응원단은 직장 민주주의의 예라고 할까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원한다면 자신이 새로운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 사업가든 가난뱅이 학생이든 누구나 응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츠쿠바 대학의 오다 교수는 응원단이 중요한 정신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한다. “일본인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마츠리 축제기간만이 모든 규율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식기간이었지요. 이젠 야구장이 마츠리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만큼 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

아마도 코시엔 구장만큼이나 축제 분위기가 나는 곳도, 팬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1985년 한신 타이거즈가 21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자 타이거즈 서포터들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다. 수천 명의 서포터들이 팀을 따라 전국을 다녔는데, 이들은 아예 기차 몇 칸을 전세 내어 팬들만이 타는

특수 타이거 트레인을 타고 다녔다.

새로운 입장관중 기록을 수립하면서 작으나마 경제적 효과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즌 내내 입장권 구입과 더불어 타이거 인형, 타이거 맥주, 타이거 속옷 등의 기념품 판매 등이 함께 늘어나면서 오사카 지역에서만도 오십만 불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러한 타이거즈 팬들의 열광적인 현상은 요미우리신문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1985년 국내 10대뉴스에 뽑히기도 했다.

1987년 타이거즈는 1위와 37.5 게임 뒤진 성적으로 꼴찌를 기록한다. 하지만 인기는 삭을 줄 몰랐고 구단은 외야석까지 지정석으로 만들어 로또 방식을 통해 미리 표를 팔아야만 했다.

우리는 꽃처럼 피어오른다.

야구는 극적인 드라마 ... 그것이 바로 인생
호랑이를 생포하고 ... 고래를 잡으러 가자
용을 삼켜버리고 ... 잉어를 잡아라
커다란 별을 쓰러뜨려라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여 비상하라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의 노래 中
“야쿠르트 스왈로우즈여 비상하라”
작사 산페이 츠바키

운동장에서 빛나는 태양의 힘과 정기가 나의 가슴 속에 산다.

야구를 위해 산다, 가득 찬 꿈을 안은 채

난카이 호크스, 가자!

아, 하늘에 펼쳐이는 금빛 날개

승리의 깃발이 날린다

호크스! 호크스! 난카이 호크스.

난카이 호크스의 노래 中

1980년대에 들어서 일본프로야구의 관중은 약 50%가 늘어나고, 관중의 구성 원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다. 70년대 자이언츠의 고라쿠엔 구장은 대부분 화이트칼라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일류 다국적기업의 임원들과 정부 고급관리들이 그들만의 전용내야석을 차지했으며, 그보다는 낮은 수준의 회사원들, 예비 여피족들이 조금 짠 좌석에 앉는 것이 보통이었다. 심지어 외야의 응원단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뭔가 비즈니스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십여 년이 흐른 후,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짠 좌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게임 상황이나 점수에 관계없이 젊은 선수들을 향해 흥분한 듯 큰 소리를 질러댔다.

1986년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여중고생이 자이언츠 팬의 35%를 차지했다. 레지 스미스는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고 회상한다. “자이언츠가 시내에 들어서면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쓰러집니다.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인사한번 해주면 기절하죠. 마치 유명 가수가 된 듯 했어요.”

오사카의 팬들에게도 역시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때 한신 팬들은 주로 기술·기능직이나 일용직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산업지구인 간사이 지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은 곡괭이질로 힘들었던 하루의 스트레스를 야구장에서 풀었으며, 홈런이라도 나오면 운동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열광적인 팬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야구장에 젊은 팬들이 점차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들은 주로 일본의 극심한 교육경쟁에서 도태된 젊은이들로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를 향해 눈에 띄는 행동들을 하곤 했다.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방황 세대’라 불렀는데, 이들은 야구장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코시엔 구장에서는 원정팀 선수들이 돌이나 병에 맞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는데, 1985년에는 술 취한 젊은 팬이 휘두르는 자전거 체인에 머리를 맞은 심판이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게임이 끝날 때면 관중들이 종이컵이나 계란,

과친코 쇠구슬 등 손에 있는 무엇이든지 집어던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한번은 우천으로 인해 자이언츠와 타이거즈의 경기가 일찌감치 취소되자 수백 명의 성년 관중들이 운동장으로 몰려와 심판들과 주먹다툼을 벌인 적도 있다. 그래서 다음날에는 외야 펜스에 철조망이 세워지기도 했다.

이와는 반대로, 카프 팬들의 응원 목소리는 더 커졌지만 행동은 점잖아졌다. 이들은 한 때 상대팀 선수들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유명했는데, 요미우리 자이언츠 버스 유리창을 모두 깨뜨린 카프 팬들에게 자이언츠의 외야수였던 이 사오 하리모토가 방망이를 들고 응수했던 사건도 있었다. 그랬던 카프 팬들은 아마도 정규시즌 우승을 한 1975년을 시작으로 시민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유가 어쨌든 상대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 일본에서 운동장 폭력이 늘었다고는 해도 미국 야구장과 비교하면 훨씬 점잖은 편이라 할 수 있다. 1980년 월드시리즈가 열린 필라델피아에서처럼 질서 유지를 위해 무장한 안내원들과 경찰견을 동원해야하는 일은 없었으니까.

한신 타이거즈가 1985년 페넌트레이스 우승을 하자 팬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축하를 했고 오사카를 가로지르는 오염된 수로에 뛰어들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1984년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자 팬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경찰차를 뒤집어엎고 수천 불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며 날뛰었으며, 결국 두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끝난 후 폭력이 난무하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인 맨해튼호텔로 돌아온 한 일본인 잡지 편집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밤에 거리를 활보하는 노상강도와 야구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관중 중에 누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일본은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편이다. 일본에는 총도 없고 마약도 없으며 인종 문제도 없다. 우리에게만 법과 질서라는 전통이 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잡지의 브루스 앤더슨은 1985년 일본에서 며칠간 야구를 관전한 후 다음처럼 평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본야구는 미국 야구에서 보이는 비열함이 없다. 일본야구는 깨끗하고 순수한 재미가 있다. 매우 신선하다.”

이 “깨끗하고 순수한 재미”의 일본야구도 타이거즈 응원단의 세이부철도 전철

약탈사건에서 절정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 특이한 사건은 1985년 한신과 세이부가 라이온즈 구장에서 격돌한 일본시리즈 6차전이자 최종전이 종료된 후 발생했다. 타이거즈가 이 경기를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거머쥔 후 도쿄로사와에서 도쿄로 가는 마지막 열차는 기뻐 날뛰는 수백 명의 타이거즈 팬들로 가득 찼고, 이들은 시내로 들어가는 내내 축하응원을 계속했다.

계속 고향을 질러대 목소리가 쉰 이들 응원단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 객차에서 메가폰을 사용해 한신 팀의 선수와 코치, 구단 직원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응원을 하고 발을 굴러대는 바람에 달리는 기차가 흔들릴 지경이었다.

한신에 대한 응원이 끝나자 이번에는 세이부와 요미우리의 모든 선수들을 비웃는 외침이 시작했다.

기차가 역에 멈출 때마다 응원단장이 지시를 내린다. “모두 잘 들으시오. 아무도 기차에서 내리지 마시오. 반복합니다. 아무도 내리지 마십시오. 이 기차는 세이부선이고 밖에는 세이부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구도 이 기차에 탈 수 없습니다.”

사실 열차 전체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다른 사람이 올라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듯 했다. 기차가 멈췄을 때 역 관계자가 호루라기를 불며 객차 안으로 들어가기로 수차례 시도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열차를 보내야만 했다.

열차는 한 시간을 달린 후에 결국 노선의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고, 그 곳에서 내린 팬들은 세이부백화점 앞에 설치된 세이부 라이온즈 기념품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만세를 불러대더니 마지막에는 타이거즈 팀의 노래 중 조용한 구절을 부르며 응원을 마무리했다.

한 팬은 도쿄역에 가서 열차를 타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는 세 시간 반을 합쳐 7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른 것 같으면서 한 마디를 더한다. “신칸센을 탑시다. 그러면 새로 또 응원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6. 샌드위치맨, 고난의 통역사

치고 달리기 작전 시 1루 주자는 2루로 뛰면서 타자에게 소리친다. 타자는 공을 그냥 흘려보낸다.

(일본코치가 미국선수에게 내리는 작전지시)

주자가 소리치면 타자는 스윙을 하지 않는다.

(위 지시에 대한 해석)

처음 통역업무를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게임 중 감독님이 내게 대기타석에서 자기 타순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인 선수에게 가서 치고 달리기(hit-and-run) 작전이 있음을 알려주라고 했다. 일단 운동장으로 들어선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사진에는 교통사고(뺑소니)와 관련된 설명만이 적혀있었다. 마땅한 설명을 찾지 못했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그저 멍하니 서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너무도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다. 나는 그저 뒤돌아서서 운동장 밖으로 걸어 나와야만 했다.

야구 통역사

나를 위해 일했던 통역사는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다. 그는 영어를 하지 못했다.

미국인 선수

모든 일본 프로야구팀들은 전문 통역사를 고용하는데, 이들 통역사는 팀의 외국인 선수들을 운동장 안팎에서 돕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통역사의 업무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외국인선수에게 충실히 전달하고 외국인 선수가 팀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팀의 조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현실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하다(그리 멋있지

만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미국인 선수는 일본에서의 첫 시즌을 맞아 4월 한 달 내내 나쁜 공을 쫓아 다니며 헛스윙만 해대면서 감독의 화를 돋우고 있었다. 이는 전적으로 통역사의 책임이 컸는데, take(치지 않고 보내다)를 swing away(배트를 휘두르다)로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미국인 선수였던 척 매뉴얼은 어느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한날 게임 중 발생했던 턱이 부러지는 불상사에 대해 더 이상 화나지(mad)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통역사는 시청자들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매뉴얼상은 더 이상 미치지 않았다고 통역을 했다.

히로시마 카프 팀의 전 통역사였던 남자가 어느 날 저녁 두 명의 외국인선수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외국인선수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 종종 코치들에 듣기 좋은 말을 지어내서 대답하곤 했음을 고백했다.

사실 이러한 언어로 인한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이는 읽기를 중시하는 반면 실제 대화를 무시하는 일본의 외국어 교육에 기인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수는 있어도 '헬로우' 한마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또한 일본인들은 그들의 언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발음들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v, th, l, r 등과 같은 발음).

연봉협상을 위한 자리에 약 십오 분 정도 늦게 도착한 미국인선수는, 통역사로부터 “당신이 늦은 것에 대해 단장님께서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선수는 수차례 사과를 했지만, 그 때마다 통역사는 계속해서 “단장님께서 이해한다, 하지만 아직도 ‘당신이 늦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만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인선수는 혹시나 자기가 너무 큰 실례를 범한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통역사는 사전을 열어 한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단어는 ‘늦은(late)’이 아닌 ‘비율(rate)’이었는데, 그 밑에는 환율(exchange rate)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었다. 연봉을 계산할 때 선수가 환율을 어떻게 정하고 싶은 지에 대해 단장은 묻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대화중에 속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아마 도쿄대학의 언어학교수라 할지라도 이해하기 힘든 점

이 많았을 것이다. 이 중 야구선수들이 사용하는 그들만의 은어에는 찰리 삼촌 (Uncle Charlie, 커브), 까마귀 뛰기 (crow hop, 포구 시 짧은 스텝으로 옆으로 뛰기), 혹은 말뚝가리의 운 (buzzard's luck, 불운) 등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런 단어들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뉴욕 양키즈 구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일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선수가 있었다. 도쿄에서 이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었던 그는 통역사에게 “어디에 가면 좋은 여자(beef)를 만날 수 있냐”고 물었고, 그 통역사는 도쿄에서 유명한 스테이크 전문점들을 소개해주었다.

게다가 많은 외국인선수들은 지역적 억양이나 인종에 따른 억양이 심하게 섞인 말투를 사용하기도 한다. 게임이 끝날 무렵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테네시 출신의 투수의 대답은 “암 타~드 (Aahm Tard = I'm tired)”였고, 통역사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지명타자의 ”워쥬 윈, 맨? (Wha chu wan, man? = What do you want, man?)”이란 질문에 통역사는 그 말이 중국어인줄 알았다고 한다.

많은 야구 통역사들은 사실 야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통역업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1988년에 요코하마 다이요 웨일러스에서 통역업무를 맡았던 한 젊은 통역사는 미국인 선수였던 짐 파시오랙과 카를로스 폰체에게 “난 야구단에 오기 전까지는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았어. 단지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본사에서 나를 여기에 보낸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하게 별로 야구에 관심이 없었던 카프팀의 한 통역사는 타자 대기석(batter's box)의 열쇠를 찾아달라는, 야구계에서는 오래된 이 농담에 족히 한 시간을 열쇠를 찾아 헤맨 웃지 못 할 경우도 있었다.⁸⁾

친구의 소개로 롯데 오리온즈 구단에서 통역사로 일하게 된 토요 쿠니미츠는 그 이전까지 여러 직업을 경험했었다. 물론 그 어떤 일도 스포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이었지만 말이다. 은행 직원, 회계사, 여행 가이드, 탐정소설 번역가였던 그가 1975년 29살의 나이로 야구단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책상

8) 타자 대기석은 타순을 기다리는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기 전 스윙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운 동장에 그려놓은 원을 말함. 당연히 열쇠란 있을 수 없음.

에만 앉아 있는 일에 싫증이 나기도 했고 시즌이 끝난 후 3개월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야구라는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쿠니미츠는 당연히 야구규칙에 대해서도 문외한이었다. 실제로 근무 첫날, 선수가 티(tee, 타격연습용 공 받침대)를 갖다 달라고 하자, 이를 차(tea)로 알아들은 그는 “레몬하고 설탕도 같이?” 라고 물어야만 했다. “미국인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훔쳐도(steal)되는지를 물었을 때는 내가 도둑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도루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국인들은 흙련을 감자(tater, 방언)라고 부르기도 해요. 막 욕하는 말들은 처음에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일본야구에서는 영어로 된 야구용어를 자기들 식의 발음대로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문에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변화구는 카부(curve), 스트라이크는 수포라이꾸(strike)라 부르며, 엔도란은 치고 달리기(hit-and-run), 추쭈리는 투스트라이크 쓰리볼(3-2 count)를 뜻한다.

일본사람들은 히트 바이 피치드볼(Hit by Pitched ball)을 데도 보루(dead ball), 주무를 마나자(manager), 게임이 종료된 것을 게무 세포(Game set)라 부르며, 장내 흙련을 라닝구 호마(running homerun)라고 한다. 완전히 자기들 식으로 말을 만들어 쭈리 반포(스리 번트, suree banto)라는 용어도 있다. 쿠니미츠는 “미국사람은 영원히 이해 못할 걸요. 미국인들은 쓰리 번트를 ‘번트 온 투스트라이크(bunt on two strike)’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영어를 영어로 통역하고 있는 셈이잖아요.”라고 말했다.

“용어 자체가 너무 달라요. 가이진에게 나이트 게임을 의미하는 *나이타*가 있다고 하면 야구장에 안 나타날 지도 몰라요. 아마 나이타가 무슨 파티나 되는 줄 생각할 겁니다.”

물론 능력 있는 통역사라면 상대방의 문화에 적합한 말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일본의 사고방식에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차이점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일본어와 영어를 완전하게 동시에 쓸 수는 없습니다.” 화교로서 동경의 미국 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어와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니폰 햄

소속의 도시 시마다의 말이다. “통역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키아이 오이레테이코*는 ‘너의 파이팅 정신을 보여줘’란 뜻인데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자주 말하고 선수들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죠. 하지만 이걸 일본식 표현일 뿐이고 영어로는 정확히 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없거니와 미국 선수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도 의미는 달라요.”

몇 년 전 다이요 웨일즈 팀의 환영식에서 많은 그룹 고위관계자들이 모여 외국인 선수들에게 환영한다는 의미로 *간바떼*라는 표현을 썼는데, 웨일즈의 통역인 타다하리오 우취고메는 이를 ‘최선을 다해라’로 해석했다. 사전에는 그 뜻이 ‘버티다, 저항하다’와 함께 적혀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미국인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었고 그래서 그 선수는 그렇잖아도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응수했다. 한데, 이번에는 이 대답이 고위관리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냥 *도모(고맙다)*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그런 식으로 답을 했으니 말이다. 나중에야 우취고메는 ‘최선을 다해라’가 아닌 ‘행운을 빈다’가 올바른 의미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제대로 통역을 했더라면 미국인도 자동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을 테고 모두에게 즐거운 상황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우취고메는 랭귀지 스쿨을 마치고 바로 1962년에 웨일즈에 입사했다. 구단 역사가 첫 통역사였다. 그가 오기 전에는 구단 사장이 종이에 직접 글로 써서, 아무도 뭐라고 썼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외국인 선수와 의사소통을 했다.

우취고메는 처음에는 자신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 열정이 넘쳤다. “여행도 하고 야구도 보고.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그의 정열이 식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언어적인 문제는 사소한 것이었고, 종종 일본인과 미국인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늘 문제가 생깁니다. 이혼하는 부부들을 항상 상대해야 하는 결혼생활 상담사처럼 말이죠.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많은 일본인 토치들은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 방식에 100%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15년 혹은 20년간 해온 자신만의 방식이

있어요. 어린애가 아니라 베테랑 선수란 말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젓어있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일부 코치들은 10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수에게도 코칭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감독이 쳐다보고 있을 때는 더 그렇죠.

그래도 수수하고 편안한 음성을 지닌 우쉬고메는 나은 편이었다. 퍼시픽리그에 있던 한 불운한 통역사는 타격연습 지시를 따르지 않은 미국인 선수 때문에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코치에게 혼나면서 맞기도 했으며, 센트럴리그의 통역사는 통행금지를 지키지 않았던 미국인 선수들로 인해 벌금을 내고 제명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쉬고메에게도 잊고 싶은 기억은 셀 수도 없이 많다.

최악의 경험 중 하나는 일본인 코치가, 양키스 선수였으며 역대 최고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클리트 보이어에게 3부 수비를 가르치려다 일어난 일이었다. 우쉬고메의 말을 더 들어보자.

보이어는 영리하고 어떻게 수비를 해야 하는지를 아는 선수였습니다. 팀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본 타자들의 습관에 대해 빠르게 배워갔어요.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보이어는 바로 그 순간 코치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일본을 떠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치를 만나 보이어는 최고의 야수이니 그를 그냥 내버려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코치가 무척 화를 내더군요. “닥쳐! 여긴 일본이고 일본에 왔으면 일본식을 따라야지. 코치 말에 따라야한단 말이야.” 코치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더군요.

보이어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일본의 관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코치들이 좀 지나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그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해를 하더군요. 다른 외국인 선수였다면 모르겠지만 보이어는 더 이상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니폰 햄의 시마다는, 설사 언어장벽이 사라진 다해도 서양의 사고방식과는 너무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할 것

이라 말한 바 있다.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경우 중 하나가, 아내의 출산문제로 게임에 나갈 수 없다는 가이진에 관한 문제로 니폰 햄의 감독인 케이지 오사와를 설득시키는 일이었다. 일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미국 선수들이 얼마나 아내를 생각하는 지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한 선수의 아내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갔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선수는 자기가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그날 저녁 게임을 못 뛰겠다는 겁니다.

우리 오사와 감독은 당연히 화를 내죠. 제가 미국인들이 얼마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감독에게 설명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감독은 어떻게 그런 이유로 결장을 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만 하시더군요. 타격코치였던 야토는 미국문화를 이해하는 편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선수가 너무 걱정을 하니 어차피 시합에 내보내도 제대로 플레이가 되겠느냐. 차라리 그냥 보내주자고 감독에게 말씀드리더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야 감독님도 이해를 하셨어요.

일본인들이 배타성으로 유명하다면, 미국인들도 자존심을 세우는데 그 못지 않다고 통역사들은 말한다.

주니치 드래곤즈의 통역사로 있던 토시로 아시키는 특하면 토라지길 잘하던 윌리 데이비스를 잊을 수가 없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메이저리거 윌리 데이비스야. 다른 사람들에게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나한테 안 돼.” 아시키는, 드래곤즈 감독이 37살의 데이비스가 좀 쉴 필요가 있다며 선발출장에서 그를 제외했던 날 밤을 선명히 기억한다.

데이비스는 격노하며 아시키에게 말했다. “메이저리그 감독이라면 내가 쉴 것인지 아닌지 나에게 미리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저녁 내내 똥해있던 데이비스는 게임 후반 대수비로 출전하라는 감독의 지시를 거부했다. “감독은 내가 피곤하다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 난 너무 피곤해서 수비를 못 할 것 같은데.”

전국에 중계방송 되던 포스트 게임 후 인터뷰도 아시키에는 잊지 못할 일이었다. 승부를 결정지은 홈런에 대해 데이비스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아나운서의 질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아시키가 물었다. “어떤 종류의 공을 쳤습니까?”

“야구공을 쳤지,”라며 데이비스가 비꼬는 듯이 대답했다.

아시키는 1950년대에 주니치 투수로 입단했었다. 팔에 이상이 생겨 일찍 선수 생활을 접은 아시키는 트레이너로 변신했고 구단이 최초로 미국인 선수인 밥 니만을 영입하면서 통역사의 일을 맡게 되었다.

“영어를 처음부터 배워야만 했죠,”라는 그의 말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등학교에서는 야구에만 전념하느라 ‘안녕’정도밖에 몰랐는데 실제로 미국인들이 쓰는 말은 다르더군요. ‘어이, 별 일 없지?’같은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유머감각도 있던 아시키도 미국인 앞에서 웃을 수 있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습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통역사를 하면서 진 마틴이나 게리 라지쉬처럼 좋은 사람들도 만나봤고 데이비스나 투수였던 바비 카스텔로와 같이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도 거쳤다. 1987년 어느 날 고라쿠엔에서의 게임에서 완패를 당하자 바비 캐스틸로가 스파이크를 벗어서 클럽하우스 재떨이 위에다 올려놓더니 라이터 기름을 신발에 들어붓고 성냥을 그었다. 그래서 몇 분 후에는 동경 소방관들이 출동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도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들의 솔직함이었다. 일본인들은 말을 빙빙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속을 표현 하지 않는 반면 미국인들은 앞에 나와서 마음속의 있는 말들을 그대로 했다.

또한 훈련 시에도 일본인들은 훈련 자체를 강조한 반면 미국 선수들은 밀어치기 등 각 훈련의 목표를 늘 강조했다. 플라이 볼을 쫓아다니다가 땀에 흠뻑 젖으면 훌륭한 연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본식이었다. 그는 미국식 방법이 더 실용적이라 생각했다.

미국인들의 단점을 꼽으라면 대체적으로 불평이 너무 많다는 점이였다. 계약서의 작은 내용을 가지고도 입씨름을 벌여 사람을 피곤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하루 식비를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일부 미국인들은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수백만 달러를 버는 선수도 구단이 전기료를 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한다. 늘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가 아는 다른 팀의 한 스타급 외국인 선수는 구단이 관리비를 대줄 때까지 유니폼을 입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아시키의 생각엔 일본인 선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설사 그 외국인 선수 연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통역사인 이치로 타누마도 자신이 겪은 별난 행동들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써도 될 정도이다.

타누마의 업무는 단순 통역뿐 아니라 자이언츠 구단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거나 한 일인가. 어느 날 레지 스미스가 장난으로 유니폼의 앞뒤를 바꿔 입고 훈련에 나타났다. 그걸 시정케 하라는 지시를 받은 타누마는 스미스에게 어슬렁거리며 다가가 물었다. “스미스, 뭐가 문젠데?”

그러자 스미스가 반박했다. “문제는 너야. 넌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잖아. 운동장에서 좀 나가있으면 안 돼?” 그리고는 공을 줍기 위해 외야로 훅 가 버렸다.

그에 비하면 클라이드 라이트의 행동은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크레이지* 라이트는 박빙의 승부에서 강판될 때마다 늘 화를 냈다. 한 번은 강판당한 그와 함께 운동장을 걸어 나오던 타누마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진정해, 클라이드. 괜찮아.”

TV 중계가 되고 있던 그 때 클라이드가 타누마의 넥타이를 움켜쥐더니 아래로 훅 잡아당기며 거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취했다.

“이봐,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절대 나를 건드리지 마.”

“당황스러웠죠. 텔레비전에도 다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일이 원래 그래요. 유모도 되어야하고 치료사도 되어야하고 별 걸 다 해야 합니다. 사실 라이트는 괜찮은 사람이예요……밖에서는. 그런데 유니폼만 입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다니까요.”

타누마 성격의 장점 중 하나가 태연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수가 적고 불임성 있는 성격의 타누마는 마이애미에서 여행사 일을 하다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야구팀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는 수년간 언론이나 구단 관계자들로

쏟아지는 미국인에 대한 심한 비평을 막아주었다.

제 생각엔 일본인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기자들은 외국인 선수들이 팀의 일원이 되고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을 가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며 화가 납니다. 난센스란 말이죠. 일본인들은 진정으로 외국인들과 어울리고자 노력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죠. 왜 미국인들은 모든 걸 일본식으로 따라해야만 하는 겁니까? 미국인들은 게임을 뛰기 위해 일본에 왔으니 게임을 뛰도록 그냥 내버려두잔 말입니다. 그들이 꼭 미팅에 참석하고 항상 모든 걸 같이 해야 하나요? 그들에게 더 이상 일본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루이지 나카지마는 이태리의 혈통을 지녔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으며 일 년 내내 낚을 대로 낚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야쿠르트의 구단주인 마츠노조는 그를 해외업무 담당으로 발령 내며 지시를 내린다. “유명한 빅리그 선수를 데려오지 못하면 돌아올 생각을 마라.” 그래서 나카지마는 밥 호너를 데려왔다. 그는 일본인과 미국인이 서로를 끊임없이 자극시키며 사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어렸을 적 우상으로 여겼던, 1973년 일본에서 14게임을 뛰고 일본을 떠난 조 페피톤으로부터 가이진의 둔감성에 대해 배우기 시작해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으로 혼란을 발생시키는데 일가견이 있었던 덩치가 큰 붉은 머리의 찰스 매뉴얼로부터 외국인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나카지마는, 코치가 매뉴얼에게 전속력으로 달리기 10회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던 날을 기억한다. 매뉴얼은 “웃기는 소리”라며 간단히 웃어넘기더니 나카지마에게 통역을 맡긴 채 자기는 운동장에서 나가버렸다. 또 한 번은 매뉴얼이 지각하면서 질책 당하고 있던 때였다. 185센티가 넘는 키와 85킬로가 넘는 몸무게의 매뉴얼은 갑자기 나카지마의 양복 옷깃을 잡고 들어 올리더니 다시 한 번 말해보라며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일은 매뉴얼이 호의의 표시로 코치들의 이름을 부르기로 갑자기 결심하면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었다. 어느 오후 훈련이 시작할 즈음 그가 칸지 마루야마 코치에게 다가오더니 “칸지, 안녕하세요?”라며 인

사를 하는 것이었다.

무라야마는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 선수가 코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므로 나카지마를 불러 불만을 토로했다. 나카지마는 무라야마를 달래며 미국에서는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관습임을 설명해 주었다. “그냥 친해 지려고 그럴 거예요.”

무라야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넓은 무라야마는 이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절충안을 내놓았다. 밖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괜찮지만 운동장에서는 무라야마상으로 불러서 적절한 존중심을 표해줄 것을 그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나카지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매뉴얼은 어깨를 으쓱하며 좋다고 했고 그 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고집 센 매뉴얼은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다. 자신이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찌 우정의 표시를 거절한단 말인가. 하루를 더 생각하던 매뉴얼은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부를거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다음 날 구장에 도착한 매뉴얼은 무라야마에게 다가가 또 인사를 했다. “안녕, 칸지?” 무라야마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다시 나카지마를 불러 말을 전하게 했다. “그 외국인에게 똑바로 하라고 해.”

나카지마는 이 고집쟁이 미국인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라야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것이며 얼마나 그의 체면이 손상되는 지를 다시 설명해주었다. 또한 계속 그렇게 불러대면 무라야마가 코치 일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해주었다. 규율이 무너지면 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팀원으로서 코치의 성을 부르는 것이 선수들에겐 신성한 의무였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매뉴얼이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코치와 친구가 되고 싶었고 그러면 그가 좋아하든 아니든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통역사가 감히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매뉴얼은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다. 아마도 똥고집으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고, 무라야마는 매뉴얼이 자신을 놀리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나카지마는 그런 매뉴얼을 막을 수 없었고, 무라야

마는 계속해서 나카지마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한동안 셋 사이에는 불편한 기운이 감돌뿐이었다.

오랫동안 나카지마는 속으로만 끄끙 앓아야 했지만, 결국 무라야마는 매뉴얼의 끈질김에 손을 들었고, 그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매뉴얼은 늘 가운데 끼어 살아야만 했던 나카지마를 좋은 뜻으로 ‘샌드위치맨’이라 불렀다.

1988년에 드래곤즈로 온 쿠니미츠는 미국 선수들의 정신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한다. 작은 키와 억센 머리털의 쿠니미츠는 여유 있는 태도를 지녔다. “가이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을 좋게 해줘야 해요. 러닝을 해야 하는데 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같이 뛰면서 운동을 하도록 해줍니다. 정신적인 훈련 코치라 할 수 있겠죠.”

그는 1979년에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팀 로드 커루, 데이브 파커, 피트 로즈 등 그가 통역을 맡았던 메이저리그 올스타 팀의 일본 방문 시 발생한 일이었다.

그 당시 멤버들이 좀 무례하고 불쾌감을 줬어요. 일본을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시즈오카에 있는 추마고로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하게 됐는데, 파이어리츠 투수인 칸텔라리아가 맥주를 엄청 마셔대더니 소변을 봐야 한대요. 그러더니 통에다 볼 일을 보고 그 통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난 놀랐죠. 운전사도 무지하게 화가 나서는 나보고 칸텔라리아를 차 밖으로 쫓아내라고 야단을 치는데, 결국 칸텔라리아가 맥주를 더 이상 안 마신다는 조건으로 그냥 무마됐어요.

그 때 그 못된 미국인들 때문에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1982년에 켄사스 시티 로얄즈 선수들이 투어를 왔을 때 같이 일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가 바르더군요. 마치 그 팀의 플레이 스타일 처럼 아주 조용했어요. 얌전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증기탕에 데려다달라는 거였는데 흑인들은 잘 출입을 시키지 않거든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한군데를 찾아냈죠.⁹⁾

9) 일본의 증기탕에서는 여성 마사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음엔 터키탕이라 불렀는데 터키 대사관의 강한 항의로 일본정부가 소프랜드로 부르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일본

통역사들이 외국인 선수와 갖는 관계의 종류는 다양하다. 카프의 통역사는 팀 외국인 선수와 너무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사생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통역사가 그들과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객관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구단관계자들의 생각이었다.

그의 후임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미국인 선수인 팀 아일랜드는 그와 2년을 함께 했는데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봄에 성적이 좋지 않으니깐 한 동안 말도 안 걸더라고요. 나중에 말을 하긴 했는데 나를 팀 동료의 이름인 필킨스라고 부르던데요.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창피했나 봐요.”

렌디 베스와 리치 게일은 한신 타이거즈의 통역사를 바꾸도록 만들었다. “우리 감정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어요.” 베스의 말이다. “계약 협상 건으로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말하더군요.”

“연습을 하기 싫을 때는 통역사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감독에게 말을 전하지는 않고 자기가 직접 ‘진담이야? 연습은 꼭 해야 돼’ 같은 말을 해요.”

“꼭 구단 스펀이 같았어요. 원정을 가면 우리가 통금시간을 지키는지 늘 감시하는 거예요. 코치에 대해 뭐라 하기만하면 바로 구단에 가서는 다 말해버리고요.”

타이거즈의 통역사는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이었고, 그는 후임자가 오자 광고 책임자로 승진해 갔다. 베스와 게일은 많이 놀랐겠지만.

왜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어를 배우지 않아서 늘 통역에 의존해야만 하는지 물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본야구 역사를 통틀어서 일본어를 배워 스스로 일을 해결하려 했던 선수는 버키 해리스, 윌리 요나미네, 바비 마카노, 레온 리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부분은 평균 일본체류기간이 짧은 시간적인 이유를 든다. 또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코치나 언론으로부터의 혹평을 생각하면 일본어를 이해 못 할 수록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할 거라는 말도 한다.

예를 들어, 쿠니미츠는 한 때 유별난 유머 감각을 가진 감독 밑에서 일했었는데, 그는 성적이 좋지 않은 외국인, 특히 미국인에게 “떡튀”라거나 “내가 비행기

어휘에는 아직도 터키탕이란 단어가 남아있다.

표를 사왔으니 짐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등의 말을 하곤 했다.

이에 대한 쿠니미츠의 말을 들어보자. “일본 선수들은 이런 말에 익숙해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은 아니죠. 그러니 이런 말은 직접 통역할 수가 없어요. 감독님이 네 타격이 좋아지길 바란다거나 뭐 그런 말로 대신해야만 하죠.”

또 어떤 미국 선수는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가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말을 할 줄 모르면 막말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미국인들은 늘 뭔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미국인들의 특징이죠. 특히 일본에 관해서는 늘 잘못된 말이나 반외교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이런 멍청한 작전은 처음 봤다가 나 하는 그런 말들이요. 만약 통역사가 우리가 하는 말의 10분의 1만 제대로 통역한다면 우린 전부 바로 잘릴 걸요. 그러니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더 나아요. 통역사는 최고의 친구라 할 수 있죠.”

사실 통역사의 임무는 외국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세탁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아시키의 말이다. “어떤 미국인들은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해주지 않은 걸 알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때로는 정확히 전달할 수 없거나 혹은 전달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 있다고 믿어요. 미국 선수가 ‘웃기지 마’라고 하면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바꿔 전합니다.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통역사의 이런 능숙한 해석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드래곤즈와의 12회 연장게임에서 완봉으로 승리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자이언츠의 클라이드 라이트의 말은 TV 인터뷰에서 도저히 그대로 전할 수가 없는 말이었다. 그의 말이 느리게 이어졌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게임을 이기거나 지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게임을 끝내고 바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을 뿐이요.”

이에 대한 타누마의 통역이다. “전 최선을 다했고 팀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의 통역이 클라이드와 자이언츠 관계자들의 체면을 살렸다.

롯데 오리온즈의 투수가 던진 빈볼에 대해 화가 나 있던 니폰 햄 파이터즈의 토니 솔라타는 게임 전 훈련 중 통역사인 토시 시마다와 함께 상대팀 포수에게 다가가 문제를 제시했다.

“야 망할 X아, 한 번만 더 내 머리에다 공을 던지게 하면 넌 죽은 목숨이야.”
장갑차 같은 덩치에 한 성깔 하는 솔라이타가 말했다.

하지만 시마다의 통역은 전혀 감정적이지 않았다. “솔라이타씨가 제발 머리 쪽으로는 공을 던지지 말아 달래요.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합니다.”

포수의 얼굴에 걱정하는 표정이 스쳐갔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이더니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솔라이타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포수도 솔라이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돌아섰고, 솔라이타도 자신의 명예를 지켰다는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물론 큰 싸움으로 변질 수 있었던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 시마다에게도 만족스러운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었다.

평화 유지자로서의 최고의 순간은 케이지 오사와 감독과 미국인 선수 샘 유잉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해결한 때였다.

회의 중 오사와 감독은 전날 게임에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바비 미첼 선수에게 벌금을 부과했는데 동료인 유잉이 생각하기엔 전혀 공정치 못한 상황이었다. 일본 선수들도 수비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들은 벌금을 부과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팅이 끝나고 덕아웃 근처의 복도에서 말싸움이 시작됐다.

“순 엉터리”라며 유잉이 영어로 큰소리쳤다. 그러자 감독이 일본어로 응수했다. “뭐라 그러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서로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은 대강 느끼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자기 나라 말로 있는 대로 큰소리를 쳐대고 있었다.

장신인 유잉이 감독을 움켜잡았고, 키는 작지만 다부진 감독은 이에 맞섰다. 싸움이 커지기 전 코치들이 달려들어 둘을 뜯어말렸다.

시마다는 충격과 걱정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겨우 26살에 이제 막 입사한 시마다는 미국인이 이런 일을 저지르리라곤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비공개 만남을 위한 자리에 시마다가 불려 들어갔다. 여전히 열을 내고 있는 유잉이 왜 자신이 화가 났는지를 설명했다. “왜 미첼한테만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 맘대로 아닙니까?”시마다가 통역을 했고 오사와 감독이 쏘아붙였다. “내가 이 팀의 감독이야. 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대로 통역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 시마다가 수위를 낮춰 말을 전했다. “자신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감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하시는데.”

유잉의 태도가 약간 누그러졌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른 건 내가 사과한다고 전해줘. 둘만 있을 때 그랬어야 했는데.” 두 번째 말은 당연히 뻔 채 시마다가 통역을 했다.

시마다가 수위를 조절하는 가운데 오사와와 유잉 사이에 말이 오가더니 결국 둘은 악수를 할 정도로 진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잉은 팀 앞에서 사과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유잉은 별로 사과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제 일이 너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럼 면에선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죠.”

나카지마는 늘 가운데 끼어서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라도 걸릴 것 같았다. 그래서 이제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꿔 더 이상 외교관 역할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진구구장에서 점심으로 카레를 먹던 그가 한 말이다. “미국 선수가 코치에게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말을 여과 없이 통역했죠. 서로 말싸움을 하면 하라고 내버려뒀어요. 난 통역만 하면 되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양쪽 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서로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더라 말입니다.”

동경 전체에 만발한 벚꽃이 야구장 외부를 분홍색과 흰색으로 온통 뒤덮은 4월 초 어느 날, 새로 온 2명의 미국 선수들을 길들이던 중이던 나카지마는 자신의 또 한 가지 변화된 생각에 대해 말했다. 더 이상 외국인을 위해 변호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전 10시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던 미국인 외야수와 있었던 얘기를 했다. 나카지마가 10시 15분에 그 선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10시 30분에도 전화를 하고 10시 45분에도 전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결국은 11시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선수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로 들려오는 끄끙대는 소리로 보아 아직도 취해 있거나 숙취에 시달리는 것이 분명했다.

미국인 선수가 중얼거렸다. “오늘 훈련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 갈 수가 없는데. 아침 5시까지 술을 마셨거든.”

나카지마는 그에게 일단 구장으로 나오라고 설득했다. “트레이너가 네 상태를 보면 오늘 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테고 그럼 감독한테 얘기해서 하루 쉴 수 있게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지금 걷지도 못하겠어.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만 싶다고.”

나카지마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감독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미국인의 구시렁거리듯 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 물론이지. 마음대로 해. 나는 잠 좀 자게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카지마는 감독에게 가서 사실을 말했고, 감독은 그 선수의 숙소 방향을 향해 ‘바보 같은 놈’이라고 몇 번이나 소리쳐댔다. 그리고는 5만 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 미국인 선수는 내가 감독에게 얘기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겠죠.” 나카지마가 싱글거리며 말했다. “왜냐하면 예전엔 내가 다 좋게 말해줬거든요.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데려갔었다는 등 뭐 그런 말로요.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다음날 그 선수가 구장에 와서 내가 다 얘기한 걸 알고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쳐다보면서 인상만 쓰던데요.”

“하지만 그건 그 선수의 문제이지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 그 선수를 많이 좋아했어요. 하지만 교훈을 얻었죠. 더 이상 가운데 끼여서 고생하지는 않겠다는 걸요.”